

제주오레

[1코스~18-1코스] 가이드북



olleh **kt**

세상에
이런
평화로운 길,
제주올레

제주올레는 걸어서 여행하는 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온전히 걷는 사람들만을 위한 길, 걷고 싶은 만큼 걸을 수 있는 긴 길이 이 아름다운 땅, 제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끊어진 길을 잇고, 잊혀진 길을 찾고, 사라진 길을 불러내어 제주올레가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이 띄엄띄엄 짝는 점의 여행이라면, 제주올레는 그 점들을 이어가는 긴 선의 여행입니다. 점 짝듯 둘러보고 훌쩍 떠나는 여행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제주의 속살을, 제주올레를 걸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제주올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길에서 평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행복한 여행자가 되십시오.

* 제주올레는 자유 여행입니다. 길에서도, 길을 벗어난 곳에서도 개인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올레 길에서 사용하는 여행 제주어

반갑수다예 (반갑습니다)

고맙수다예 (고맙습니다)

얼마우꽈? (얼마입니까?)

훗썰 깎아줍써 (조금 깎아주세요)

하영 줍써 (많이 주세요)

쫄글락현 걸로 줍써 (작은 걸로 주세요)

이거 뭐우꽈? (이거 뭐예요?)

기꽈? (그래요?)

기꽈~ (아, 그렇군요)

빈방 이수꽈? (빈방 있습니까?)

어수다 (없습니다) / 어서 (없어)

이수다 (있습니다) / 이서 (있어)

배고팡 죽어지쿠다 (배고파 죽겠어요)

전복죽이 잘도 코시롱허우다 (전복죽이 참 고소하네요)

삼춘, 어디 감수광?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삼춘, 무싱거 햄수광? (어르신, 뭐하세요?)

어디서 와수광? (어디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와수다 (서울에서 왔어요)

잘 모르쿠다. 다시 고라줍써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해 주세요.)

경해수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 정 행 경 헨 마썸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도 요망진 아이우다 (참 똑똑한 아이네요)

뜰이 참 곱닥허우다 (따님이 참 예쁘네요)

폭삭 속아수다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 갑서에 (잘 가세요)

버스 타는 디 어디우꽈? (버스 정류장이 어디예요?)

이 버스 보목포구 가는 거우꽈? (이 버스 보목포구 가는 거예요?)

외돌개 가줍써 (외돌개로 가주세요)

구짜 갑써 (곧장 가세요)

길이 무사 영 기우꽈 (길이 왜 이렇게 길어요?)

놀멍 쉬멍 걸엄수다 (놀면서 쉬면서 걷고 있습니다)

산도룩한 보름이 불엄쩌게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해가 외랑외랑허우다 (해가 이글거리네요)

이 꽃 이름 뭐우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소똥, 말똥이 잘도 하우다 (소똥, 말똥이 굉장히 많네요)

제주올레 에티켓

다시 왔을 때도 여전히 아름다운 제주올레 길을 걷고 싶다면...

● 내가 먹고 쓰다 남긴 쓰레기는 꼭 챙겨 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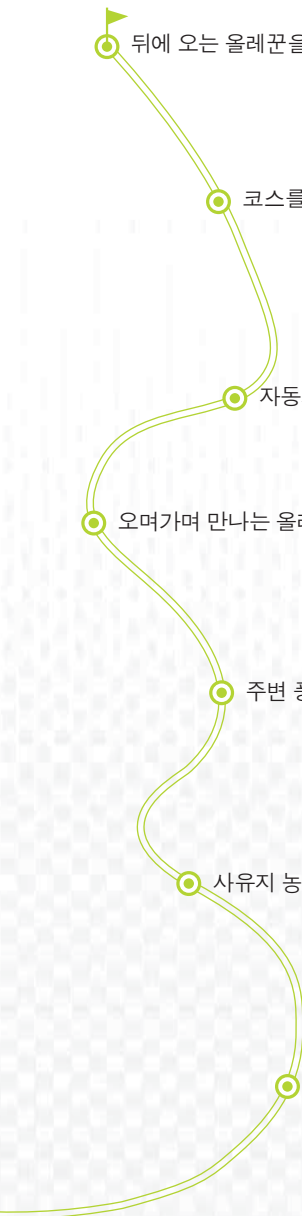
● 굴 껍질도 길가에 버리지 않기

● 길 옆에 매달린 굴이 탐스럽다고 욕심내지 않기

● 길가에 핀 꽃, 나뭇가지를 꺾지 말기

● 탁 트인 오름 정상에 올라 소리치지 않기

● 길 안내 간판을 때리거나 위에 올라타지 말기



● 뒤에 오는 올레꾼을 위해 리본을 떼가지 않기

● 코스를 벗어난 가파른 계곡이나 절벽 등으로의 모험은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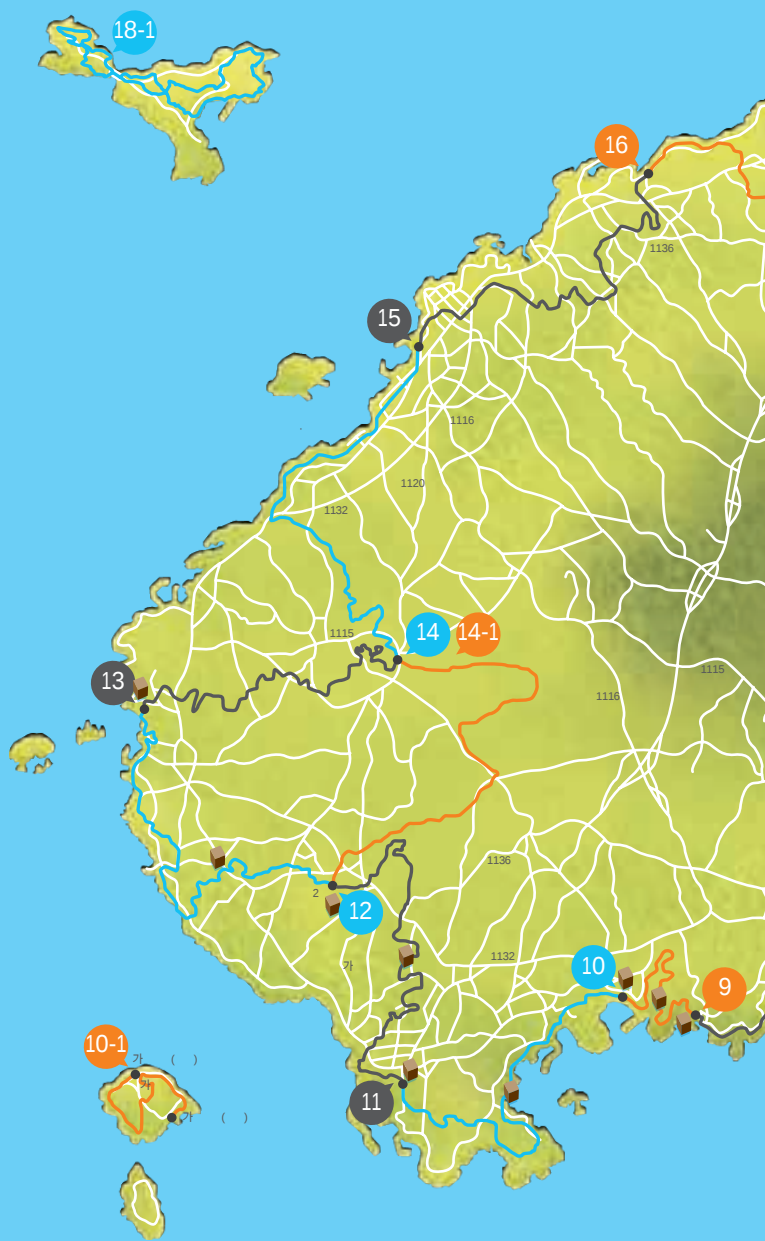
●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변을 지날 때에는 길가로 다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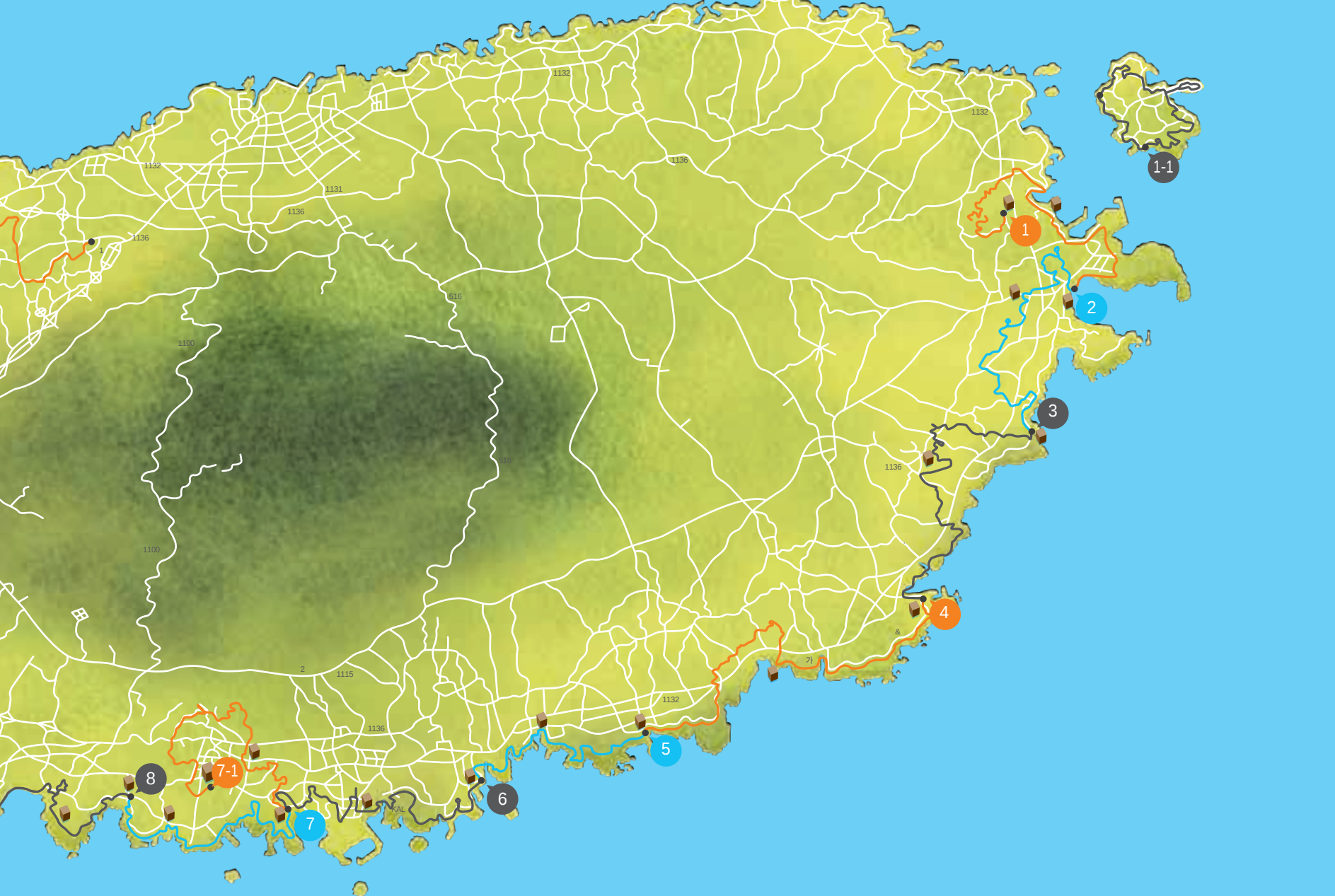
● 오며가며 만나는 올레꾼과 주민에게 정다운 미소, 눈인사 건네기

● 주변 풍광을 놀명 쉬멍 여유롭게 즐기며 걷기

● 사유지 농장을 드나들 땐 내 집 대문인 양 문단속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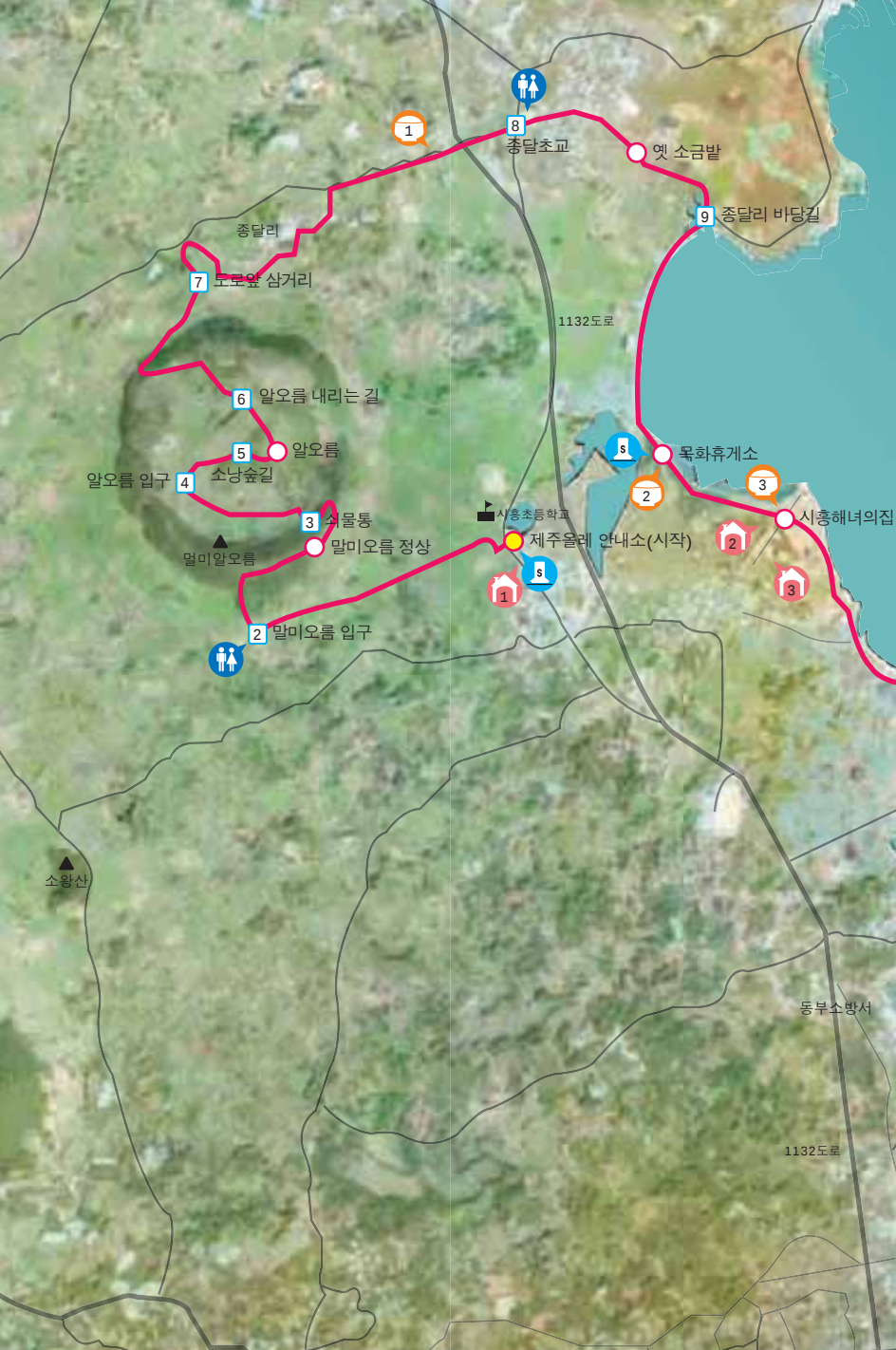
● 길에서 마주친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을 괴롭히지 않기







- 1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시흥초등학교
제주·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주·서귀포 '동회선 일주도로(성산경유)'를 왕복하는 시외버스를
타고 시흥리에서 내린다.



8

종달초교

옛 소금밭

9

종달리 바당길

종달리

7

도로앞 삼거리

6

알오름 내리는 길

5

알오름

4

알오름 입구

5

소낭숲길

3

쇠물통

말미알오름

3

말미오름 정상

2

말미오름 입구



시흥초등학교



제주올레 안내소(시작)



1



S

목화휴게소

2

3

2

3

시흥해녀의집



소왕산

동부소방서

1132도로

1132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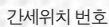
01. 종달리 수다뜰 식당
064-782-1259
02. 목화휴게소
064-782-2077
03. 시흥해녀의집
064-782-9230
04. 충남식당
064-782-4655



01. 강태어 할망집
010-7755-2948
02. 오신생 할망집
016-9838-4773
03. 강병희 이장집
011-691-3278
04. 쏠레 민박
064-784-1668
05. 초롱 민박
064-782-4589



제주올레 안내소
목화휴게소
광치기 해산물촌



1코스 ▶ 시흥~광치기 올레

제주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 오름과 바다가 이어지는 ‘오름-바당 올레’다. 아담하고 예쁜 시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사시사철 푸른 들을 지나 말미오름과 알오름에 오르면, 성산 일출봉과 우도, 조각보를 펼쳐놓은 듯한 들판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검은 돌담

을 두른 밭들이 웅기종기 붙어 있는 들판의 모습은 색색의 천을 곁게 기워 붙인 한 장의 조각보처럼 아름답다. 종달리 소금밭을 거쳐 시흥리 해안 도로를 지나면 성산 일출봉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지는 수마포 해변에 닿는다. 길이 끝나는 광치기 해변의 물빛도 환상적이다.

코스 난이도 ▶ 중 011.699.7224

코스 초반에 두 개의 오름을 오른다. 비나 눈이 온 뒤에는 길이 조금 미끄러울 수도 있다. 이후로는 오르막이 없는 평탄한 길이다.

코스 경로 ▶ 총 15.6Km, 4~5시간

시흥초등학교 → 말미오름 입구 1.1km → 말미오름 정상 1.8km → 식물통 2.2km → 알오름 정상 3.3km → 알오름 내려오는 길 3.6km → 삼거리 4.8km → 종달초등학교 6.5km → 종달리 옛 소금밭 6.9km → 종달리 바당길 7.6km → 목화휴게소 8.5km → 성산갑문 11.5km → 성산포항 입구 12.2km → 성산마을제단 13km → 수마포 13.9km → 광치기 중간 14.8km → 광치기해변 15.6km

볼거리

말미오름 말의 머리처럼 생긴 이 오름의 다른 이름은 두산봉. 아래로는 성산포의 들판이 펼쳐져 있고, 정면에 성산 일출봉, 그 왼쪽에 우도가 한눈에 보인다.

알오름 이름처럼 새 알을 닮은 오름이다. 말산메라고도 부른다. 성산포의 들판과 성산 일출봉, 우도는 물론이고 한라산과 다랑쉬오름 등 제주 동부의 오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성산일출봉 성산반도 끝머리에 있는 화산.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해식에(해식과 풍화 작용에 의하여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이고, 분화구 위에 99개의 바위 봉우리가 빙 둘러 서 있는데 그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 해서 성산이라 부른다. 해돋이로 유명하다.

종달리 소금밭 옛 종달리 사람들이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금을 만들던 밭. 소금이 귀하던 시절, 이 곳에서 가마솥에 끓여 만든 소금은 종달리 아낙들에 의해 제주 전역으로 팔려나갔다.

종달리 해수욕장 작지만 예쁜 해수욕장이다. 해초가 많고 조개가 많이 나는 종달리 바닷가의 물빛은 제주도의 어느 바다와는 달리 연녹색을 띠고 있다. 종달리 모래밭에서 나는 조개는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샤워장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어져 있으니, 더운 여름에는 코스에서 잠시 벗어나 해수욕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수마포 해안 제주에서 기른 국마를 성산포구에서 육지로 실어낼 때 말을 받아들였던 곳.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수세에 물린 일본군이 파놓은 23개의 동굴진지가 상처처럼 남아 있다.









● 1-1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천진항

1. 성산항으로 간다.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산행(동회선 일주도로) 버스를 타고 성산포에 내려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성산항을 만날 수 있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산행(동회선 일주도로) 버스를 타고 성산포에 내려 도보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성산항을 만날 수 있다.

2. 성산항에서 천진항 또는 하우목동항행 도항선을 타면 15분 만에 우도에 닿을 수 있다.

도항선 운항시간

우도행 - 오전 8시 ~ 오후 6시 30분

성산행 - 오전 7시 ~ 오후 6시

■ 도항선 운임 : 왕복 5,500원(입도세 포함)

■ 도항선 문의 : 064.782.5671



식당

- 01. 등머울먹보네
064-782-4133
- 02. 산호일해횃집
064-782-5204
- 03. 푸드코트
- 04. 해와달 그리고 섬
064-784-0941
- 05. 동굴밥상
064-784-6678



숙소

- 01. 동굴리조트
064-784-4475



간세위치 번호





1-1코스 ▶ 우도 올레

소가 드러누운 모습으로 떠 있는 우도는 푸른 초원과 검은 돌담 그리고 등대가 가장 제주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우도 올레는 제주도에 딸린 62개의 섬 가운데 가장 크고 일년 내내 쪽빛 바다색을 자랑하는 우도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다. 쇠물통 언덕을 지나 제주의 옛 돌담을 고스란히

간직한 돌담 올레를 걷고, 호밀과 보리, 땅콩이 자라는 밭둑 올레를 즐긴다. 기존 우도봉 산책 코스는 바로 올라 전망대로 가지만, 올레 코스는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우도 저수지 옆 길을 지나 우도봉으로 오르게 길을 냈다. 이 길은 꽃양귀비와 크림슨클로버로 뒤덮인 아름다운 초원이다.

 코스 난이도 ▶ 하  011.694.0666

전체적으로 큰 굴곡이 없지만, 차와 스쿠터 등에 주의하며 걸어야 한다.

코스 경로 ▶ 총 15.9Km, 4~5시간

천진항 → 쇠물통언덕 0.9km → 홍조단괴해빈 해수욕장 2km → 하우목동항 3.2km → 산물통(오봉리 주흥동) 4.4km → 망루 앞 삼거리 5.6km → 파평윤씨 공원 6.5km → 하고수동 해수욕장 7.5km → 비양도 망대 9km → 조일리 영일동 입구 10.1km → 검멀레 해수욕장 12km → 망동산 12.7km → 우도봉 13.2km → 농로사거리 15km → 한반도여 15.4km → 천진항 15.9km

볼거리

하고수동 해수욕장 우도봉을 배경으로 펼쳐진, 백사장이 넓고 깨끗한 해수욕장. 여름 밤이면 고기잡이 어선들이 무리를 지어 앞바다를 환하게 밝힌다.



홍조단괴해빈 해수욕장 우도 서쪽 바닷가에 위치한 해수욕장. 홍조류가 바위 등에 몸을 붙이면서 살기 위해 만들어내는 하얀 분비물과 조가비로 만들어진 백사장은 하얗다 못해 푸른 빛이 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어서 2004년 천연기념물 제 438호로 지정되었다.

호밀 밭 위스키나 맥주의 원료가 되는 호밀이 우도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다. 5월의 우도를 황금빛으로 일렁이게 하는 주인공.

크림손클로버와 꽃양귀비 군락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크림손클로버와 꽃양귀비는 매년 5~6월, 우도를 붉은 섬으로 물들인다.

비양도 우도 동북쪽에 붙어 있는 작은 섬. 다리가 있어 걸어서 5분이면 건넌다. 비양도 안쪽에 있는 망대로 올라 바라보는 풍경이 일품이다.

쇠물통 언덕길 방목장의 소들이 목이 마르면 찾아와 물을 먹던 곳이다.

우도봉 석편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듯 가지런하게 단층을 이룬 절벽으로, 우도의 섬 머리이다. 빛깔 고운 잔디와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은 우도를 대표하는 아름다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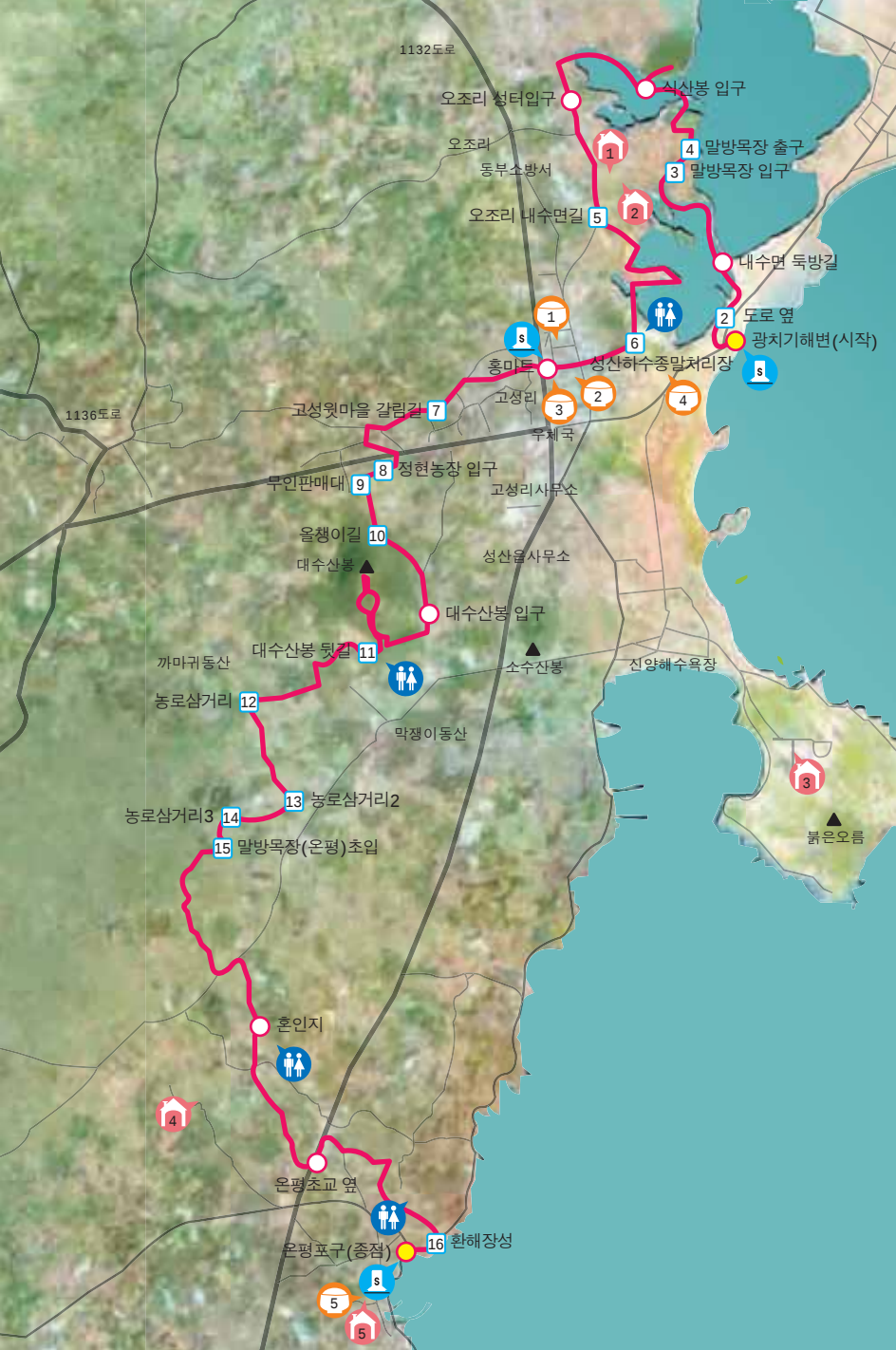




● 2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광치기 해변

제주·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주·서귀포 '동회선 일주도로(성산 경유)'를 왕복하는 시외버스를 타고 동남에서 내려 성산일출봉 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해안을 발견할 수 있다.





 식 당

01. 호떡분식
064-782-5816
02. 동서네 해장국
064-783-3773
03. 홍마트
064-782-5226
04. 아바이 순대
010-3866-2972
05. 소라의 성
064-784-6678

 숙 소

01. 신촌자 할망집
010-3866-2972
02. 홍무생 할망집
010-9077-2549
03. 휘닉스 아일랜드
1577-0069
04. 동지 황토 마을
011-698-8805
05. 소라의 성
064-784-6678

 스 탑 프

광치기 해산촌
성산 홍마트
은평 혼인지 정보센터

 간세워치 번호

2코스 ▶ 광치기~온평 올레

성산리 광치기 해변에서 출발하여 고성, 대수산 봉, 혼인지를 지나 온평리 바닷가까지 이어지는 올레. 물빛 고운 바닷길부터 잔잔한 저수지를 낀 들길, 호젓한 산길까지 색다른 매력의 길들이 이어진다. 대수산봉 정상에 서면 시흥부터 광치기 해

변까지 아름다운 제주 동부의 풍광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제주 '삼성 신화'에 나오는 고, 양, 부 삼신인이 벽랑국에서 찾아온 세 공주를 맞이하였다는 온평리 바닷가를 걸어 그들이 혼인식을 치렀다는 혼인지도 지나게 된다.

코스 난이도 ▶ 중 010.2061.2140

초반에는 물길이 이어지다가 중반 짙은 오름을 오른다. 오름 앞뒤로는 호젓한 산길이라서 두 명 이상이 짝지어 가는 것이 좋다.

코스 경로 ▶ 총 18.1Km, 5~6시간

광치기 해변 → 대수면 독방길 1km → 식산봉 2.8km → 오조리 성터 4.1km → 성산하수종말처리장 6.2km → 홍마트 6.8km → 고성윗마을 갈림길 → 대수산봉 입구 9.5km → 대수산봉 뒷길 11.6km → 말 방목장 12.6km → 혼인지 15.5km → 온평초등학교 16.5km → 환해장성 17.8km → 온평포구 18.1km

볼거리

식산봉 오조리 바다는 고려시대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았다. 당시 일대를 지키던 조방장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오름을 군량미가 높이 쌓여 있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먼 바다에서 본 왜구들은 군사가 많은 것으로 여겨 다시는 함부로 일대를 넘보지 않았다. 그 뒤 군량미로 위장한 오름을 '식산봉'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봉우리 정상에 장군을 닮은 바위가 있다 하여 바위오름이라고도 부른다.

대수산봉 고성리 일대 두 개의 오름 사이에는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흐르는데, 물을 기점으로 큰 오름을 '큰물피', 작은 오름을 '은물피'라고 부른다. 대수산봉은 큰 오름인 '큰물피'의 한자 표기이다. 대수산봉 정상에 서면 제주올레 1코스 지점인 시흥리부터 종점인 광치기 해변까지 아름다운 제주 동부가 한눈에 들어온다.

혼인지 제주의 옛 신화 중 하나인 '삼성신화'에 나오는 고, 양, 부 삼신인(三神人)이 벽랑국에서 온 세 공주와 혼인한 곳이다. 이곳에는 삼신인이 세 공주와 결혼을 한 뒤 잠시 살았다는 바위동굴 집이 있다.

황루알 고, 양, 부 삼신인이 벽랑국에서 찾아온 세 공주를 맞이한 지금의 온평리 바닷가를 말한다. 황루알이라는 이름은 세 공주가 제주에 상륙할 당시 노을이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였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으며, 황노알 또는 황날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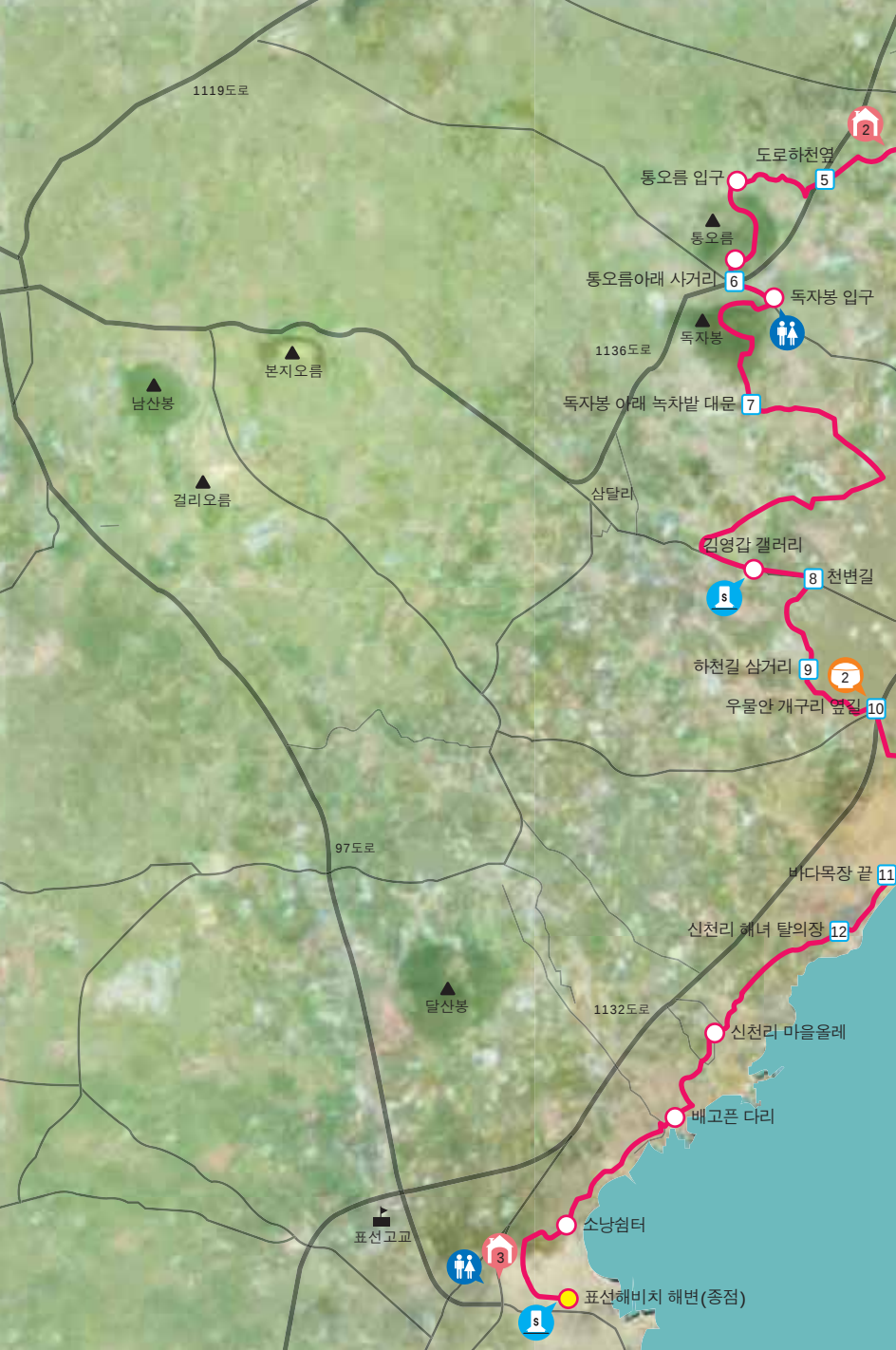
● 3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온평포구

제주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주-서귀포 '동회선 일주도로(성산 경유)'를 왕복하는 시외버스를 타고 온평리에서 내린다. 바다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출발점인 온평리 종합 안내 센터가 보인다.





JEJUOLLE
ROUTE 03



1119도로



도로하천연

통오름 입구

5

통오름

통오름아래 사거리

6

독자봉 입구



독자봉

1136도로

독자봉 아래 녹차밭 대문

7

삼달리

김영갑 갤러리



8 천변길

하천길 삼거리

9

2

우물안 개구리 연길

10

97도로

바다목장 끝

11

신천리 해녀 탈의장

12

신천리 마을올레

배고픈 다리

소낭섬터



3

표선해비치 해변(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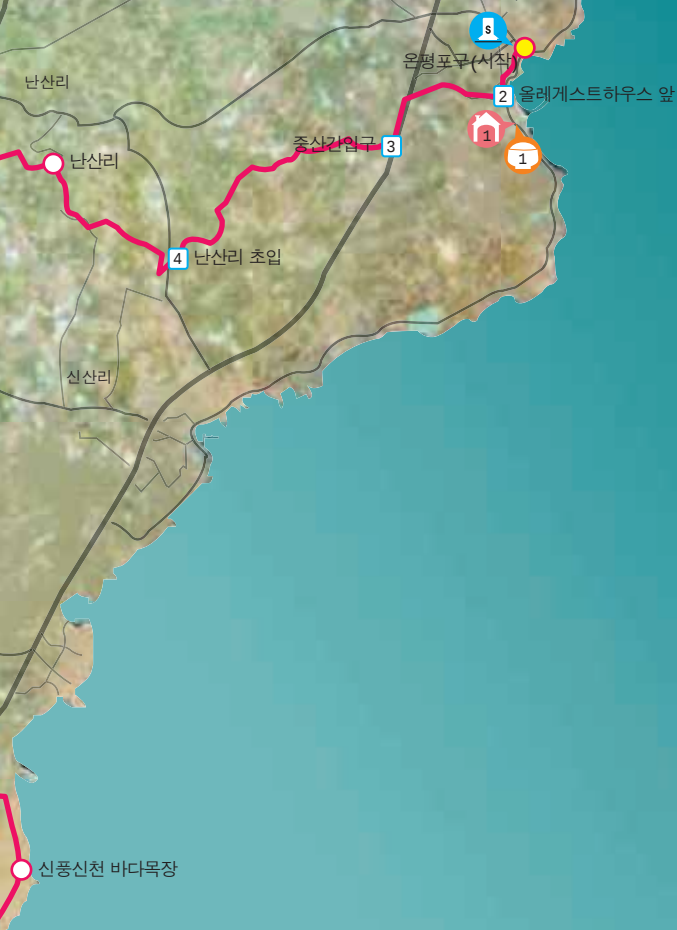
표선고교

달산봉

남산봉

본지오름

걸리오름



식당

01. 소라의 성
064-784-6678
02. 우물안 개구리
064-784-9300

숙소

01. 소라의 성
064-784-6678
02. 고정화 할망집
010-7474-3888
03. 가원비치
064-787-0063

스탬프

온평 혼인지 정보센터
김영갑 갤러리
제주올레 안내소

간세워치 번호



3코스 ▶ 온평~표선 올레

장장 14킬로미터에 걸친 중산간 길의 고즈넉함을 만끽할 수 있는 올레다. 양옆에 늘어선 오래된 돌담과 제주에 자생하는 울창한 수목이 운치를 더한다. 나지막하지만 전망이 특 트인 통오름과 독자봉 또한 제주의 오름이 지닌 고유의 멋을 느끼게 해준다. 도중에 김영갑갤러리 두모악에 들러 사진

에 담긴 제주의 하늘과 바다, 오름, 바람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이 올레의 매력. 중산간 길을 지나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바다목장 길이 열린다. 물빛 바다와 풀빛 초장이 푸르게 어우러진 낮선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는, 제주에서만 접할 수 있는 바닷올레길이다.

 코스 난이도 ▶ 상  010.4742.7356

코스 길이가 20.7km에 달하고 중간에 오름과 바닷길이 포함되어 있다.

코스 경로 ▶ 총 20.7Km, 6~7시간

온평포구 → 도댓불 0.2km → 중산간 입구 1.4km → 난산리 4.6km → 통오름 입구 6.4km → 통오름 정상 7.1km → 독자봉 입구 7.7km →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12.1km → 하천길 삼거리 13.4km → 우물안개구리 옆길 14.2km → 신풍 신천 바다목장 15.1km → 신천리 해녀탈의장 16.2km → 신천리 마을 올레 17.1km → 하천리 배고픈다리 18.4km → 소낭쉼터 19.6km → 표선해비치해변 20.7km

볼거리

도댓불 현무암으로 쌓아 올린 제주의 전통 등대. 해질 무렵 뱃길 나가는 어부들이 생선 기름 등을 이용해 불을 밝히고 아침에 돌아오면 그 불을 켜다.

통오름 오름 형태가 물통처럼 움푹 팬 데서 유래한 이름. 가을이면 보랏빛 꽃밭으로 변하는 오름이다. 패랭이, 개쑥부쟁이, 꽃향유 등이 자생한다.



독자봉 말굽형이며 분화구가 통오름과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 서로 등을 돌려 앉은 형세다. 이 주변 마을에는 유독 외아들이 많은데, 이 오름의 영향 때문이라는 설이 전해진다.

신평 · 신천 바다목장 신평리와 신천리 바닷가에 자리한 목장. 물빛 바다와 풀빛 초장이 어우러진 목장의 풍경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함이다. 신평리에서는 매년 제주의 전통 축제인 ‘어멍아방 잔치’가 열린다.

배고픈 다리 고픈 배처럼 밑으로 쭉 꺼진 다리. 한라산에서부터 흘러와 바다로 이어지는 천미천의 꼬리 부분에 놓여 있다.

표선 백사장 길이 0.8km, 너비가 8만 평이나 되는 표선 백사장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썰물 때는 커다란 원형 백사장이 되었다가 밀물 때는 바닷물이 밀려들어와 커다란 호수로 변한다. 조개껍데기 가루로 형성된 백사장이라서 신경통에 좋다고 한다.

당케포구 전설에 의하면 당케포구 인근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파도가 마을을 덮쳐 쑥대밭이 되곤 했다. 이에 주민들이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할망에게 소원을 빌자 할망이 포구를 만들어주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모래밭 끝머리 포구 근처에 할망당이 있다.

제주민속촌박물관 1890년대의 제주를 재현해 놓은 야외 박물관이다. 산촌, 중산간촌, 어촌, 관아, 무속신앙촌 등으로 꾸민 100여 채의 전통 가옥은 제주도민이 실제로 생활하던 집을 돌 하나 기둥 하나까지 그대로 옮겨와 복원해 놓은 것. 가옥 내에 생활용품, 농기구, 어구, 가구, 석물 등 약 8천여 점의 민속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제주올레 패스포트 소지자는 입장료를 20% 할인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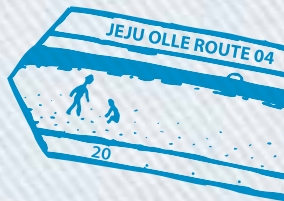


3코스 초입에서 만난 제주 흑돼지 © 심재욱



신풍해안길 © 이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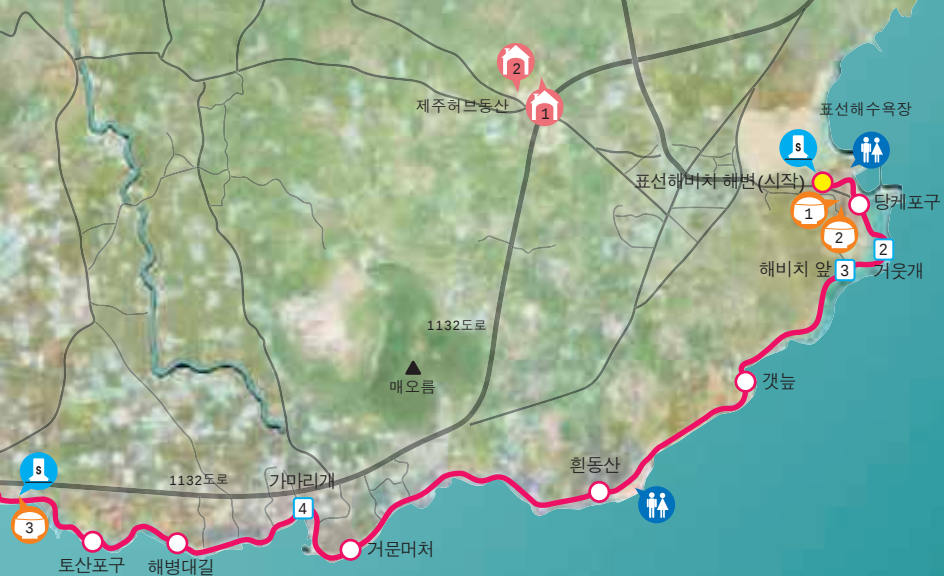




● 4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온평포구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주-표선간 시외버스(번영로 경유)를 타고 제주민속촌박물관에서 내린다. 해수욕장 쪽으로 1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주-서귀포 동회선 일주도로(성산 경유) 시외버스를 타고 표선 사거리에서 내린다. 해수욕장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





식당

01. 다미진 찻집
064-787-5050
02. 어촌식당
064-787-0175
03. 남쪽나라찻집
064-787-5556
04. 햇살좋은 쉼터

숙소

01. 세화의 집
064-787-7794
02. 탐라 스포텔
019-693-3992

스탬프

제주올레 안내소
토산 남쪽나라 찻집
남원 포구 편의점

간세위치 번호

4코스 ▶ 표선~남원 올레

절반은 아름다운 해안 올레고, 나머지 절반은 오름과 중산간 올레다. 가마리 해녀올레는 '세계 최초의 전문직 여성'으로 불리는 제주 해녀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며, 이곳을 거쳐 'ㄴ개'로 가는

로 가는 숲길은 제주올레에 의해 35년 만에 복원되었다. 토산리 망오름과 거센새미는 중산간의 특별한 풍광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데, 거센새미 가는 길은 제주올레가 새로이 낸 길이다.

코스 난이도 ▶ 상 018.692.9688

코스 길이가 가장 길고, 오름과 바닷길이 일부 포함돼 있다. 바다 옆으로 쪽 이어진 해안도로를 따라 오래 걷는다.

코스 경로 ▶ 총 22.9Km, 6~7시간

표선해비치해변 → 거웃개 0.7km → 갯늘 2.2km → 흰동산 3.8km → 거문머치 5.6km → 가마리개 6.2km → 해녀탈의장 6.6km → 해병대길(ㄴ개) 7.4km → 토산 산책로 입구 7.6km → 토산포구 8km → 남쪽나라 횃집 8.8km → 산여리통 입구 9km → 토산초등학교 9.8km → 망오름 입구 11.3km → 망오름 정상 11.8km → 망오름 쉼터 12.3km → 거센새미 12.8km → 영천사 13.8km → 방구동 14.8km → 삼석교 16.4km → 태흥2리 포구 18.8km → 태흥1리 쉼터 20.9km → 남원포구 22.9km

볼거리

당케포구 전설에 의하면 당케포구 인근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파도가 마을을 덮쳐 쑥대밭이 되곤 했다. 이에 주민들이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할망에게 소원을 빌자 할망이 포구를 만들어주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모래밭 끝머리 포구 근처에는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할망당이 있다.

갯늘 표선 서남쪽 해안 갯가에 있는 습지로, 테우도 땀 수 있었던 늪은 늪이다.

거웃개 해안선에 면해 있어 마치 포구 같은 인상을 준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염전을 조성해 소금을 생산했던 곳이다.

가마리개와 가마리 해녀올레 세화 2리 동남쪽 바닷가를 일컫는 이름. 포구의 머리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해서 '갯머리'라고 했던 것이 변형돼 가마리가 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재편으로 '세화 2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가마리'라고 부른다. 가마리 해녀올레는 이곳 해녀들이 바닷가로 오르내리던 길인데, 이곳에서 'ㄴ개'로 가는 바다 숲길은 제주올레에 의해 35년 만에 복원되었다.

ㄴ개 하천과 만나는 바다의 앞 부분이 가느다랗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잡목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다.

해병대길 ㄴ개 앞바다에서 샤인빌 리조트로 이어지는 바윗길. 제주지역방어사령부 소속 93대대 장병들에 의해 친환경적으로 조성되었기에 '해병대길'이라고 불린다.

망오름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있었던 오름이다. 서쪽으로는 자배봉수, 동쪽으로는 달산봉수와 교신했다고 한다. 정상부에 봉수대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영천사(노단새미) 영천사 앞 언덕 밑에서 솟아나는 샘. 한 줄기는 한라산으로 거슬러 흐른다고 거سن새미, 다른 한 줄기는 오른쪽 바다로 흘러내린다고 노단새미라 부른다. 노단은 제주어로 오른쪽을 의미.

거سن새미 대부분의 샘은 위에서 아래로, 산에서 바다로 흐른다. 그러나 이 샘은 바닷가로 흐르지 않고 한라산을 향해 거슬러 오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 황실이 제주에서 장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장수 호종단을 제주에 급파해 산혈과 물혈을 모두 끊어버리도록 지시했지만, 이곳 거سن새미와 노단새미만은 화를 면해 지금도 솟고 있다고 한다.







© 김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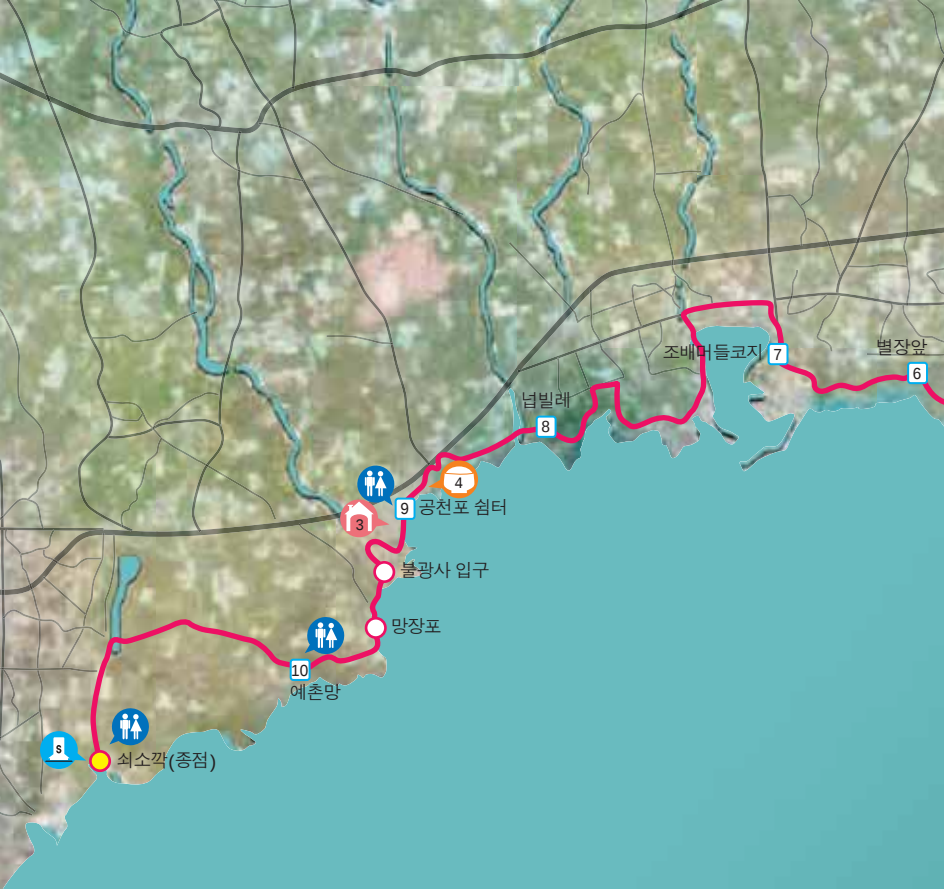


등대가는길 © 이해선



● 5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남원포구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주-남원간(남조로 경유) 시외버스를 타고 남원리에서 내려 바닷가 쪽으로 5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남원포구를 발견할 수 있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주-서귀포 동회선 일주도로(성산 경유) 시외버스를 타고 남원리에서 내려 바닷가 쪽으로 5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남원포구를 발견할 수 있다.



조배머들코지 7

별장앞

6

넙빌래 8



9 공천포 섬터

4



10
에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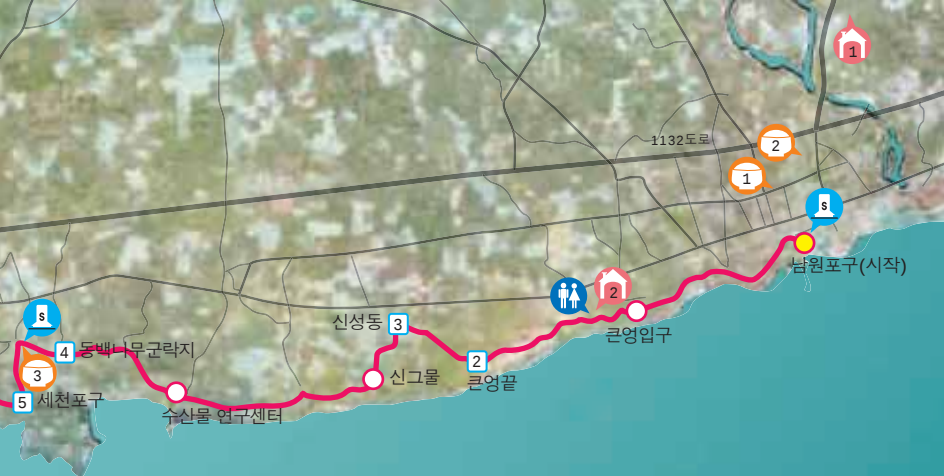
망장포

불광사 입구



최소깍(중점)

S



식 당

01. 범일분식
064-764-5069
02. 마당갈비식당
064-764-5989
03. 곤네골올레점방
04. 공천포 식당
064-767-2425



숙 소

01. 티파니에서 아침을
064-764-9669
02. 금호리조트
064-766-8000
03. 현동순 할망집
010-5696-3666



스 텀 프

남원 포구 편의점
곤네골 올레점방
석소깍 휴게소



간세위치 번호

5코스 ▶ 남원~쇠소깍 올레

일출봉이 아스라이 보이는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꼽히는 큰영 경승지 산책길을 지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쇠소깍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오감을 활짝 열고 걷는 바닷올레와 마을올레다. 키가 훌쩍 큰

동백나무로 울타리를 두른 마을 풍경이 멋스럽다. 남원읍과 해병대 93대대의 도움을 받아 사라지고 묻히고 끊어진 바닷올레길 세 곳을 복원했다. 덕분에 난대 식물이 울창한 숲을 지나서 바다로 나가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코스 난이도 ▶ 중  011.600.3316

전체적으로는 평탄한 길이지만, 험한 바윗길 구간도 지나다.

코스 경로 ▶ 총 14.7Km, 4~5시간

남원포구 → 큰영 입구 1.2km → 제주올레 안내소 1.8km → 신성동 2.7km → 신그물 3.5km → 수산물연구소 4.6km → 동백나무 군락지 5.2km → 곤내골 올레점방 5.5km → 세천포구 5.8km → 조배머들코지 7.1km → 넙빌레 10km → 공천포 쉼터 10.9km → 배고픈 다리(우회분기점) 11.6km → 망장포 12km → 예촌망 12.8km → 쇠소깍 14.7km

볼거리

산책로 남원 바닷가 인근의 산책길. 외돌개 근처 돌배낭길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꼽힌다. 높이가 15~20m에 이르는 기암절벽이 성곽처럼 둘러 서 있고 산책로 중간 즈음에 큰영이 있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지중해나 에게해보다 더 푸르고 속이 흰히 보일 정도로 맑다. 산책로 근처에는 우무사스레피와 돈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모진 바닷바람으로 인해 뒤로 누워 있다. 영은 바닷가나 절벽 등에 뚫린 바위그늘(언덕)을 뜻하는 제주어.

신그물 / 태웃개 신그물은 단물이 나와 물이 싱겁다는 뜻으로 옛날에는 물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말랐다. 바로 옆의 태웃개(태우를 매어두던 곳)에는 용천수 담수탕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노천욕을 즐긴다.

동백나무 군락지 과거 이 일대에는 어른이 두 팔을 벌려도 못 안을 만큼 수령이 오래된 토종 동백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황무지를 옥토로 가꾼 한 할머니의 땀과 정성이 깃든 땅이다. 17살에 시집온 현맹촌 할머니는 어렵게 마련한 황무지의 모진 바람을 막기 위해 한라산의 동백 씨앗 한 섬을 따다가 심어 기른 땅과 울창한 숲을 이루어냈다.

넙빌레 차디찬 용천수가 풍부하게 솟아 지역 주민들의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한 곳이다. 여자는 동쪽, 남자는 서쪽에서 노천욕을 즐긴다. 넙빌레는 제주어로 ‘넓은 빌레(너럭바위)’.

망장포구 고려시대 말, 세금으로 거둔 물자와 말을 원나라로 보내던 포구였다. 이 지역에 그물을 많이 친다고 해서, 혹은 왜구의 동태를 살펴 봉화를 올렸다고 해서 망장포로 불렀다고도 전한다.



© 심재욱

예촌망 지형이 마치 여우와 닮았다고 해서 호촌봉수라고도 부른다. 이 봉수터는 1960년대 이후에 감골원이 조성되면서 사라졌다.

조배머들코지 위미항에 있는 뾰족한 곳. 한눈에 시선을 잡아끄는 기암괴석군이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이전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한 풍수학자가 ‘큰 인물이 나올 곳’이므로 맥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마을의 유력자인 김 아무개를 거짓으로 피었다고 한다. 바위가 김씨 집안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형상이므로 치위야 집안에 우환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집안을 지키려고 기암괴석을 파괴했고, 그 과정에서 이무기가 붉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쇠소깍 바닷물과 민물이 합수하면서 절경을 빚어낸 관광 명소다. 쇠는 소, 소는 웅덩이, 깍은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래는 소가 누워 있는 형태라고 해서 쇠둥이라 불렀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만들어낸 쇠소깍의 깊은 물에는 손으로 줄을 당겨 이동하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교통수단인 ‘테우’가 떠다닌다. 40~50분 계곡을 거슬러 오르며 천천히 유람하는 테우의 이용 요금은 5천원. 마을청년회에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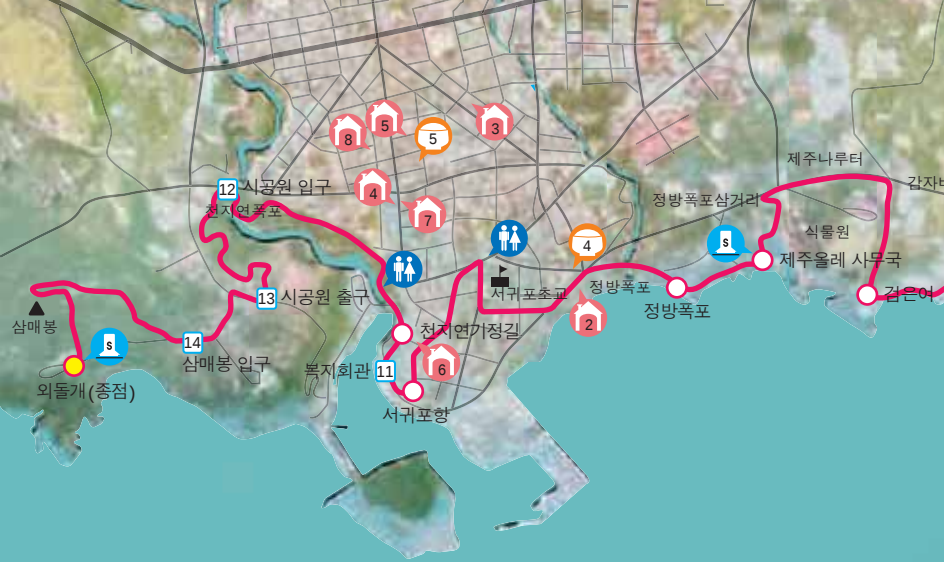
● 6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남원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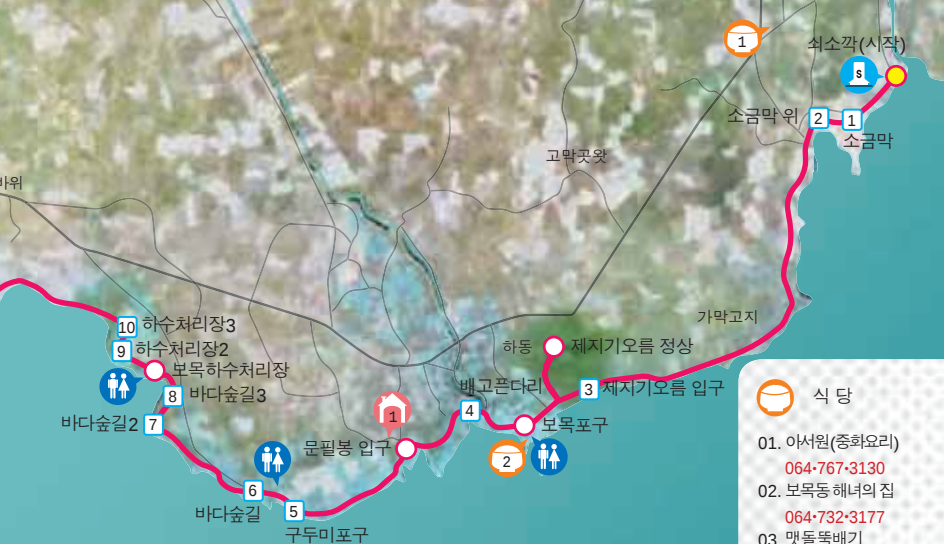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국제공항에서 서귀포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종점인 서귀포 KAL호텔에서 내린다. 거기서 택시를 타고 쇠소깍으로 간다. 택시비는 3천원 가량.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중앙로터리(일호광장) 동쪽정류장에서 효돈행 버스를 타고 하례리 두레빌라트에서 내린다. 쇠소깍 쪽으로 5분에서 10분쯤 걸어간다.









식 당

1. 아서원(중화요리)
064-767-3130
2. 보목동 해녀의 집
064-732-3177
3. 멧돌뚝배기
064-762-3368
4. 새섬갈비
064-732-4001
4. 조림명가
064-767-8562

숙 소

01. 오영자 할망집
016-9606-360
02. 송정게스트하우스
064-763-5775
03. 애순이네 민박
011-600-3316
04. 남국게스트하우스
064-762-4111
05. 대국아일랜드호텔
064-763-0002
06. 뉴서울 게스트하우스
064-732-8814
07. 제주 크리스탈 호텔
064-732-8311
08. 민중각
064-763-0501

스 탬 프

최소깍 휴게소
제주올레 사무국
제주올레 안내소

간세위치 번호

6코스 ▶ 포선~남원 올레

쇠소깍을 출발하여 서귀포 시내를 통과, 이중섭 거리와 천지연폭포 위 산책로를 거쳐 외돌개까지 이어지는 해안 도심 올레다. 해안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소금막과 삶과 문화가 숨쉬는 서귀포

시내, 난대림과 천연기념물 5종이 서식하는 천지연폭포 위 산책로를 걸으며 서귀포의 문화와 생태를 접할 수 있다. 누구나 힘 들이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코스 난이도 ▶ 하  019.691.5276

서귀포 시내를 지나는 비교적 평탄한 코스다. 초반에 오르미 하나 있고, 무성한 숲길도 지나지만 길이 험하지는 않다.

코스 경로 ▶ 총 14.4Km, 4~5시간

쇠소깍 → 소금막 0.4km → 제지기오름 정상 2.6km → 보목포구 3.2km → 문필봉 입구 3.7km → 구두미포구 4.4km → 보목하수처리장 5.4km → 검은여 6.5km → 제주올레 사무국 7.9km → 정방폭포 8.3km → 서귀포초등학교 9.1km → 이중섭 거주지 9.5km → 서귀포항 10.1km → 천지연기정길 10.5km → 시공원 입구 11.7km → 삼매봉 입구 13.1km → 외돌개 14.4km

볼거리

쇠소깍 바닷물과 민물이 합수하면서 절경을 빚어낸 관광 명소다. 쇠는 소, 소는 웅덩이, 깍은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원래는 소가 누워 있는 형태라고 해서 쇠둔이라 불렀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만들어낸 쇠소깍의 깊은 물에는 손으로 줄을 당겨 이동하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교통수단인 ‘테우’가 떠다닌다. 40~50분 계곡을 거슬러 오르며 천천히 유람하는 테우의 이용 요금은 5천원. 마을청년회에서 운영한다.



소금막 소금이 귀하던 시절, 바닷물을 가마솥에 끓여 소금을 생산하고 저장했던 곳이다. 소금을 지키는 병사들의 막숙(막사)도 있었다.

제지기오름 설섬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오름이다. 옛날 굴사(窟寺)가 있고 이를 지키는 절지기가 살았다 하여 ‘절오름’, ‘절지기오름’이라고도 불렸다. 보목리에 자리 잡고 있다.

구두미 이 지역이 거북이의 머리와 꼬리를 닮았다고 해서 구두미라고 부른다. 바다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물은 경작지와 암반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소정방 폭포 정방폭포에서 동쪽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5m 높이의 물줄기. 여름철에는 물맛이 장소로도 성황을 이루는 아담한 폭포다.

이중섭 미술관 이중섭 화백이 살던 집을 살리고 그 옆에 미술관을 지었다. 이중섭 작품은 많지 않지만, 부인과 주고받은 애절한 엽서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미술관 마당에서는 노래 ‘서귀포칠십리’를 들을 수 있다.

천지연 기정길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루고 아열대성과 난대성 상록수가 우거진 천지연 계곡을 끼고 도는 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기정은 벼랑의 제주어.

외돌개 바다 가운데 외롭게 서 있다 하여 외돌개란 이름이 붙은 바위. 약 15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섬의 모습을 바꿔놓을 때 생성되었다고 한다. 인근 물빛과 솔숲은 서귀포에서 둘째가라면 서리위할 멋진 경치를 뽐낸다.







제지기오름에서 본 보목포구와 섬섬 © 강길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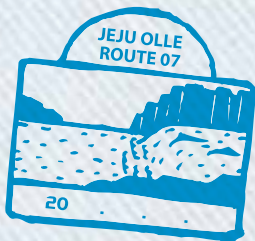


쇠소깍 © 심재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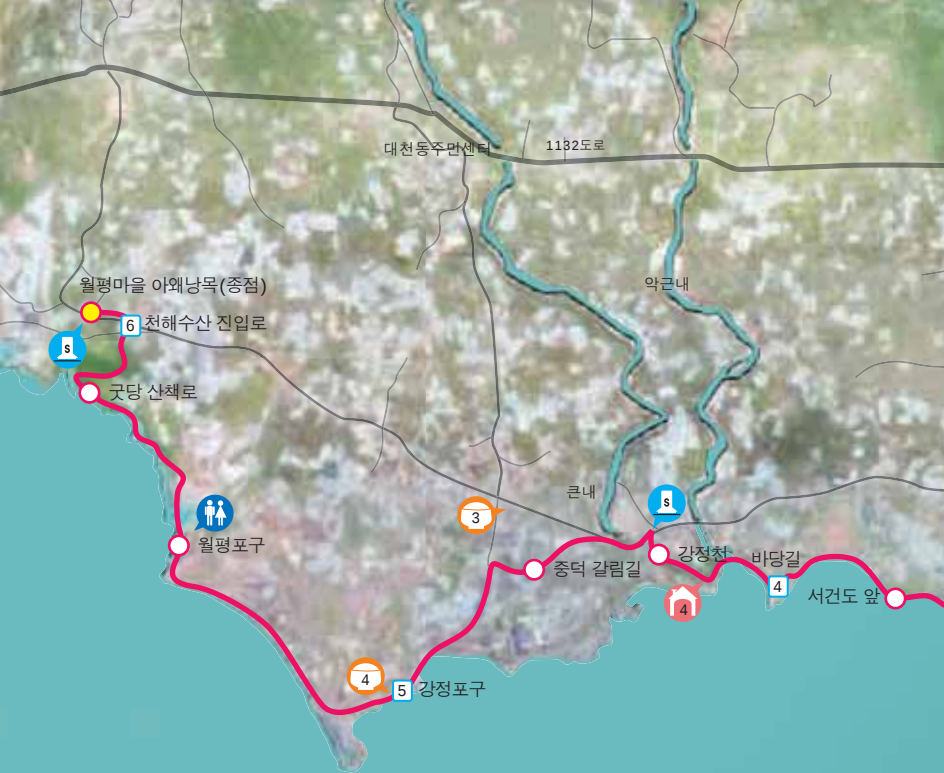
● 7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외돌개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국제공항에서 서귀포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귀포 선비치호텔 앞 정류장에서 내린다. 외돌개까지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 거리.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시내에서는 외돌개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7코스 ▶ 외돌개~월평 올레

외돌개를 출발하여 법환포구를 경유해 월평포구까지 이어진 해안올레. 올레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연생태길인 '수봉로'를 만날 수 있다. 수봉로는 세 번째 코스 개척 시기인 2007년 12월, 올레지기인 '김수봉'님이 염소가 다니던 길에 직접 삽과 곡괭이만으로 계단과 길을 만들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한 길이다. 2009년 2월에는 그동안 너무 험해 갈 수 없었던 '두머니물~서건도' 해안 구간을 제주올레에서 일일이 손으로 돌을 고르는 작업 끝에 새로운 바닷길로 만들어 이어, '일강정 바닷올레'로 명명했다. 2009년 3월에는 각종 자연현상에 유실되었던 수봉교 자리에 '뽕림올레교'가 세워졌다.

 코스 난이도 ▶ 상  010.9887.1044

수봉로는 언덕길이고, 일강정 바닷올레에서 서건도 사이 바윗길이 험한 편이다.

코스 경로 ▶ 총 13.8Km, 4~5시간

외돌개 → 선녀탕(황우지해안) 0.3km → 폭풍의 언덕 0.5km → 돛배낭길 1.6km → 속골 3.4km → 소철나무동산 3.8km → 수봉로 3.9km → 법환포구 4.8km → 일강정 바닷올레 6.2km → 악근천 다리 8km → 강정천 8.6km → 강정침터 8.8km → 강정포구 10.3km → 월평포구 11.9km → 굿당산책로 13.1km → 월평마을 아왜낭목 13.8km

볼거리

서건도 1709년에 제작한 탐라고지도에 '부도'라고 표기된 섬이다. 지금의 서건도라는 이름은 '썩은 섬'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섬의 토질이 죽은 흙이라고 해서 '썩은 섬'이라 부르는데, 이 섬에서는 하루에 두 번 기적이 일어난다. 간조 때마다 물에서 섬으로 가는 바닷길이 열리는 것이다.



속굴에서 본 범섬과 법환포구 © 강영호

강정천 은어 서식지로 유명한 하천. 제주도의 일반 하천과 달리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른다. 여름에도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서귀포 시민들이 여름 더위를 식히는 피서지로 즐겨 찾는다. 풍림리조트를 나오면서 끼고 걷는 하천이 바로 강정천이다.

일강정 바당올레 코스 개척 당시 미처 지날 수 없었던 ‘두머니물~서건도’ 해안 구간이 2009년 2월 제주올레에 의해 일강정 바당올레로 다시 태어났다. 험하다 험한 바위 밟은 고만고만한 돌들이 검은 웅단처럼 깔린 아름다운 길로 변신했다. 일일이 손으로 돌을 하나하나 고르고 옮기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감동이 가득한 길이다. 길 옆 곳곳에 서 있는 돌 조각들은 더 아름다운 길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힘든 작업 틈틈이 쌓아올린 것. 돌 공원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의 조각 작품들이다. 강정은 예로부터 물과 땅이 좋아 쌀이나 다른 곡식들이 제주에서 제일이라 하여 일강정이라 불려왔다. 강정의 옛 명성에 손색이 없는 이 길은 그리하여 일강정 바당올레로 명명되었다.

월평포구 달빛을 은은하게 품은 작고 아름다운 포구. 1980년대까지만 해도 테우와 풍선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동물개, 동물포구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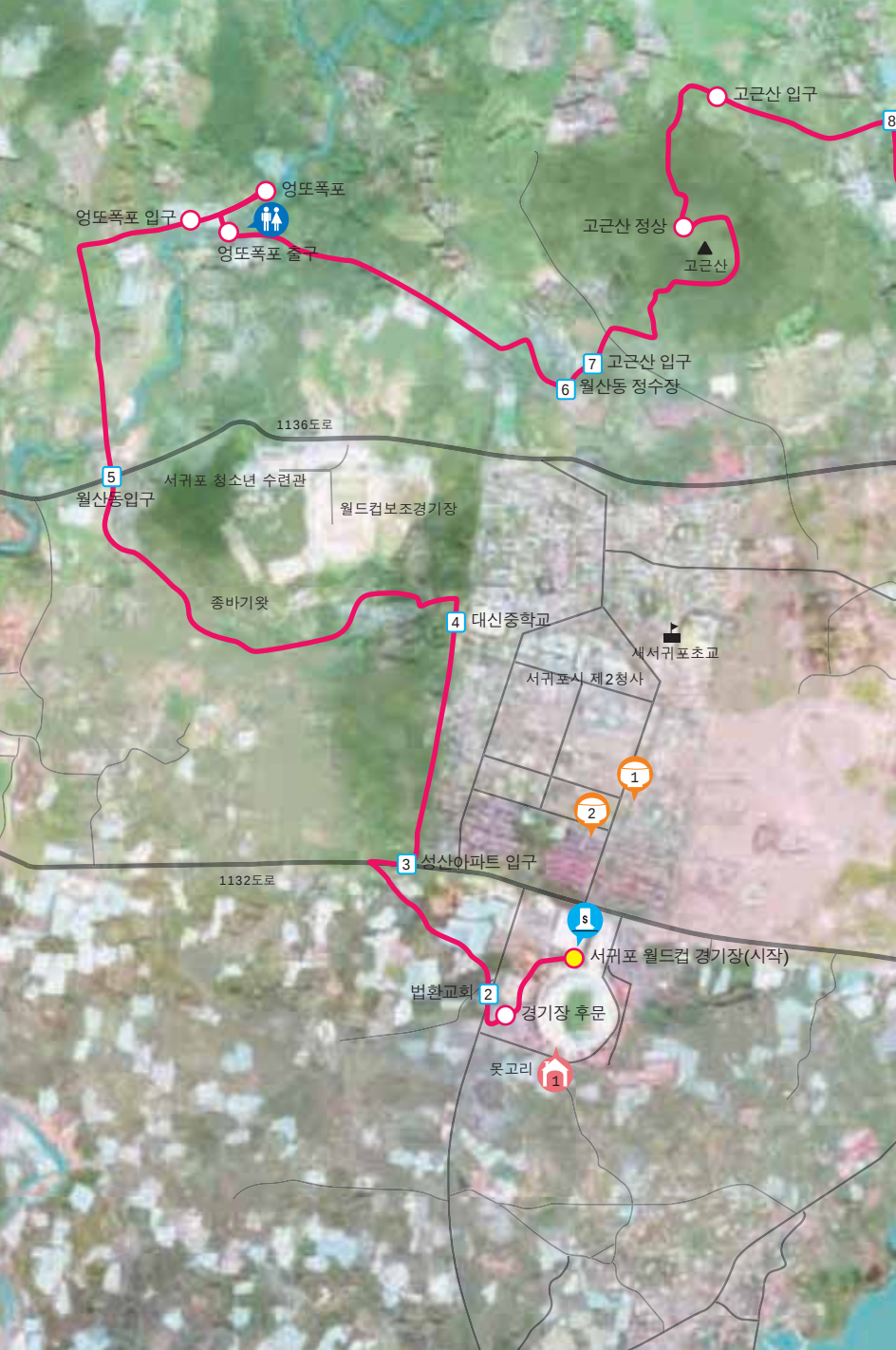
굿당 산책로 아주 옛날 월평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굿당이 있어 그곳을 찾아가던 길이다. 7일에 한 번씩 정성을 올리던 이레당이다.





- 7-1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국제공항에서 서귀포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린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중앙로터리(일호광장) 서쪽정류장에서 중문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내린다.





고근산 입구

8

영도폭포

영도폭포 입구



영도폭포 출구

고근산 정상

고근산

7 고근산 입구

6 월산동 정수장

1136도로

5

월산동입구

서귀포 청소년 수련관

월드컵보조경기장

종바기왓

4 대신중학교

새서귀포초교

서귀포시 제2청사

1

2

3

석산아파트 입구

1132도로

S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시작)

범환교회

경기장 후문

못고리

1

한라하이츠 입구 8



식당

01. 고근산 식당
064•739•6020
02. 국수냐 국밥이나
064•739•3382
03. 막동산식당
064•739•9233
04. 토계촌 식당
064•739•7281



숙소

01. 제주위터월드 켄넬방
064•739•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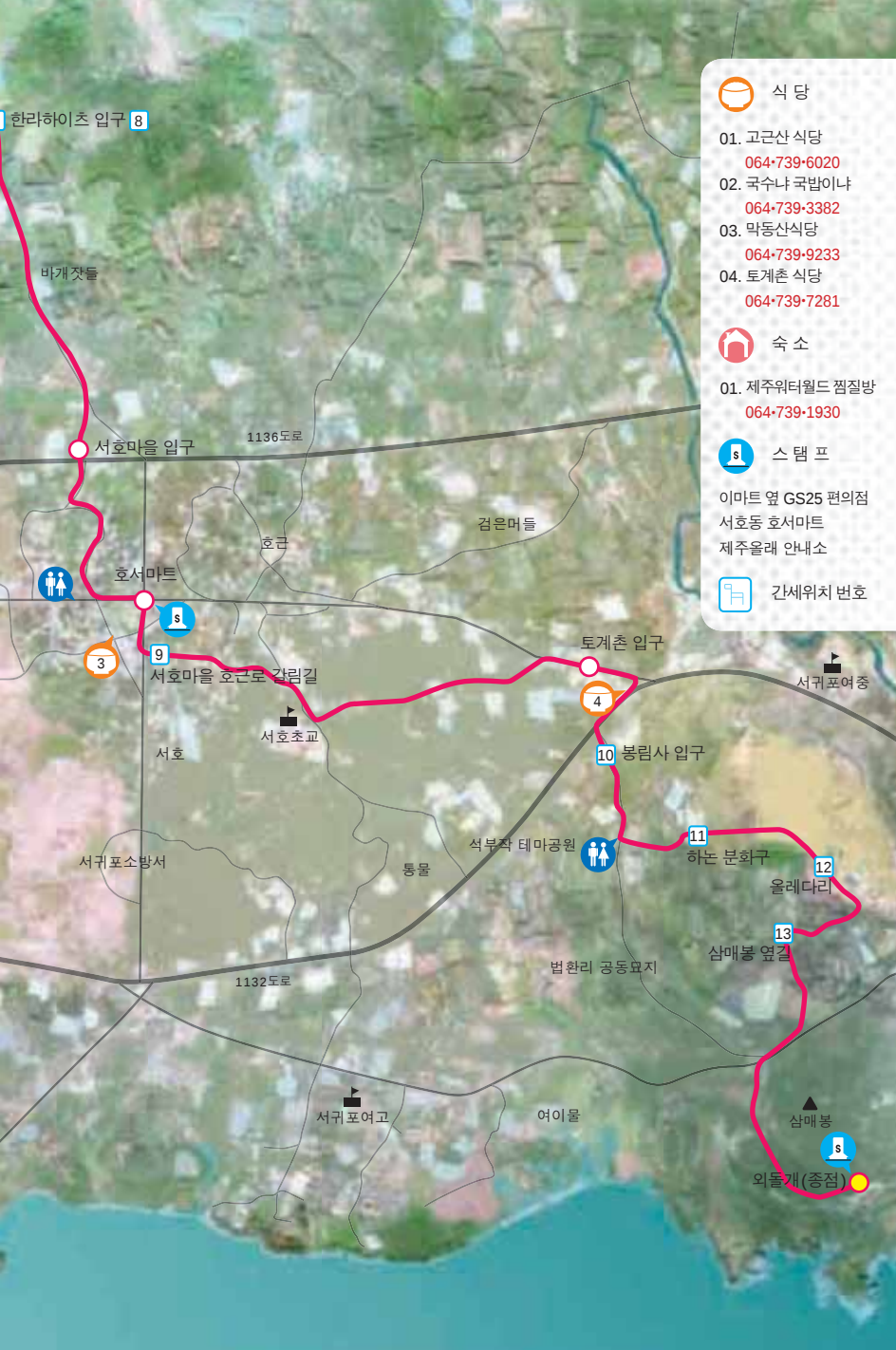


스탬프

이마트 옆 GS25 편의점
서호동 호서마트
제주올레 안내소



간세위치 번호





7-1코스 ▶ 월드컵경기장~외돌개 올레

제주 중산간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호흡하며 걷는 올레.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작하여 중산간을 거쳐 외돌개로 내려온다. 위로는 한라산

조망할 수 있다. 기암절벽과 천연 난대림에 둘러싸인 중산간의 비경이 감탄을 자아낸다.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논농사를 짓는 지역을 지나는데, 논둑길을 따라 걷는 재미도 쏠쏠하다.

 코스 난이도 ▶ 중  010.2691.9133

여느 오름에 비해 비교적 높은 고근산을 오른다.

코스 경로 ▶ 총 15.1Km, 4~5시간

월드컵경기장(정문) → 월드컵경기장(후문) 0.4km → 성산아파트 1.2km → 대신중학교 2km → 월산동 3.5km → 영도폭포 4.7km → 배수지 6.1km → 고근산 정상 7.3km → 서호마을 9.5km → 호서마트 10.2km → 서호초등학교 10.9km → 봉림사 12.2km → 하논 분화구 13km → 삼매봉 옆길 14.3km → 외돌개 15.1km

볼거리

영도폭포 기암절벽 사이에 숨은 그림처럼 감춰진 비밀의 폭포. 높이가 무려 50m에 달하지만, 폭우가 쏟아질 때만 그 위용을 드러낸다. 주변에 기암절벽과 천연 난대림이 펼쳐져 있어 비가 오지 않는 겨울철에도 남국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서귀포 70경의 하나.

고근산 서귀포시 신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기생화산으로 정상에 갇혀 있지 않은 원형 분화구를 갖고 있는 오름이다. 그리 높지는 않지만 시야가 탁 트여 있어 마라도에서부터 지귀도까지 제주 남쪽 바다와 서귀포시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밤바다와 어우러진 서귀포 칠십리 야경을 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꼽힌다. 설문대할망이 한라산 정상부를 베개 삼아 고근산 굽부리(분화구)에 궁둥이를 얹고 범섬에 다리를 걸치고 누워서 물장구를 쳤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하논분화구 동양 최대의 마르형 분화구. 마르형 분화구는 지하의 가스 등이 한 군데로 모여 폭발하면서 생긴 것으로 움푹 파인 모양을 이루고 있다. 특히 하논분화구는 수만 년 동안의 생물 기록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살아있는 생태 박물관'으로도 불린다. 하논이라는 이름은 큰 논(大畠)이란 의미의 '한 논'에서 유래했다. 분화구 바닥에서 용천수가 솟아나와 제주도에서는 드물게 벼농사를 짓는 논으로 이용돼 왔다. 화산이 만들어 놓은 밑그림과 인간이 채색한 풍광이 어우러져 어떤 절경을 빚어내는지 볼 수 있는 곳.

외돌개 바다 가운데 외롭게 서 있다 하여 외돌개란 이름이 붙은 바위. 약 15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섬의 모습을 바퀴놓을 때 생성되었다고 한다. 인근 물빛과 솔숲은 서귀포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멋진 경치를 뽐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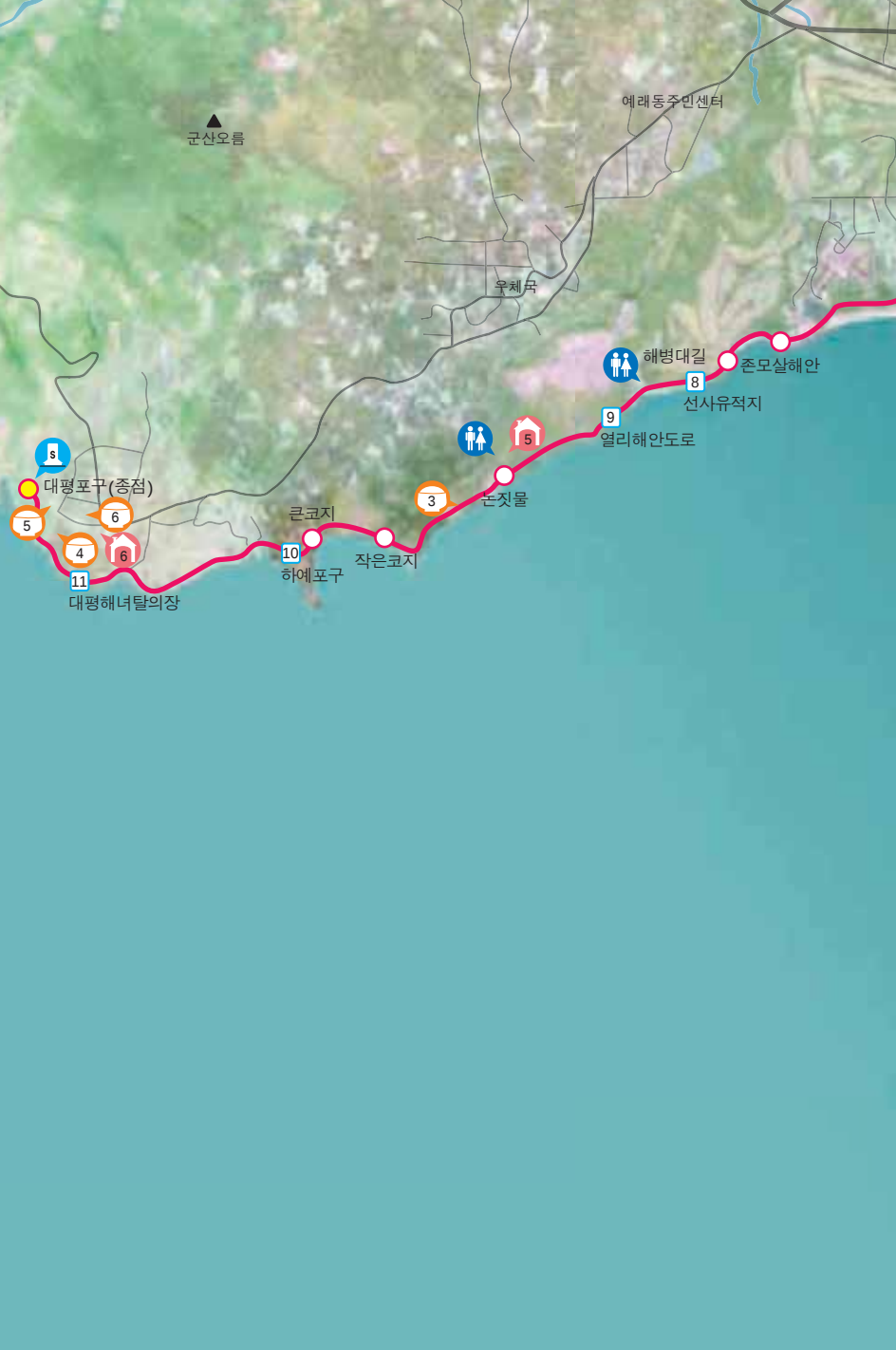






○ 8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월평마을 아왜낭목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국제공항에서 서귀포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약천사에서 내린다. 월평마을 방향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된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중앙로터리(일호광장) 서쪽정류장에서 대포 방향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월평마을에서 내린다.



▲
군산오름

예래동주민센터

유체곡



해변대길

8

존모살해안

선사유적지

9

열리해안도로



5

논짓물

3

큰코지

작은코지

10
하에포구



대평포구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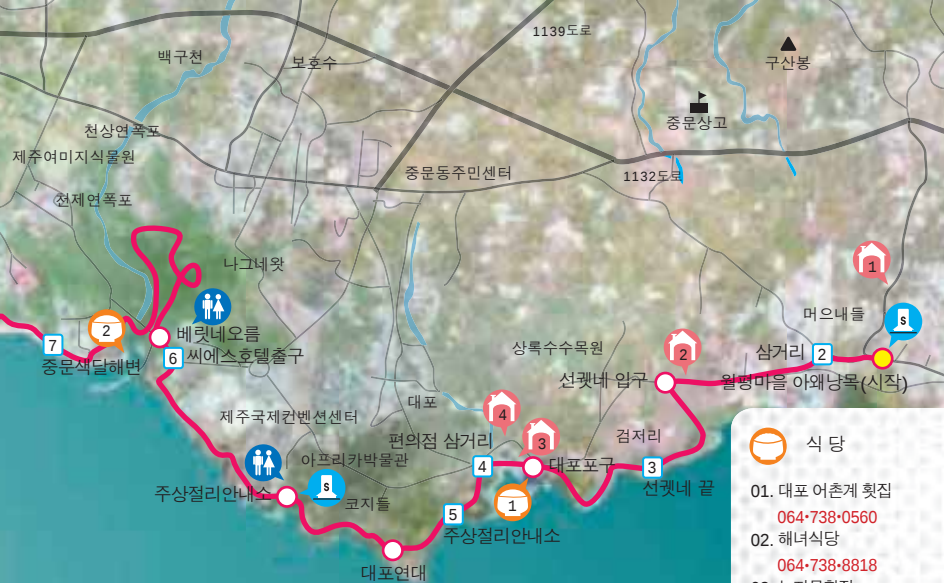
5

6

4

6

대평해녀탈의장



식당

01. 대포 어촌계 횃집
064-738-0560
02. 해녀식당
064-738-8818
03. 논지물횃집
064-738-8804
04. 물고기 카페
070-8147-0804
05. 레드 브라운
064-738-8288
06. 용왕 난드르 식당
064-738-0915

숙소

01. 트레피아게스트하우스
011-691-5848
02. 웰리조트
064-738-4000
03. 큰 갯물 펜션
064-738-4554
04. 씨니데이 제주
064-738-1999
05. 광송예래 펜션
064-738-1133
06. 대평슈퍼민박
064-738-0505

스탬프

월평 송이슈퍼
주상절리 관광 안내소
대평 명물식당

간세위치 번호

8코스 ▶ 월평~대평 올레

바닷올레 코스. 바다에 밀려 내려온 용암이 굳으면서 절경을 빚은 주상절리와 흐드러진 억새가 일품인 열리 해안길을 지나다. 해녀들만 다니던 거친 바윗길을 해병대의 도움을 받아 평평하게 고른 '해병대길'을 지나는 맛도 그만이다. 종점인 대평리는

자연과 어우러진 여유로움이 가득한 작은 마을. 안덕계곡 끝자락에 바다가 멀리 뻗어나간 넓은 들(드르)이라 하여 '난드르'라고 불리는 마을이다. 마을을 품고 있는 군산의 풍경 또한 아름답다.

 코스 난이도 ▶ 상  011.698.4479

큰 돌들로 이루어진 해병대길 구간이 있다. 해수욕장의 모래사장도 걷기에 만만치 않다. 색달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대평포구까지는 유모차도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이다.

코스 경로 ▶ 총 15.2Km, 4~5시간

월평마을 아왜낭목 → 약천사 입구 0.8km → 선갯내 입구 1.1km → 선갯내 끝 2.1km → 대포 해녀 탈의장 2.5km → 대포포구 2.9km → 축구장 3.7km → 주상절리 안내소 4.7km → 씨에스호텔 5.5km → 베타내 오름 전망대 6.3km → 중문·색달해변 8.8km → 하얏트 산책로 9.5km → 해병대길 10km → 들렁계 10.3km → 색달하수처리장 10.6km → 열리 해안산책로 → 논짓물 11.4km → 하예포구 12.9km → 대평 해녀 탈의장 14.3km → 대평포구 15.2km

볼거리

주상절리 용암이 흐르다 바다와 만나면서 굳을 때 육각기둥 모양으로 굳어져 생긴 지형을 주상절리라고 한다. 중문해수욕장 인근에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주상절리대가 있다.

ICC 제주 내국인 면세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에 있는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관광객이나 제주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곳에서 구매한 물품은 제주를 떠나는 날 공항이나 여객터미널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064-780-7600~1.

해병대길 해녀들만 다닐 수 있던 울퉁불퉁한 바윗길을 제주올레가 해병대의 힘을 빌려 누구나 걷기 쉬운 길로 복원했다. 해병대길이 생기면서 해녀들이 바다로 드나들기도 한결 수월해졌다. 이 길에서는 파도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공작새 날개깃처럼 오묘한 형상을 한 동굴 '들렁곶게'를 볼 수 있다.

열리 해안길 흐드러진 억새와 바다가 어우러져 펼쳐내는 풍경이 일품인 해안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대평리 자연과 어우러진 여유로움이 가득한 대평리는, 안덕계곡 끝자락에 바다가 멀리 뻗어나간 넓은 들(드르)이라 하여 '난드르'라고 불리는 마을이다. 작은 마을이지만 올레꾼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예쁜 찾집이 두 군데나 있다.

군산 대평리 마을을 품고 있는 오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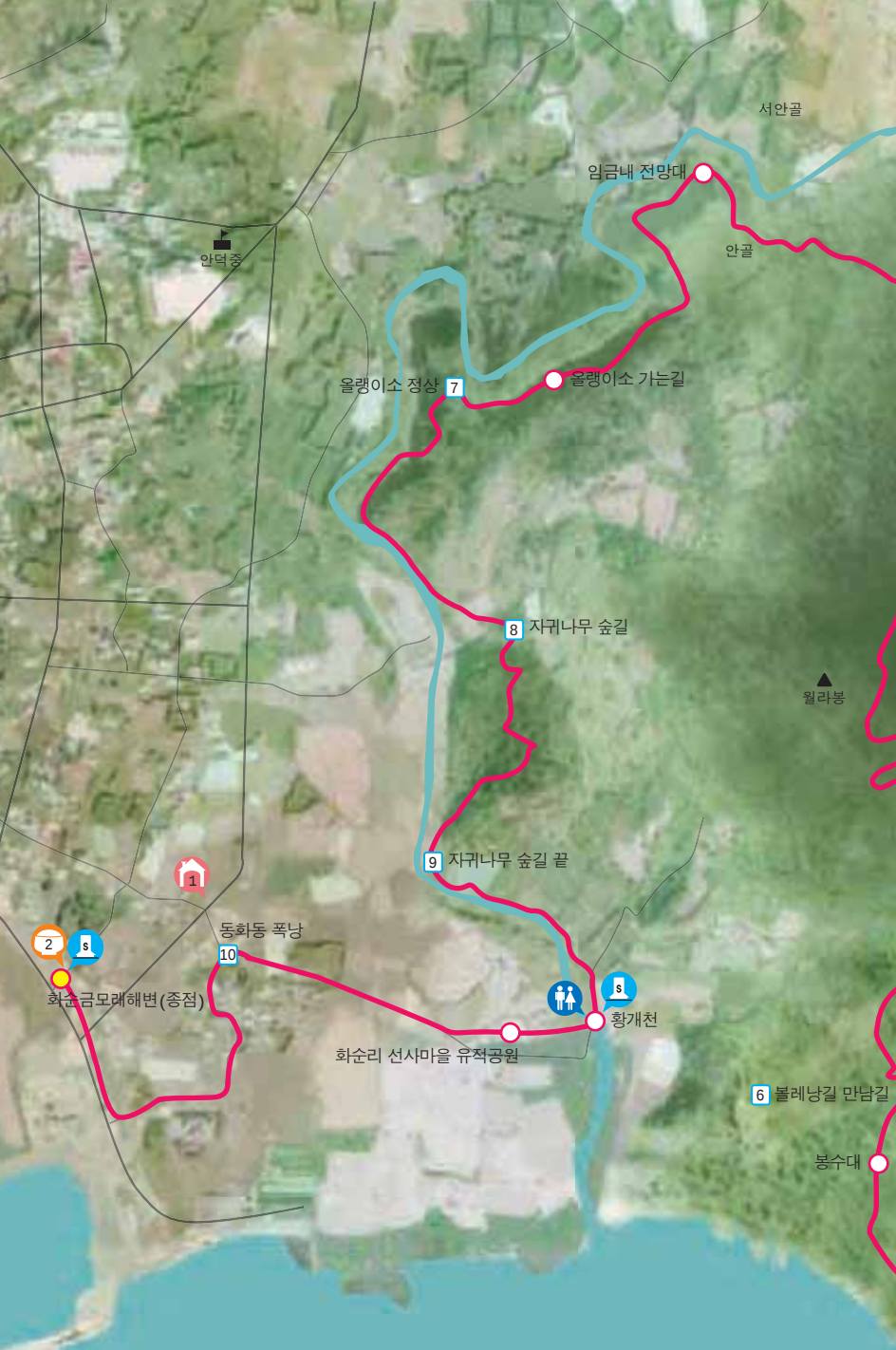


● 9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대평포구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중문 고속화버스'를 이용해 중문에서 내린 후, 내린 자리에서 길을 건너 중문우체국 앞에서 대평리 행 버스(20~30분 간격)를 타고 대평리 종점에서 내린다. 바다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대평포구가 나온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중앙로터리(일호광장) 서쪽정류장에서 대평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대평리 종점에서 내린다. 바다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가면 대평포구가 나온다.







서안골

임금내 전망대

안골

안덕중

올랭이소 정상

7

올랭이소 가는길

8

자귀나무 숲길

9

자귀나무 숲길 끝

월라봉

1

동화동 폭낭

10

화순금모래해변(종점)

2

8

화순리 선사마을 유적공원



황개천

6

볼레낭길 만남길

봉수대



식당

01. 명물식당

064-794-9408

02. 바당올레횃집

064-794-8558



숙소

01. 소라민박

064-794-1561



스탬프

대평 명물식당

황개천 다리 옆 화장실

화순 바당올레 횃집



간세위치 번호

감산리

월라봉 내린길

월라봉 진지동굴 안내간세

월라봉 입구

3

한밭소낭길

4

괴수원 입구

물질 2

대평포구(시작)

볼레낭길

5

기정길

9코스 ▶ 대평~화순 올레

작고 정겨운 대평포구에서 시작해 말이 다니던 '물길'을 따라 걷노라면 기정 길을 지나 보리수나무가 우거진 볼레낭 길로 나오게 된다. 박수기정을 끼고 도는 이 길은 2009년 2월에 새롭게 개척한 아름

다운 숲길이다. 제주의 원시 모습을 간직한 안덕계곡은 제주의 감춰진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는 비경. 제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꼽힌다.

 코스 난이도 ▶ 상  010.3691.7273

코스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안덕계곡 등이 포함돼 있어 쉽지는 않다.

코스 경로 ▶ 총 8.2Km, 3~4시간

대평포구 → 물질 0.35km → 한밭소낭길 0.95km → 기정길 2km → 볼레낭길 2.2km → 월라봉입구 3.0km → 월라봉 내린길 4.1km → 임금내 전망대 4.9km → 올랭이소 정상 5.6km → 자귀나무 숲길 끝 6.6km → 황개천 올레화장실 7.0km → 화순선주협회 7.9km → 화순금모래해변 8.2km

볼거리

박수기정 대평포구 옆에 병풍처럼 놓인 깎아지른 절벽. 기정은 벼랑의 제주 사투리다. 박수라는 이름은 지상 1m 암반에서 1년 내내 샘물이 솟아나와 이 물을 바가지로 마신다는 뜻. 특히 이 샘물이 피부에 좋다고 해서 백중날 물맞이를 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물질 말길이라는 뜻. 원나라 치하에 있던 고려 때, 박수기정 위의 너른 들판에 키우던 말들을 원나라로 싣고 가기 위해서는 대평포구까지 말들을 끌고 내려와야 했는데, 이를 위해 만든 길이다.

볼레낭 길 제주에서는 보리수나무를 볼레낭이라고 부른다. 물질과 기정 길을 지나면 볼레낭이 우거진 산책로가 펼쳐진다.

봉수대 조선시대에 외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쓰던 통신수단이다. 이 봉수대는 산방산 아래에 있는 산방연대와 교신했다.

황개천 안덕계곡의 물줄기가 굽이 굽이 꺾이면서 내려와 바다까지 이어지는 하천이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가끔 누런 물개가 나타나 울었다고 해서 황개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한다.

진모르 동산 긴 능선을 이룬 야트막한 지형이라는 의미에서 진모르 동산이라고 부른다

안덕계곡 감산천, 창고천이라고도 부른다. 돌오름 북동쪽에서 발원해 안덕면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창고천(倉庫川) 하류에 형성된 계곡이다. 계곡 양쪽을 따라 상록 활엽수림이 울창하다. 이 원시 난대림은 천연기념물 제377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먼 옛날 하늘이 울고 땅이 진동하고 구름과 안개가 낀 지 7일 만에 큰 산들이 솟아났는데, 시냇물이 암벽

사이를 굽이굽이 흐르며 계곡을 이루어 치안치덕(治安治德)한 곳이라 하여 안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진다. 예로부터 많은 선비들이 찾던 곳으로 김정희, 정온 등도 이곳에 유배되어 후학을 가르치고 절경을 즐겼다고 한다.





© 김영호



© 이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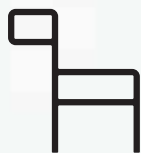


● 10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화순금모래해변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부 관광도로(평화로 경유)' 버스를 타고 화순리에서 내린다. 바다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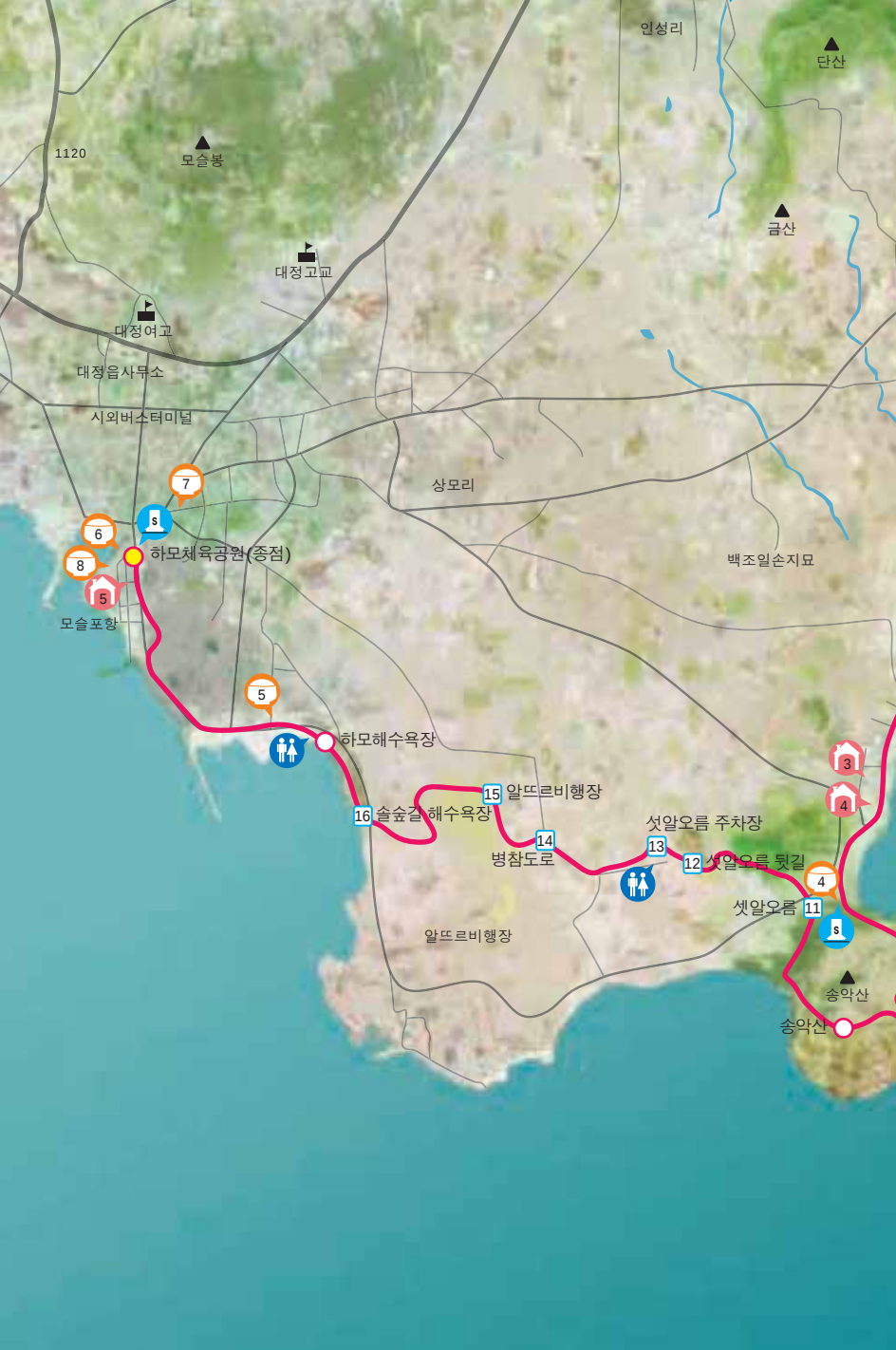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주-서귀포 서회선 일주도로 시외버스를 타고 화순리에서 내린다. 바다 쪽으로 10분 정도 걸어간다.





ROUTE 10





인성리

단산

1120

모슬봉

대정교

대정여고

대정읍사무소

시외버스터미널

상모리

백조일손지묘

하모체육공원(중점)

모슬포항

하모해수욕장

솔숲길 해수욕장

알뜨르비행장

병참도로

셋알오름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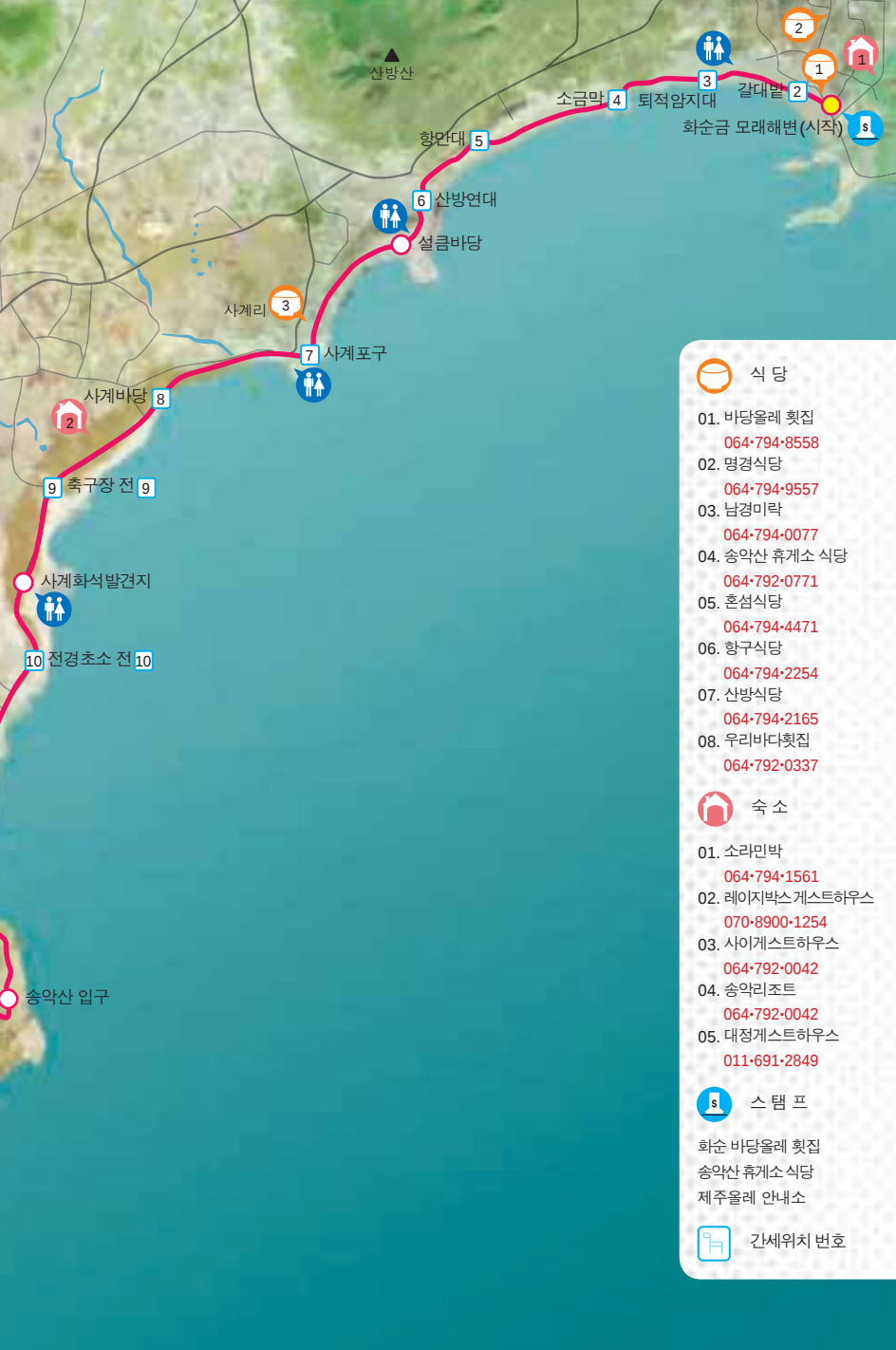
셋알오름 뒤탈길

셋알오름

알뜨르비행장

송악산

송악산



식당

01. 바당올레 횃집
064-794-8558
02. 명경식당
064-794-9557
03. 남경미락
064-794-0077
04. 송악산 휴게소 식당
064-792-0771
05. 혼섬식당
064-794-4471
06. 항구식당
064-794-2254
07. 산방식당
064-794-2165
08. 우리바다횃집
064-792-0337

숙소

01. 소라민박
064-794-1561
02. 레이저박스게스트하우스
070-8900-1254
03. 사이게스트하우스
064-792-0042
04. 송악리조트
064-792-0042
05. 대정게스트하우스
011-691-2849

스탬프

화순 바당올레 횃집
송악산 휴게소 식당
제주올레 안내소

간세위치 번호

10코스 ▶ 화순~모슬포 올레

화순해수욕장에서 시작해 산방산 옆을 지나 송악산을 넘어 대정읍 하모리 해수욕장까지 이어지는 해안올레. 국토 최남단의 산이자 분화구가 있는 송악산을 넘는 것이 특징이다. 송악산 분화구 정상에서 마라도와 가파도를 가까이 볼 수 있고, 산방산과 오름군, 영실계곡 뒤로 비단처럼 펼쳐진 한

라산의 비경도 감상할 수 있다. 제주올레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소개된 산방산 밑 소금막 항만대의 절경 또한 눈길을 사로잡는다. 화순해수욕장은 파도가 너무 세지도 잔잔하지도 않아 맨몸으로 파도타기에 적합하고 용천수 야외수영장까지 있어 여름철 물놀이에 제격이다.

코스 난이도 ▶ 중 016.308.5972

초반에 바윗길이 있고, 산방연대, 송악산 등의 오르막이 포함돼 있다. 이후로는 평탄한 길이 이어진다.

코스 경로 ▶ 총 14.8km, 4~5시간

화순금모래해변 → 퇴적암 지대 0.5km → 소금막 1km → 항만대 2km → 산방연대 2.4km → 설کم바당 2.9km → 사계포구 3.6km → 사계바당 4.3km → 사계 발자국 화석 발견지 5.7km → 송악산편의점 7.1km → 송악산 8.4km → 셋알오름 입구 9.3km → 고사포 진지 9.7km → 셋알오름 위험탐 10.5km → 알뜨르비행장 길 11.7km → 하모해수욕장 13.2km → 모슬포항 하모체육공원 14.8km

볼거리

화순해수욕장 작지만 아름다운 해수욕장. 모래가 부드럽고 수심이 완만해서 아이들과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다. 바다 쪽으로는 멀리 형제섬이 보이고, 내륙 쪽으로는 산방산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절경이다. 용천수를 이용한 야외수영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퇴적암지대 거대한 퇴적암이 기기묘묘한 형태로 펼쳐져 있어 최고의 해안 경관으로 꼽힌다. 흔히 용머리 해안이라고 하는데, 용머리라는 이름은 진시황과 얽힌 전설에서 유래한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 날 것을 두려워한 진시황은 도술에 능한 호종단에게 명하여 영웅이 날 만한 곳의 지맥을 끊도록 했다. 이에 호종단은 천하를 돌며 지형을 살폈는데, 이곳의 해안이 흡사 용과 같으며 용의 허리 부분을 끊었다고 전해진다. 지역 주민들은 모래도 아니고 돌도 아닌 땅이라고 해서 썩은 다리라고 부른다.

사구언덕 모래로 이루어진 언덕으로, 오래 전부터 배늘모살동산이라고 불려왔다.

산방연대 연대는 조선시대에 변경의 제일선에 설치한 대로, 둘레에는 참호를 파고, 대 위에는 가건물을 지어 각종 병기와 생활필수품을 간수하게 했다. 산방연대에는 별장 6명과 봉군 12명이 배치되었다.

설کم바당 옛날 이 바닷가에 돌담을 쌓아 간만의 차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원’이 있어 설کم원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볼 수 없다. 설کم은 바람이 눈에 만든 구멍으로, 설기설기 얹혀진 바위투성이 지대를 일컫는다.

사계 화석 발견지 2003년 10월, 이 일대에서 사람 발자국, 새 발자국, 우제류 발자국, 어류 등 화석 100여 점이 발견되었다. 탄소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 결과 구석기 말기에서 신석기 초기인 7000년~1만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송악산 (절ული오름) 여느 오름과 달리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분화구가 있다. 주봉의 둘레 500미터 깊이 80미터의 분화구는 아직도 검붉은 화산재에 덮여 있다. 가파도와 마라도, 형제섬이 한눈에 펼쳐진다. 절울이는 파도가 소리쳐 운다는 뜻. 송악산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산방산과 한라산, 남쪽으로는 가파도와 마라도, 형제섬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만든 진지 동굴이 해안 절벽을 따라 송송 뚫려 있어 근대사의 아픔이 느껴지는 현장이기도 하다.

섯알오름 한국전쟁 발발 후 전국적으로 보도연맹원을 학살할 때, 모슬포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서부 지역의 예비 검속자 210명이 이곳에서 학살됐다. 2001년 2월, 유족들이 희생자 시신과 유물들을 재발굴하면서 그 전에 일부 메웠던 현장을 모두 파헤쳐 놓아 큰 구덩이가 형성되어 있다. 현장 입구에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안내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알뜨르 비행장 알뜨르는 ‘아래 있는 넓은 들’이라는 뜻의 제주어. 대륙 침략을 위해서 항공기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 거점인 제주도에 1926년부터 대대적인 비행장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 10여년 만에 20만평 규모의 비행장을 건설한 일본은 중일전쟁 후 오무라의 해군 항공기지를 이곳 알뜨르 비행장으로 옮기고 규모를 40만평으로 확장했다. 지금은 일제의 잔혹상을 보여주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모해수욕장 예전에 멸치(제주어로는 멜)가 많이 잡히던 곳이라 멜케해수욕장으로도 불린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얇은 편. 조선시대 네덜란드인 하멜이 표류한 곳이기도 하다.







● 10-1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상동포구

■ 모슬포항에서 가파도행 여객선이 하루 3회 (오전 9시, 오후 12시, 4시) 출항한다. 풍량이 자주 발목을 잡으니, 가파도에 머물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배 시간과 폭풍주의보를 확인해야 한다.

■ 모슬포 → 가파도 09:00, 12:00, 16:00

■ 가파도 → 모슬포 09:20, 12:20, 16:20

■ 왕복 운임 8,000원

■ 모슬포항 064-794-5490






JEJUOLLE
ROUTE 10-1



상동포구(시작)

상동마을 할망당

1

2

2

상동포구

큰왕돌

장택코정자

큰아픈여

가파리

가파초교

가파초교 옆

농협창고

넛골챙이 앞



식당

01. 춘자네 집
010-3691-7170
02. 가파도올레길 식당민박
064-792-7575
03. 해녀의 집
064-794-7109
04. 청보리 맛집
064-794-2168



숙소

01. 가파도민박 식당
064-794-7089
02. 바다별장 민박 식당
064-794-6885

게엄주리코지

웅진물

마을제단

부근덕

하동포구(중점)

1

4

3

10-1코스 ▶ 가파도 올레

가파도는 한국의 유인도 중에서 가장 낮은 섬이다. 섬의 최고점이 20.5미터에 불과하다. 제주도에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과 가장 낮은 섬 가파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의미깊다. 낮은 섬 가파도는 느리게 걸어도 한 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작다. 그러므로 가파도 올레는 걷기 위한 길이 아니다. 머물기 위한 길이다. 길고 긴 제주 섬의 올레를 걸어오느라 수고한 나의 몸과 마음이 하루쯤 편히 쉴 곳. 가파도는 산책의 섬, 휴식의 섬, 안식의 섬이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에너지 충전소다.

 코스 난이도 ▶ 하  010.3699.7173

가파도는 오르막이 없고 길이도 5km로 짧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다.

코스 경로 ▶ 총 5km, 1~2시간

상동포구 → 상동마을 할망당(0.2km) → 장태코 정자(0.8km) → 냇골챙이(1.7km) → 가파초등학교(2.1km) → 전화국(2.4km) → 계엄주리코지(3.6km) → 큰 웅짓물(4.1km) → 제단(4.4km) → 부근덕(4.8km) → 가파포구(하동)(5km)

볼거리

보리밭 가파도에는 17만평의 보리밭이 있다. 늦겨울부터 초여름까지 보리밭 길은 우리를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자로 만들어준다.

고인돌 군락지 가파도는 왕돌이라 부르는 고인들의 고장이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남아 있다.

집담과 발담 가파도는 돌담이 예술이다. 담돌 하나하나가 모두 수석이다. 돌과 이야기하면 가파도의 역사를 모두 전해들을 수 있다.

바람 가파도는 바람의 섬이다. 섬은 세상의 모든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다. 바람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소식을 전해주리라.

6개의 산 오름이나 봉이 아닌 제주의 산은 모두 7개다. 가파도에서는 영주산을 제외하고 한라산, 산방산, 송악산, 군산, 고근산, 단산 등 6개의 산을 모두 볼 수 있다.

김성숙 선생 동상 가파초등학교의 전신인 신유 의숙 설립자, 독립운동가 김성숙 선생의 동상.

고냉이들 고양이 모양으로 생긴 돌이다.

할망당 가파도에는 상하동 두 곳의 할망당이 있다. 할망은 제주의 신들에게 붙이는 극존칭이다.

제단 해마다 음력 1월이면 마을 제사를 모시는 곳이다. 지금도 제관으로 뽑힌 마을 남자 7명은 3박4일 동안 제단집에 머물며 부정을 피한 뒤 돼지와 닭 날것을 제물로 제사를 올린다.

마라도 가파도에서 바라보는 마라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까마귀돌 사람이 올라가면 반드시 비바람이 분다 해서 오르지 못하게 하던 신령한 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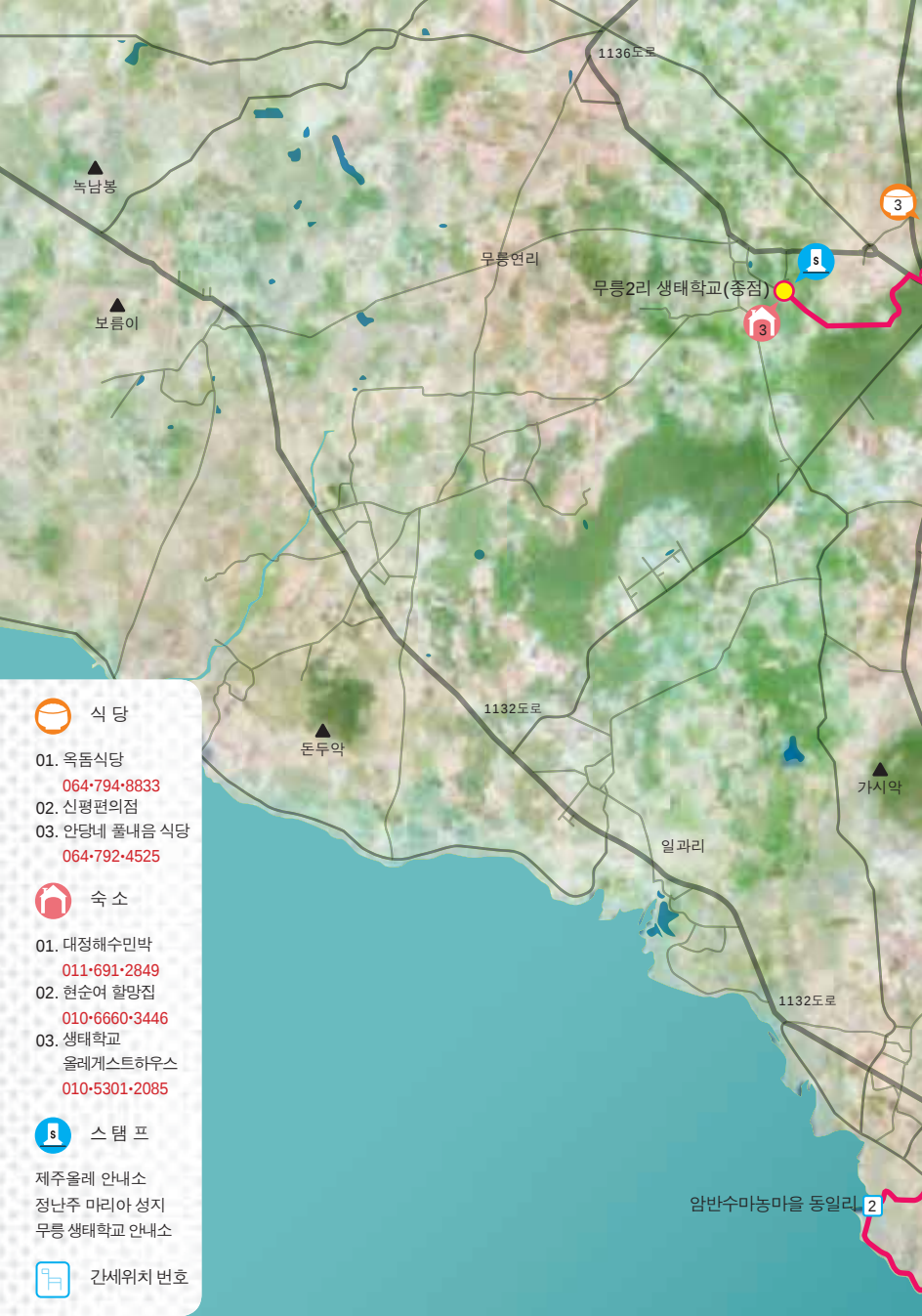



JEJUOLLE
ROUTE 11

● 11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정(모슬포)행 직행버스(평화로 경유)를 탄다. 종점인 모슬포 읍내에서 내려 모슬포항 방향으로 3분 정도 걸어가면 하모체육공원이 나온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주-서귀포 서회선 일주도로 버스를 타고 모슬포 읍내에서 내린다. 모슬포항 방향으로 3분 정도 걸어가면 하모체육공원이 나온다.
- 모슬포 콜택시 064-794-5200





 식당

01. 옥돌식당
064-794-8833
02. 신평편의점
03. 안당네 풀네움 식당
064-792-4525

 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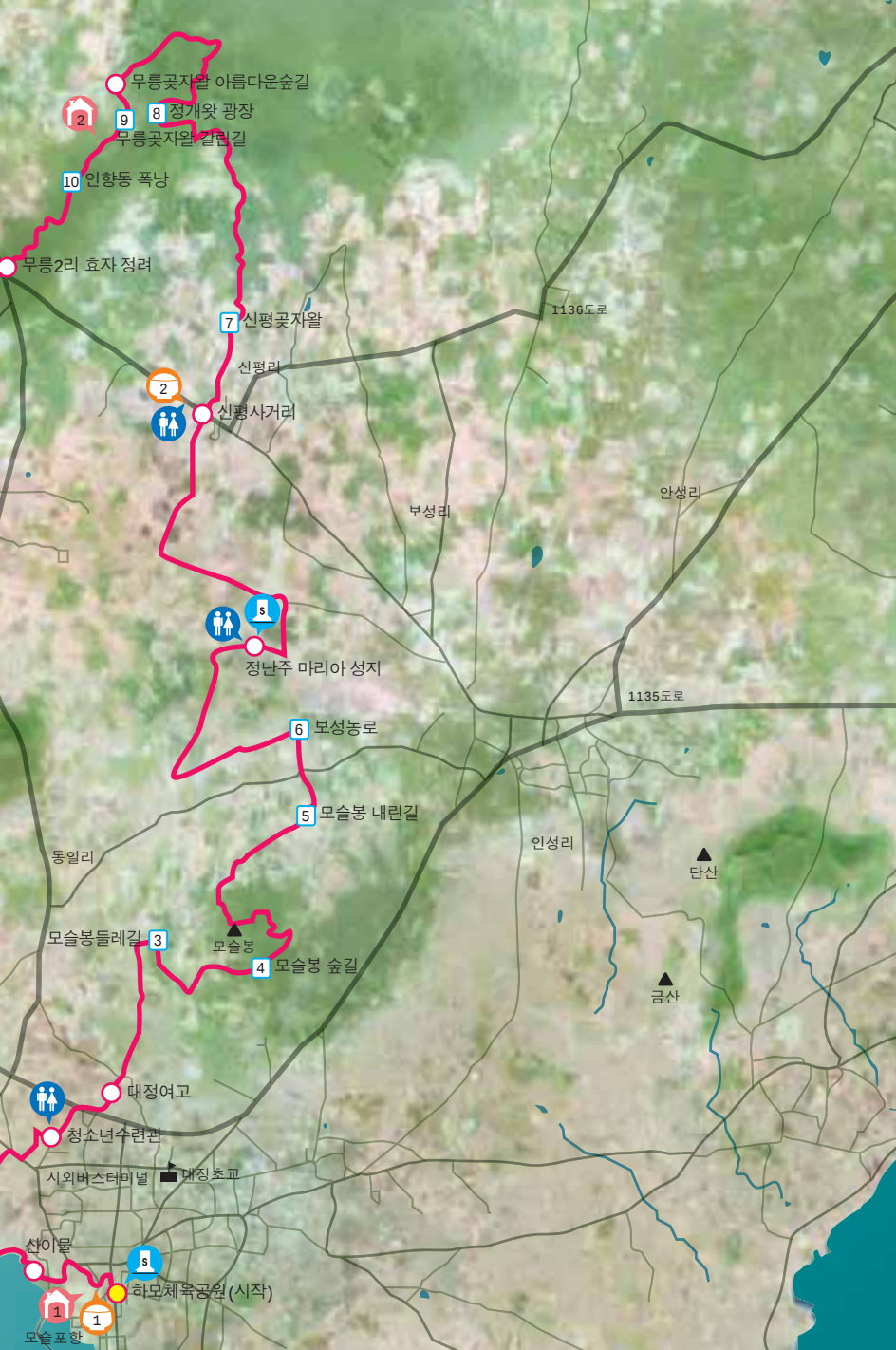
01. 대정해수민박
011-691-2849
02. 현순여 할망집
010-6660-3446
03. 생태학교
올레게스트하우스
010-5301-2085

 스탬프

제주올레 안내소
정난주 마리아 성지
무릉 생태학교 안내소

 간세위치 번호

암반수마농마을 동일리 2



무릉곶자왈 아름다운숲길

2

9

8

정개왓 광장

무릉곶자왈 갈림길

10

인향동 폭낭

무릉2리 효자 정려

7

신평곶자왈

1136도로

2

신평리

신평사거리

보성리

안성리

정난주 마리아 성지

보성농로

1135도로

6

보성농로

5

모슬봉 내린길

동일리

인성리

단산

모슬봉둘레길

3

모슬봉

모슬봉 숲길

4

금산

대정여고

청소년수련관

시외버스터미널

대정초교

산이름

하모체육공원 (시작)

모슬포항

1

1



11코스 ▶ 화순~모슬포 올레

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에서 시작하는 11코스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길, 근대사와 현대사가 녹아 있는 올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의 공군 병력을 집결시켰던 아육의 현자인 알뜨르 비행장, 4.3사건 이후 최대의 양민 학살이 자행된 첫알오름, 정마리아 성지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증언한다. 11코스의 절정인 모슬봉은 이 지역 최대

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서, 제주올레는 이곳 정상부로 올라가는 ‘잊혀진 옛길’을 산불감시원의 조건을 얻어 복원했다. 모슬봉에서는 흔들리는 억새 사이로 드넓게 펼쳐진 제주 남서부 일대의 오름과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신평-무릉간 곳자왈 올레는 제주올레에 의해 처음 공개된 ‘비밀의 숲’으로 또 다른 감동을 안겨준다.

코스 난이도 ▶ 상 010.2937.1940

모슬봉과 곳자왈이 포함돼 있다. 곳자왈에서는 길을 잃으면 위험하므로, 리본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걸어야 한다. 곳자왈이 포함된 코스에서는 역방향 올레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코스 경로 ▶ 총 18km, 5~6시간

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 → 산이물 1km → 암반수미농마을(동일리) 2km → 청소년수련관 2.5km → 대정여고 3.2km → 모슬봉 둘레길 4.2km → 모슬봉 숲길 5km → 보성농로 7.3km → 정난주 마리아성지 9.3km → 신평 사거리 11.4km → 신평곳자왈 12km → 정개왓 광장 13.8km → 무릉곳자왈 아름다운 숲길 15.3km → 무릉2리 효자정려 16.8km → 무릉 생태학교 18km

볼거리

모슬봉 대정읍 모슬포 평야지대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오름. 모슬개(모슬포)에 있다고 하여 모슬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오름 꼭대기에는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다.

정난주 마리아 묘 정약용의 조카딸이자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순교한 황사영의 아내로 ‘바람의 땅’대정읍에 유배되어 살다가 생을 마감한 정난주 마리아가 묻힌 곳. 1994년 제주도의 신자들이 그녀의 묘를 대정 성지로 조성했다.

신평-무릉간 곳자왈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켜져서 수풀같이 어수선했던 곳을 제주말로 곳자왈이라고 한다. 보은·보습 효과가 있는 곳자왈은 북쪽 한계 지점에 자라는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남쪽 한계 지점에 자라는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독특한 숲이다. 한겨울에도 푸른 곳자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한다. 신평-무릉간 곳자왈 길은 제주올레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제주 자연생태문화 체험골 폐교를 리모델링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과거 제주인들의 생활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공간. 제주의 식물, 곤충, 야생조류, 해양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의 생태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제주 돌담 쌓기, 장작패기, 농작물 도리깨 타작, 굴 따기 등 제주 조상들의 생활상과 놀이도 시기별로 직접 경험해보도록 해 놓았다.





© 강영호



모슬봉 오르는 길 © 강영호

● 12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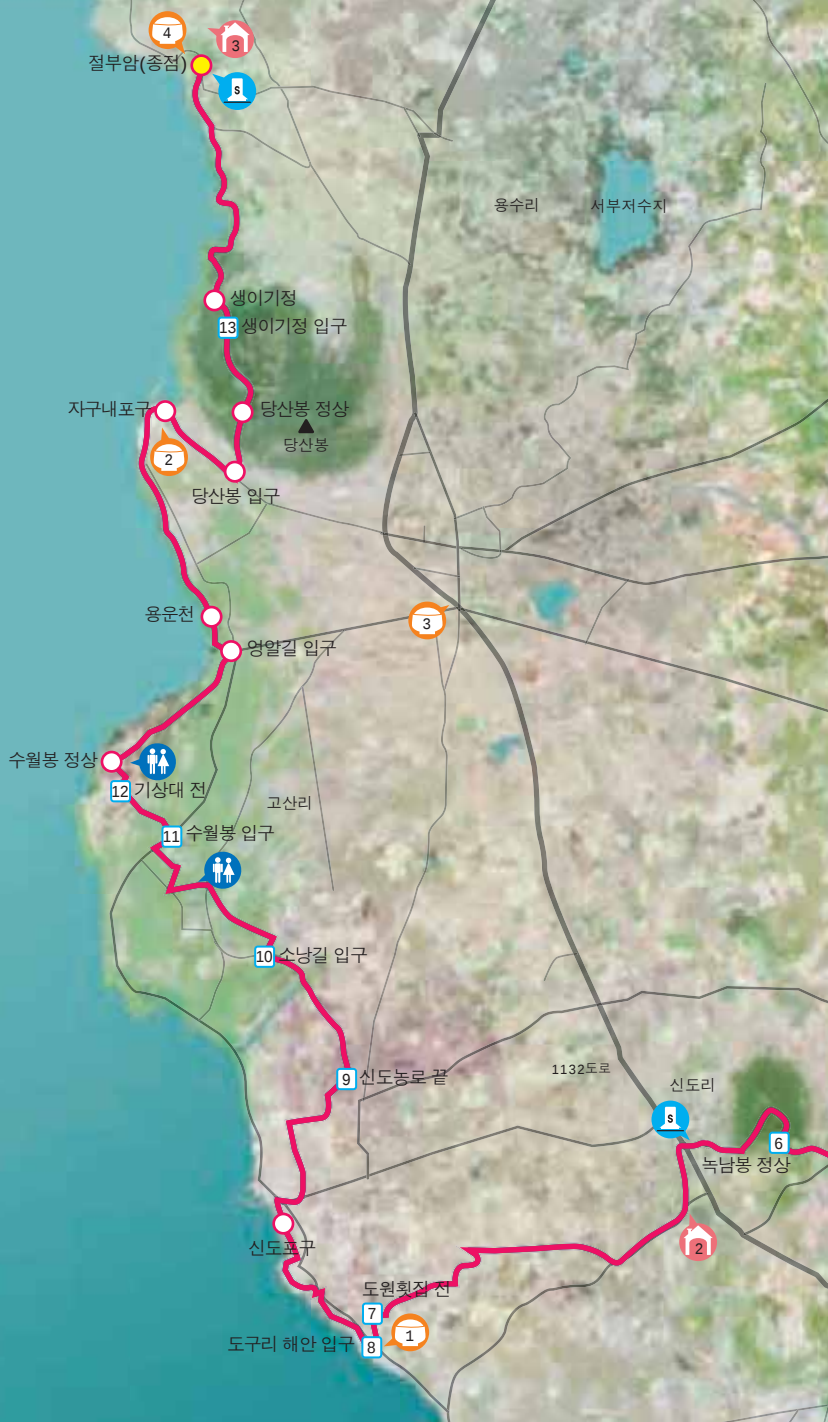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모슬포행(평화로 운행) 버스를 타고 모슬포에 내려 신창-모슬포 순환버스를 타고 무릉2리에서 하차한다.
- 또는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평,보성을 경유하는 모슬포행(평화로 운행) 버스를 타고 신평에서 하차한 후 택시를 타고 무릉2리로 간다. 택시 요금은 7,000원~8,000원.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도로 버스를 타고 모슬포에 하차한 후, 신창-모슬포 순환버스를 타고 무릉2리에서 내린다.





JEJUOLLE
ROUTE 12





한경면



식당

01. 도원횃집
011-639-4119
02. 동환식당
064-772-2955
03. 육거리 식당
064-772-5560
04. 용수 어촌계 편의점



숙소

01. 생태학교
올레게스트하우스
010-5301-2085
02. 고인옥 할망집
064-796-0800
03. 용성민박
064-773-0459



스탬프

무릉생태학교 안내소
신도리 산경도에
용수 어촌계 편의점



간세위치 번호

모란동산

구분오름

산양리

1136도로

빌레못 공동묘지

도원생태연못

도원생태연못 앞

마을공원묘지 입구

농업용관정 앞

평지교회

무릉2리 사무소

멋모당이

무릉리

무릉2리 생태학교(시작)

12코스 ▶ 무릉~용수 올레

해안을 따라 서귀포시 전역을 잇고 제주시로 올라가는 첫 올레. 무릉 2리부터 용수포구 절부암까지 들과 바다, 오름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이다. 넓은 들에서 보는 지평선은 아스라하고, 깊은 바다는 옥빛으로 일렁인다. 신도 앞바다에 거대한 도구리(돌이나 나무를 파서 소나 돼지의 먹이통으로 사용한 넓적한 그릇)들이 바닷물과 해초를 가득 머금은 채 연못처럼 놓인 모습이 신비롭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날, 이 도구리에 파도

가 덮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7코스 '일강정 바당올레'를 만든 강정 돌쟁이들이 서귀포시청의 도움을 받아 신도 앞바다 역시 걷기 좋은 멋진 길로 재탄생시켰다. 차귀도를 바라보며 수월봉과 영알길을 지나 당산봉을 넘고 나면 '생이기정 바당길(새가 많은 절벽이라는 뜻으로 제주올레가 붙인 이름)'로 접어든다. 눈 밑에서 갈매기가 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이 구간은 제주올레에 의해 개척되었다.

 코스 난이도 ▶ 중  010.5301.2085

초반에는 평탄한 길이 이어진다. 신도에 이르러 바다를 만나면 넓은 바윗길을 지나고, 오름도 오른다.

코스 경로 ▶ 총 17.5km, 5~6시간

무릉생태학교 → 평지동 입구 0.9km → 평지교회 2.5km → 신도생태연못 4.2km → 농남봉 정상 5.5km → 산경도에 6.2km → 신도바당올레 8.4km → 신도포구 9.4km → 소녕길 11km → 한장동 마을회관 11.6km → 수월봉 정상 12.5km → 영알길 13.3km → 자구내포구 14.6km → 당산봉 정상 15.3km → 생이기정 16.1km → 용수포구 17.5km

볼거리

자구내포구 아름다운 섬 차귀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이고, 우측으로는 당산봉, 그 사이로 거대한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풍력발전기가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담기는 곳이다. 차귀도의 왼쪽으로는 수월봉도 볼 수 있다. 가끔 차귀도의 갈매기들이 포구로 찾아오기도 한다. 포구 길가에서는 바닷바람으로 말린 오징어를 팔기도 한다.

도원연못 신도리(도원리)에 위치한 습지로, 철새들이 날아와 추운 겨울을 나는 곳이기도 하다.

농남봉 산정에 원형분화구가 있는 오름으로, 원형분화구 안의 화구원에는 삼나무로 울타리를 둘러 감귤원과 감나무가 조성되어 있다. 예전에 녹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신도바당올레 신도 바닷가에는 용암이 만든 크고 작은 네 개의 도구리가 있다. 도구리는 나무나 돌의 속을 둥그렇게 파낸 돼지나 소의 먹이통. 신도바당 도구리에는 파도에 쓸려 온 물고기와 문어 등이 산다.

수월봉 차귀도, 죽도, 눈섬, 당산봉, 산방산, 한라산까지 제주 서부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해발 77미터의 봉우리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시원스럽다. 특히 수월봉 아래 바다 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영알'이라고 불린다. 절벽 곳곳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 흘러 '녹고물'이라는 약수터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먼 옛날 수월이와 녹고라는 남매가 몸져누운 흙이며

니를 위해 오갈피라는 약초를 캐러 수월봉에 올랐다가 여동생 수월이가 절벽에서 발을 헛디더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동생을 잃은 슬픔에 녹고는 17일 동안 울었는데, 이 녹고의 눈물이 바로 녹고물이라는 전설이다. 이 때문에 수월봉을 녹고물 오름이라고도 부른다.

영알길 수월봉 아래 바다 쪽으로 깎아지른 절벽. 영알은 큰 바위, 낭떠러지 아래라는 뜻이다. 응회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지층을 볼 수 있는 지질학습장이다.

당산봉 원래 이름은 당오름이다. 옛날 당오름 산기슭에 뱀을 신으로 모시는 신당이 있었는데 이 신을 사귀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사귀와 와전되어 차귀가 되면서 차귀오름이라고도 불렸다.

생이기정 바닷길 제주말로 생이는 새, 기정은 벼랑, 바당은 바다를 뜻한다. 생이기정 바닷길은 새가 살고 있는 절벽 바닷길이라고 할 수 있다. 겨울철새의 낙원으로 가마우지, 재갈매기, 갈매기 등이 떼지어 산다.

차귀도 제주도에 딸린 무인도 가운데 가장 큰 섬이다. 자구 내 마을에서 배로 10여 분 걸리는 곳에 있다. 죽도·지실이섬·와도의 세 섬과 작은 부속섬을 거느리고 있는데, 깎아지른 듯한 해안절벽과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며 섬 중앙은 평지이다. 섬에는 시누대, 들가시나무, 굴솜, 돈나무 등 13종의 수목과 양치식물인 도깨비고비, 제주도에서만 사는 해녀콩을 비롯한 갯쭉부쟁이, 천무등 등 62종의 초본류 등 총 82종의 식물이 자란다. 주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참돔, 돌돔, 흑돔, 벤자리, 자바리 등 어족이 풍부하다. 바닷바람에 말린 화살오징어로도 유명하다.

용수포구와 절부암 용수포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카톨릭신부인 김대건이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귀국하던 길에 표류하다 도착한 포구로 이국적인 건축 스타일의 기념성당이 바다를 향해 언덕 위에 지어졌다. 성당 바로 옆 나무로 가리워진 절벽의 돌에 새겨진 절부암(節婦岩)의 유래는 조난당한 남편을 기다리다 비통하게 기다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 후기 고씨부인의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풍랑을 만나 실종된 남편 강사철의 시신을 찾지 못한 아내 고씨 부인은 소복단장하고 용수리 바닷가 절벽의 커다란 팽나무에서 목을 매었는데 그 직후 홀연히 남편의 시신이 바위 아래의 물에서 떠올랐다. 1866년(고종 3), 이를 신기하게 여긴 대정의 판관(判官) 신재우(愼裁佑)가 바위에 ‘절부암(節婦岩)’이라 새기게 하고 부부를 합장하였다. 그리고 닳을 위로하기 위해 용수리 주민으로 하여금 해마다 3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 13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용수포구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도로행 버스를 타고 용수리에서 내려 (소요시간 50분) 바닷가 용수포구 쪽으로 15분 정도 걷는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시외버스 터미널(월드컵경기장 옆)에서 서회선 일주도로행 버스를 타고 용수리에서 내려 (1시간 소요) 바닷가 용수포구 쪽으로 15분 정도 걷는다.



식당

01. 아홉굿마을 체험관
064-773-1946
02. 만나와메추리기 식당
064-772-5807
03. 새오름 중식
064-772-58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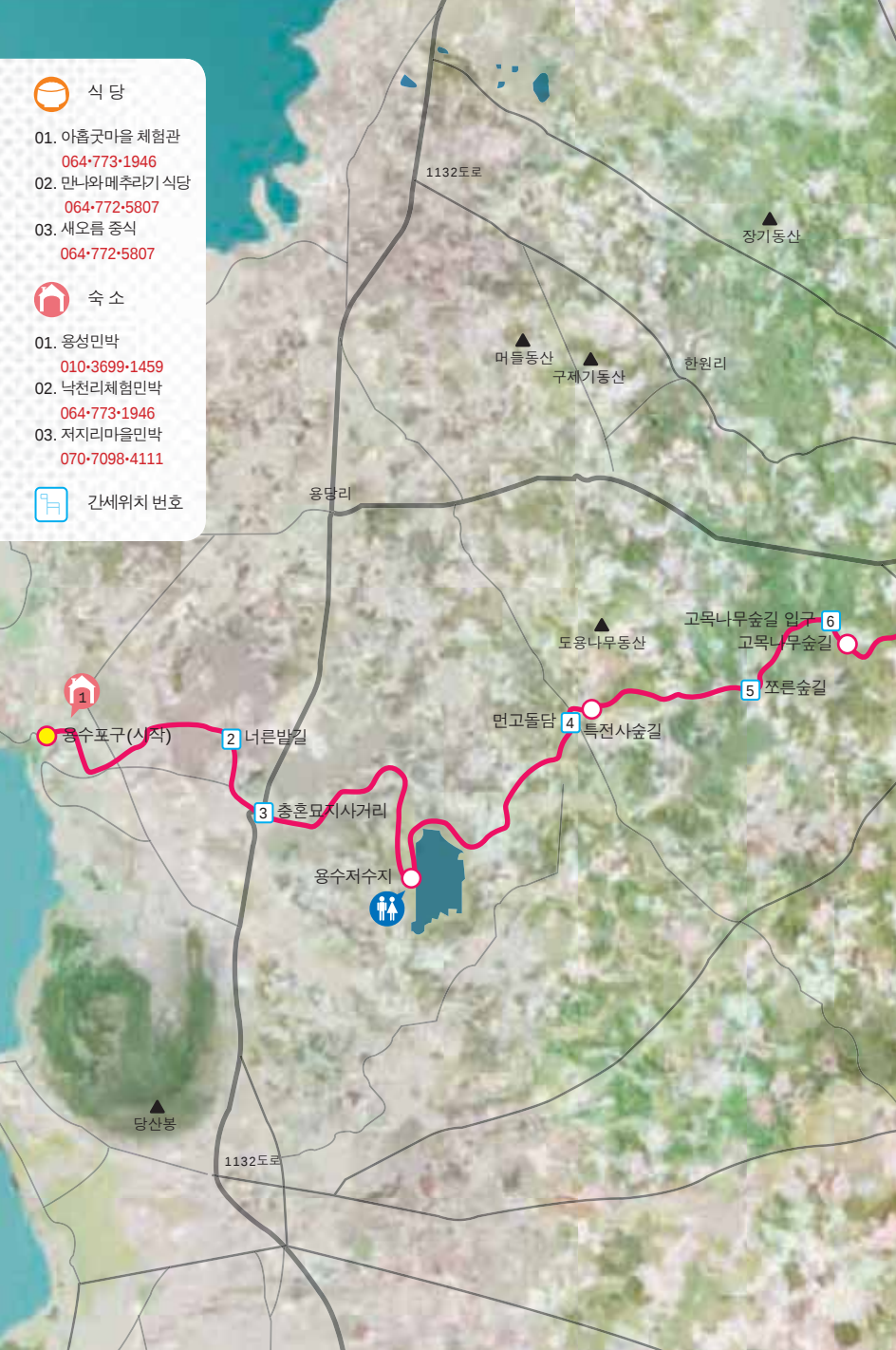


숙소

01. 용성민박
010-3699-1459
02. 낙천리체험민박
064-773-1946
03. 저지리마을민박
070-7098-4111



간세위치 번호



1

용수포구 (시작)

2 너른밭길

3 충훈묘지사거리

용수저수지



도용나무동산

먼고돌담

4 특전사숲길

고목나무숲길 입구

고목나무숲길

5 쏘른숲길

6

당산봉

1132도로

1132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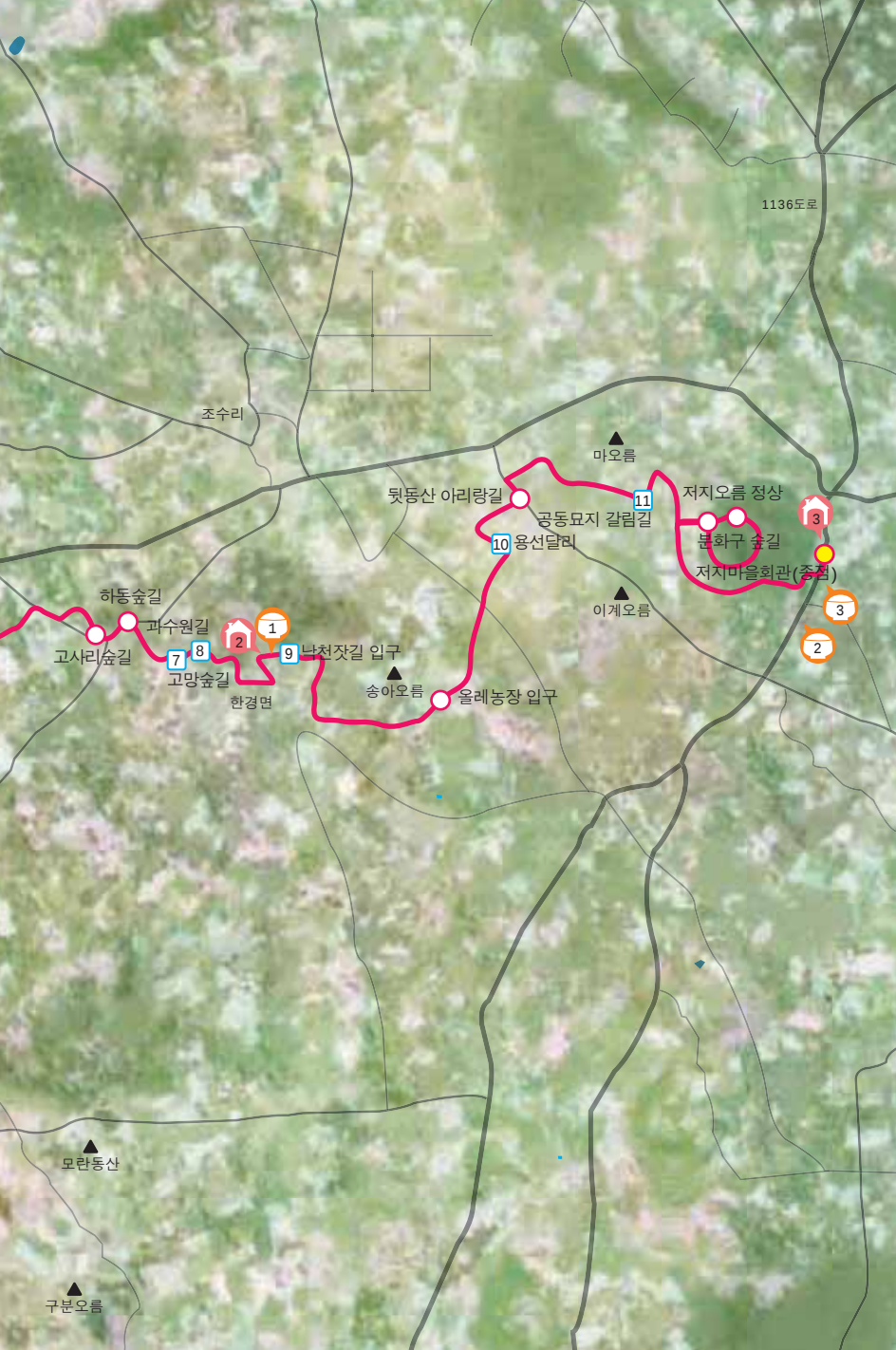
용당리

장기동산

머들동산

구재기동산

한원리



1136도로

조수리

마오름

뒷동산 아리랑길

공동묘지 갈림길

저지오름 정상

문화구 숲길

저지마을회관(종점)

하동숲길

과수원길

고사리숲길

고마당숲길

한경면

송아오름

올레농장 입구

낙천잣길 입구

이계오름

모란동산

구분오름

13코스 ▶ 용수~저지 올레

해안가를 이어오던 제주올레의 지도가 내륙으로 방향을 틀었다. 숲길 올레의 시작을 알리는 코스다. 바다는 오직 시작점인 용수포구에서만 인사한 후 길은 중산간으로 이어진다. 용수저수지와 숲을

지나 작은 마을 낙천리를 만나고 다시 숲과 오름을 오른다. 제13 공수특전여단 병사들의 도움으로 복원된 총길이 3km에 이르는 7개의 숲길, 발길, 잣길들과 저지오름의 울창한 숲이 우리를 부른다.

 코스 난이도 ▶ 중  010.4696.0986

제주올레가 특전사의 도움을 받아 개척한 폭이 좁은 숲길을 여럿 지나다.

코스 경로 ▶ 총 16.4km, 4~5시간

용수포구 → 너른 발길 1.2km → 층층요지 사거리 1.9km → 복원된 발길 2.3km → 용수저수지 3.2km → 먼고돌담 4.8km → 특전사숲길 4.9km → 쫓은 숲길 5.9km → 고목나무숲길 6.6km → 고사리숲길 7.6km → 하동숲길 8.2km → 고망숲길 8.5km → 낙천리 아홉곳 마을 9.6km → 올레농장 11km → 용선달리 12.1km → 뒗동산 아리랑길 12.4km → 저지오름 둘레길 13.9km → 저지오름 정상 14.8km → 저지마을회관 16.4km

볼거리

용수포구와 절부암 용수포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신부인 김대건이 중국 상하이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귀국하던 길에 표류하다 도착한 포구로 이국적인 건축 스타일의 기념성당이 바다를 향해 언덕 위에 지어졌다. 성당 바로 옆, 나무로 가리워진 절벽의 돌에 새겨진 절부암(節婦岩)의 유래는 조난당한 남편을 기다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 후기 고씨 부인의 이야기에서 비롯한다. 풍랑을 만나 실종된 남편 강사철의 시신을 찾지 못한 아내 고씨 부인은 소복단장하고 용수리 바닷가 절벽의 커다란 팽나무에서 목을 매었는데 그 직후 홀연히 남편의 시신이 바위 아래의 물에서 떠올랐다. 1866년(고종3년) 이를 신기하게 여긴 대정의 판관(判官) 신재우(愼裁佑)가 바위에 ‘절부암(節婦岩)’이라 새기게 하고 부부를 합장하였다. 그리고 넋을 위로하기 위해 용수리 주민으로 하여금 해마다 음력 3월 15일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복원된 발길 이 길은 2009년 6월, 제주도에 순환 주둔하던 제13 공수특전여단의 병사들이 제주올레를 도와서 복원했다.

용수저수지 1957년에 제방을 쌓아 조성한 저수지로, 인근 논에 물을 대는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돼 왔다. 이곳의 소나무 숲과 갈대, 부들 군락지는 겨울을 나러 오는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더 유명하다.

특전사 숲길 제주도에 순환 주둔하던 제13 공수특전여단의 병사들이 제주올레를 도와 낸 숲길이다. 50명의 특전사 대원들이 이틀간 총 길이 3km, 7개 구간에 걸쳐 사라진 숲 길을 복원하고 정비했다. 사람의 왕래가 끊기면서 사라진 숲 속의 오솔길에서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조각난 햇빛을 건드리며 걷는 것이 이 길의 가장 큰 재미. 특전사 병사들이 만든 두 곳의 숲 속 쉼터를 발견하는 재미는 보너스다.

고목숲길 수령이 오래된 큰 고목이 눈길을 끄는 숲길이다. 제주올레가 이 길을 새롭게 내면서 고목숲길이라고 이름 지었다.

고사리숲길 고사리가 무성하게 우거진 숲. 길 양편에 고사리가 가득해 제주올레에서 고사리숲길로 명명했다.

뗏동산 아리랑길 저지수동 뗏동산 자락을 구불구불 이어지면서 올라가는 길이다. 제주올레가 새롭게 지은 이름.

낙천리 아홉굿(샘) 마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는 350여 년 전에 제주도에선 처음으로 대장간(불미업)이 시작된 곳으로 불미업의 주재료인 점토를 파낸 아홉 개의 구멍에 물이 고여 수원이 풍부한 샘(굿)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간직한 곳이다. 특히 천 개의 아름다운 의자들이 현대 설치미술의 한 장면 같은 풍경을 보여주는 아홉굿마을 체험마당은 낙천리의 백미.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3층 높이 의자 구조물부터 작은 나무 스톨까지 천 개나 되는 의자들을 만들었다. 마을 길 곳곳에 놓여있는 의자들이 풍광과 어우러지는 것을 발견하면 다리품을 쉬어가는 것도 좋을 듯.

저지오름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숲이다. 닥나무가 많아서 닥물오름으로 불렸다. 저지는 닥나무의 한자식 표현. 높이 390미터, 둘레 1540미터로, 제주올레 13코스는 정상과 둘레길에 모두 걸쳐 있다.











● 14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저지마을회관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노형-중산간 버스(6:40 7:40 9:30 15:30 17:30 18:50)를 타고 저지리 마을회관에서 내린다.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도로 버스를 타고 신창(한경면사무소 맞은편)에서 내린 후, 한경면사무소 후문 맞은 편에서 신창-모슬포 순환버스(6:25, 7:07, 9:10, 10:10, 11:00, 12:00, 13:20, 14:50, 15:40, 16:40, 18:10, 19:04, 20:57)로 갈아타고 저지리 마을회관에서 하차한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도로(사계 경유) 버스를 타고 모슬포 우체국 앞에서 내리거나, 서회선 일주도로 버스를 타고 대정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하차한다. 대정읍사무소 앞에서 모슬포-신창 순환버스(06:48, 7:40, 9:00, 10:10, 11:30, 12:55, 14:20, 15:00, 16:30, 17:50, 19:50)를 갈아타고 저지리 마을회관에서 내린다.

 식당

01. 대금식당
064-796-7751
02. 옹포별장가든
064-796-3146
03. 한림바다체험
마을식당
064-796-1817
04. 영일만 식당
064-796-3875

 숙소

01. 풍차와 바다 펜션
064-796-9966
02. 월령코지 펜션
064-796-7138 9
03. 금능마린게스트하우스
064-796-0800

 간세위치 번호



14코스 ▶ 저지~한림 올레

고요하고 아늑한 초록의 올레와 시원하게 생동하는 파랑의 올레가 연이어 발길을 맞는다. 제주의 농촌 풍경에 마음이 탁 풀어지는 발길을 지나면, 곳자왈처럼 무성한 숲길이 이어지고, 폭신한 숲길을 벗어나 물이 마른 하천을 따라 가노라면 어느새 걸음은 바다에 가 닿는다. 돌담길, 발길, 숲길, 하천길, 나무 산책로가 깔린 바닷길, 자잘한 돌이 덮인 바닷길, 고운 모래사장 길, 마

을길 등이 차례로 나타나 지루할 틈 없이 장장 19.3km의 여정이 이어진다. 바다에서는 아름다운 섬 비양도를 내내 눈에 담고 걷는다. 걸을수록 조금씩 돌아왔는 비양도의 모습이 흥미롭다. 길이 없는 곳, 도저히 좋은 길을 찾기 힘든 환경에서 탐사팀은 흠집을 데 없는 길을 만들기 위해 몇 배나 더 공을 들였다. 그 흔적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올레다.

 코스 난이도 ▶ 중  010.3459.9817

코스가 비교적 길고 일부 숲길과 자잘한 돌길을 지난다.

코스 경로 ▶ 총 19.3km, 6~7시간

저지마을회관 → 저지고망숲길 0.6km → 3.나눔허브제약 1.7km → 소낭숲길 2.5km → 삼거리 4km → 오시록헌 농로 4.2km → 굴렁진 숲길 5.3km → 무명천 산책길1 7.2km → 월령숲길 입구 7.4km → 무명천 산책길2 8.1km → 무명천 산책길3 8.9km → 월령 선인장자생지 10.3km → 월령포구 10.9km → 해녀콩 서식지 12km → 금능포구 13.5km → 금능해수욕장 14.3km → 협재해수욕장 14.9km → 웅포포구 16.9km → 국립패류육종센터 17.6km → 한림항 비양도 도항선 선착장 19.3km

불거리

큰소낭 숲길 큰 소나무가 많은 숲길이다. 제주올레에서 길을 개척하면서 붙인 이름으로, 남은 제주어로 나무를 뜻한다.

오시록헌 농로 오시록헌은 아늑하다는 의미의 제주어이다. 발 길을 걷는 느낌이 오시록해서 제주올레에서 오시록헌 농로라고 이름 붙였다.

굴렁진 숲길 움푹 패인 지형을 제주어로 굴렁지다고 한다. 제주올레에서 새롭게 개척한 이 길은 굴곡이 있는 숲길이므로 굴렁진 숲길이라고 이름 붙였다.

월령리 선인장자생지 14코스를 걷다가 선인장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월령리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된다. 월령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인장이 자생하는 지역. 월령리 해안 바위를 뒤덮은 선인장 야생군락은 천연기념물 제429호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집에서 가꾸던 선인장이 해안가에 퍼졌다고도 하고, 해류를 타고 남방에서 밀려온 선인장이 바닷가 모래땅이나 바위틈에 자리잡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월령리에서는 뱀이나 쥐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 돌담에 선인장을 심었다고 한다. 월령리의 선인장은 여름철에 노란색의 꽃을 피운다.



© 강길순

해녀콩 서식지 콩각지의 길이는 4~5cm로 강낭콩과 비슷하지만,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 물질을 해야 하는 해녀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먹었으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토끼섬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주올레 탐사팀이 처음으로 이곳에서 발견했다.

금능해수욕장 / 협재해수욕장 제주에서 바다색이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곳이다. 금능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은 나란히 붙어 있다. 두 해수욕장 모두 모래에 조개껍질이 많이 섞여 있어 모래사장이 은빛으로 빛난다. 바다 빛깔도 탄성을 자아낸다. 수심이 얕고 경사도도 완만해서 아이들과 해수욕을 하기에 특히 좋다. 2007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우수해수욕장으로 지정했다.

비양도 14코스의 중간 지점인 월령해안에서부터 한림항까지 내내 비양도를 눈에 담고 걷는다. 비양도의 아름다운 앞모습 옆모습을 빙 둘러가며 보는 재미가 특별하다. 비양도는 천년 전인 1002년(고려 목종 5년)에 분출한 화산섬. 제주 화산섬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 어족이 다양하고 풍부한 청정 해양수역으로 바다산호가 유명하다. 비양봉 분화구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양나무가 자생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지정기념물 제48호).

웅포포구(명월포전적지) 삼별초 항쟁과 목호의 난 때 상륙전을 치른 전적지이다. 1270년(고려 원종 11년) 이문경 장군이 삼별초의 선봉군을 이끌고 이곳으로 상륙, 고려관군에 승리를 거둬으로써 처음으로 제주를 점거했다. 1374년(고려 공민왕 23년)에는 최영 장군이 3백14척의 전선에 2만5천명의 대군을 이끌고 상륙, 몽고의 목호 3천기를 격퇴했다.

한림 오일장 / 한림 매일시장 한림에서 재래시장을 구경하려면 오일장과 매일시장을 찾아가면 된다. 오일장은 한림읍 대림리 대림반석아파트 인근에서 매 4일과 9일에 열린다. 코스에서는 조금 떨어진 위치다. 14코스가 끝나는 한림항 바로 앞에는 상설 재래시장인 매일시장이 있다. 한림항에서 갓 들어온 온갖 수산물에 풍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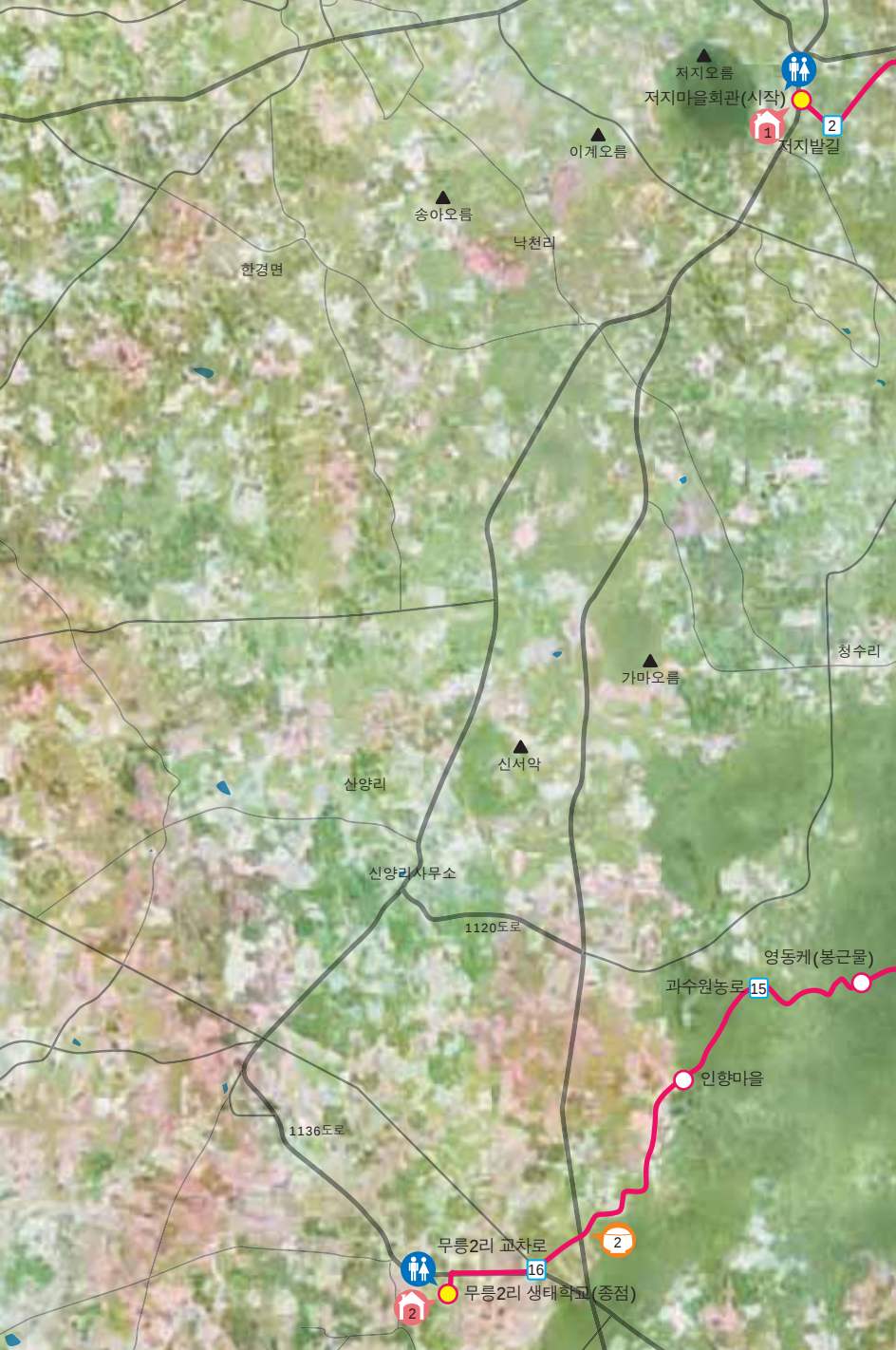


● 14-1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저지마을회관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노형-중산간 버스(6:40 7:40 9:30 15:30 17:30 18:50)를 타고 저지리 마을회관에서 내린다.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도로 버스를 타고 신창(한경면사무소 맞은편)에서 내린 후, 한경면사무소 후문 맞은 편에서 신창-모슬포 순환버스(6:25, 7:07, 9:10, 10:10, 11:00, 12:00, 13:20, 14:50, 15:40, 16:40, 18:10, 19:04, 20:57)로 갈아타고 저지리 마을회관에서 하차한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도로(사계 경유) 버스를 타고 모슬포 우체국 앞에서 내리거나, 서회선 일주도로 버스를 타고 대정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하차한다. 바다 쪽으로 5분 정도 내려간 후 사거리 우측 정류소에서 모슬포-신창 순환버스(06:48, 7:40, 9:00, 10:10, 11:30, 12:55, 14:20, 15:00, 16:30, 17:50, 19:50)를 갈아타고 저지리 마을회관에서 내린다.





이계오름

송아오름

낙천리

한경면

청수리

가마오름

신서악

살양리

신양리사무소

1120도로

1136도로

무릉2리 교차로



16

무릉2리 생태학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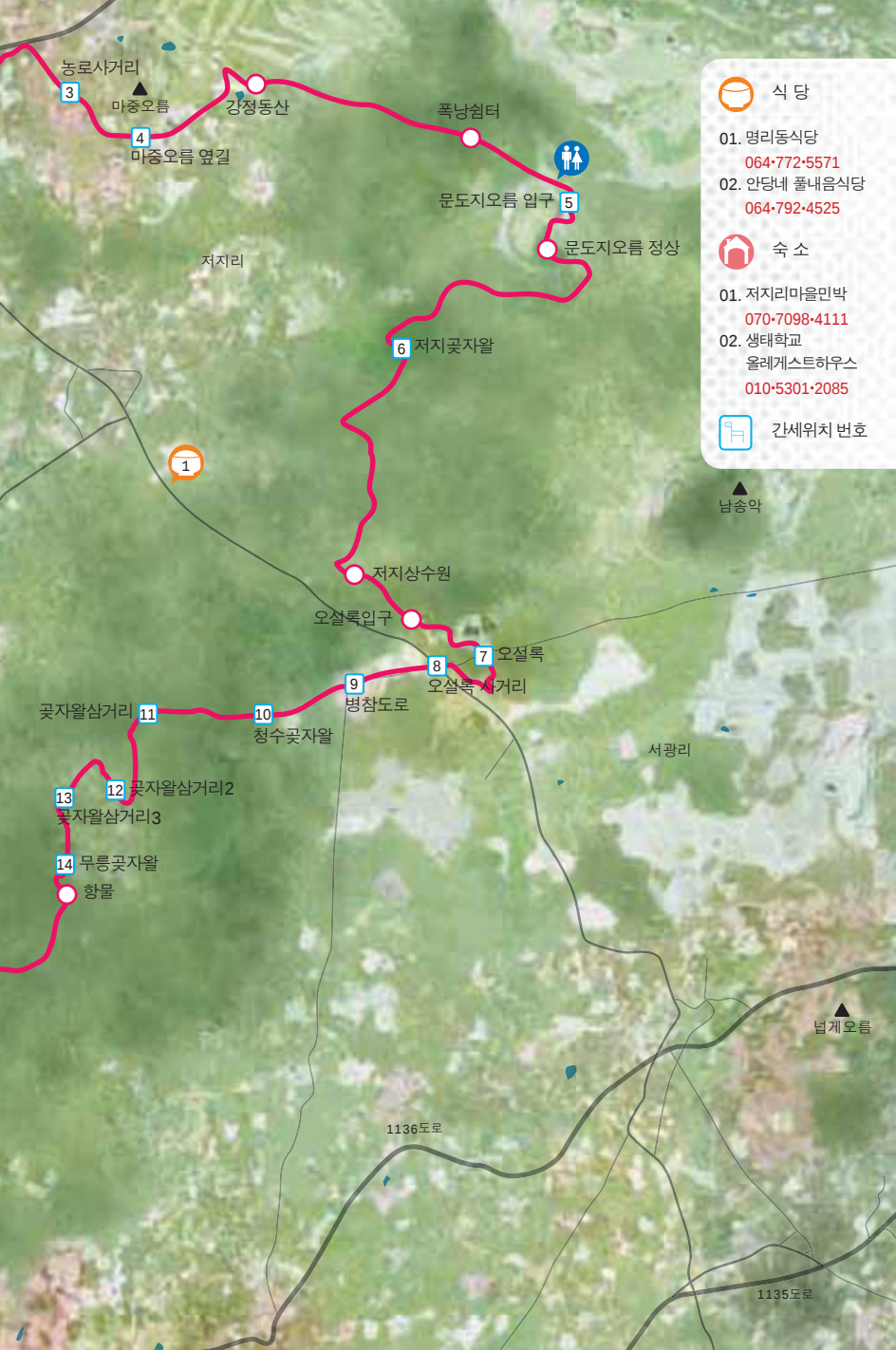
2

영동케 (봉근물)

과수원농로

15

인항마을



식당

01. 명리동식당

064-772-5571

02. 안당네 풀내음식당

064-792-4525



숙소

01. 저지리마을민박

070-7098-4111

02. 생태학교

올레게스트하우스

010-5301-2085



간세위치 번호



남종악

넉개오름

1136도로

1135도로

14-1코스 ▶ 저지~무릉 올레

저지에서 무릉까지 이어지는 이 길은 무성한 숲의 생명력, 초록의 힘을 온몸으로 느껴며 걷는 길이다. 저지마을을 떠난 길은 발 사이로 이어지다 이내 숲으로 들어선다. 순한 말들이 풀을 뜯는 문도지오름 정상에 오르면 한라산과 봉긋봉긋 솟은 사방의 오름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발 아래 야트막하게 펼쳐진 꽃자왈은 마치 잘 정리된 정원과도 같이 고분고분해 보인다.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 만

만한 풍경은 꽃자왈 안에 들어선 순간 싹 잊혀진다. 꽃자왈이 품고 있는 무성한 숲의 생명력이 온몸을 휘감는다. 자칫 표식을 놓치면 드넓은 꽃자왈을 헤매게 되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꽃자왈을 빠져나온 길은 녹차 밭 사이를 지나며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꽃자왈로 발길을 이끈다. 이번에는 조금 넓은 숲길이다. 그 길은 인항마을을 지나 종점인 무릉2리까지 이어진다.

코스 난이도 ▶ 상 010.2689.2585

꽃자왈에서 길을 잃으면 위험하므로, 표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코스 내에 인가가 없으므로 혼자 보다는 두 명 이상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

식당이나 상점이 없으므로, 반드시 도시락과 물, 간식을 미리 준비해 가야 한다.

코스 경로 ▶ 총 18.8km, 5~6시간

저지마을회관 → 강정동산 2.7km → 폭낭첨터 4km → 문도지오름 정상 5.1km → 주가흘길 5.5km → 저지꽃자왈 입구 7km → 노루첨터 7.5km → 오설록 10.3km → 무릉꽃자왈 입구 13.9km → 향물 14.3km → 영동케(봉근물) 15.4km → 인항마을 16.7km → 구남물 17.4km → 무릉 생태학교 18.8km

볼거리

저지예술인마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문화 예술인 마을이다. 문화예술관, 공동 작업장, 야외 전시장, 전통문화 공간, 입주 예술인 개인 작업장 등으로 조성돼 있으며, 마을 내에 도립 제주현대미술관이 있다. 작품 감상, 제작 과정 견학, 작품 구입, 실습 참여 등이 가능하다. 또한 제주의 전통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문도지오름 꽃자왈 지역에 나지막하게 솟아 있는 문도지오름은 초승달처럼 생긴 등성마루가 남북으로 길게 휘어진 말굽형 화구를 가지고 있다. 삼나무 조림지와 경작지를 제외하고는 전 사면이 역새로 덮여 있고, 말 방목지로 이용되고 있다.

꽃자왈 나무와 덩굴 따위가 미구 엉켜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을 제주말로 꽃자왈이라고 한다. 보은·보습 효과가 있는 꽃자왈은 북쪽 한계 지점에 자라는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남쪽 한계 지점에 자라는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다. 한겨울에도 푸른 숲인 꽃자왈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한다. 저지꽃자왈은 월림·신평 꽃자왈 지대 중에서도 가장 식생 상태가 양호한 지역으로 녹나무, 셀달나무, 생달나무, 참식나무, 후박나무, 육박나무 등 녹나무과의 상록 활엽수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제주올레가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너비로 덩굴을 잘라내고, 울퉁불퉁한 돌을 평평하게 골라 길을 만들었다.

오설록 티 뮤지엄 드넓은 녹차 밭 사이에 자리잡은 국내 최대의 차 종합 전시관이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구와 세계의 찻잔 등 차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망대에서는 녹차 밭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 15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한림항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도로 버스를 타고 한림에서 내린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도로 버스를 타고 한림에서 내린다.





식당

01. 한림바다체험마을
식당

064•799•9979

- ## 02. 한일식당

064-799-3191

- ### 03. 금산식당

064•799•1330

- #### 04. 고내횃집

064-799-6888

- #### 04. 무인카페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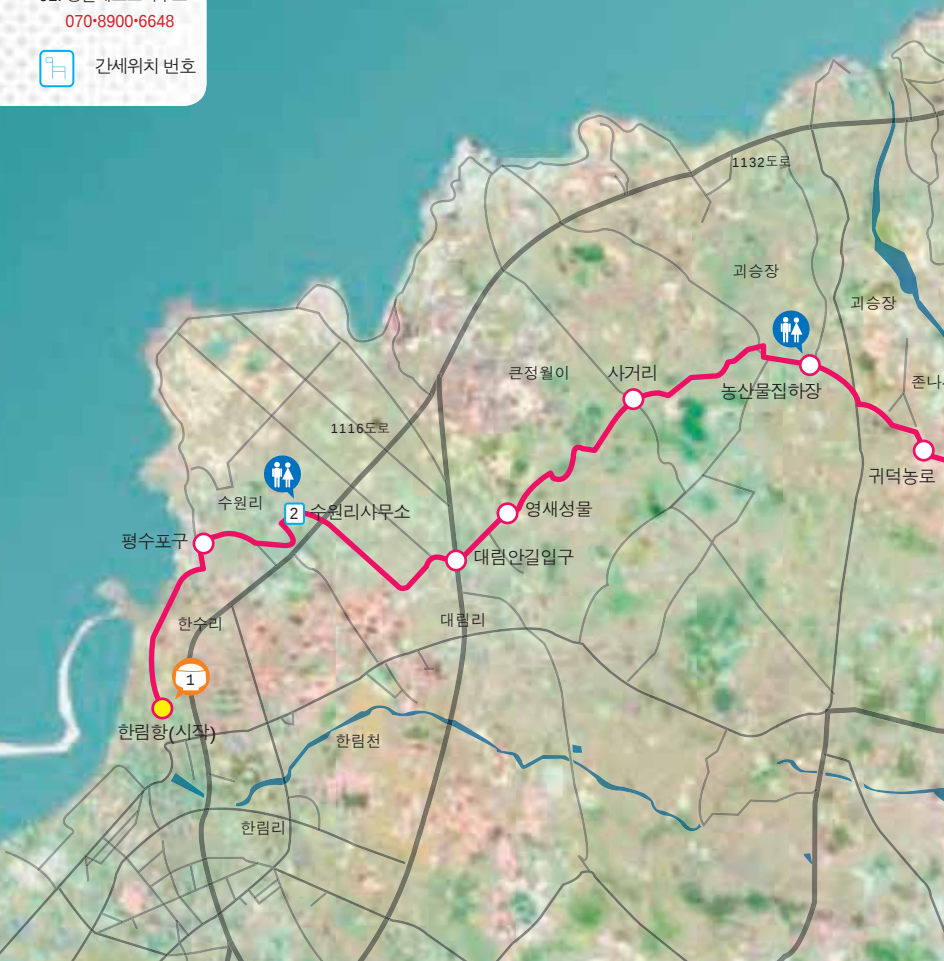
숙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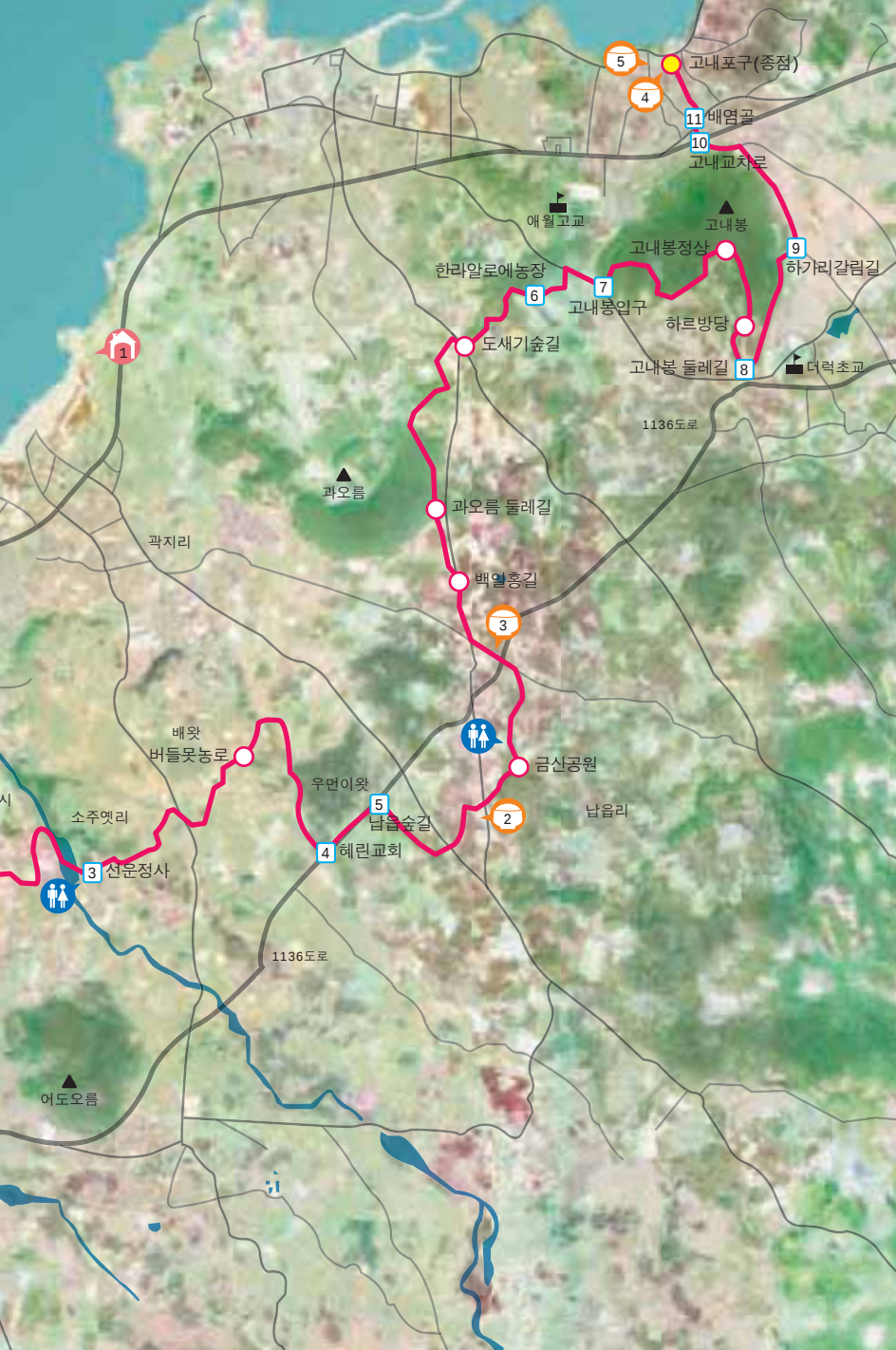
- ## 01. 정글게스트하우스

070-8900-6648



간서위치 번호





15코스 ▶ 저지~한림 올레

바다를 떠난 길은 다시 바다 쪽으로 향한다. 15코스는 한림의 바다에서 출발해 중산간의 마을과 밭, 오름을 돌아 다시 고내의 바다에 이르는 올레다. 한림항을 출발하면 곧바로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 왼쪽 바다 위에 갈매기와 기러기들이 떼지어 앉아 있다. 도심 공원의 비둘기떼처럼 가깝다. 갈매기 모양으로 깎아 세워놓은 나무 솟대와 그 옆에 무심히 내려앉은 진짜 갈매기들이 기묘한 조각 작품을 연출한다. 한수리를 지나자마자 길은 바다를 등진다. 마을 올레의 시작이다. 인적 드문 한적한 마을이 있

고, 사시사철 푸른 밭이 있고, 그 밭에 물을 대는 작은 못들이 있고, 두 개의 오름이 있고, 감춰진 난대림 숲이 있다. 이 길이 어디로 나를 이끌고 가는지 기대하며 걸어도 좋다. 걸을수록 더 좋은 풍경을 만나게 될 테니까. 밭 길에서나 오름에서나 바다는 멀리 않은 곳에서 드문드문 제 모습을 보여준다. 그 바다의 자력에 이끌려 온 길은 고내포구에 이르러 긴장을 푼다. 15코스의 끝이다. 해질녘, 배엽골 올레 걸 나무에 걸리는 붉은 해는 이 길을 온전히 걸어 온 이들에게 찍어주는 위로의 눈도장이다.

코스 난이도 ▶ 중 016.692.3833

길이가 비교적 길고, 높지는 않지만 오름이 있고, 숲길도 지나다.

코스 경로 ▶ 총 19km, 6~7시간

한림항 비양도 도항선 선착장 → 평수포구(0.7km) → 대림안길 입구(2.5km) → 사거리(3.8km) → 성로동 농산물집하장(4.7km) → 귀덕농로(5.5km) → 선운정사(6.5km) → 버들못농로(7.6km) - 헤린교회(8.9km) → 납읍숲길(9.3km) → 납읍초등학교 금산공원 입구(10.5km) → 납읍리사무소(11.3km) → 백일홍길 입구(12.1km) → 파오름 입구(12.5 km) → 도새기숲길(13.8km) → 고내봉 입구(14.9km) → 하르방당(16.5km) → 고내봉 아래 하가리 갈림길(17.6km) → 고내교차로(18.5km) → 고내포구(19km)

볼거리

영세생물 암반 위에 고여 있는 연못으로 깊은 곳은 1m가 넘는다. 옛날 이 연못 자리의 찰흙을 파다가 집을 짓자 자연스럽게 물통이 생기고 물이 고였다. 제비들이 찾아와 노니는 모습을 보러 마을사람들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염세서물, 염서생이물, 염새성물, 염세성물 이라고도 부른다.

버들못 농로 주위에 버드나무가 많았던 연못이다. 못 주변에서 오리가 노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여, 광지리 10경 중의 하나로 꼽혔다.

백일홍길 여름 내내 붉은 꽃이 피는 배롱나무(백일홍)는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고 뿌리가 길게 뻗지 않아 무덤가에 많이 심는다. 이 길에서 무덤을 지켜주는 백일홍을 만날 수 있다. 나무 껍질을 손으로 긁으면 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간즈름나무라고도 한다.

도새기 숲길 인근 축사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돼지를 만날 수도 있는 숲길이다. 집 돼지여서 사람에게 위협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단, 절대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금산공원(납읍 난대림지대) 납읍초등학교 옆 금산공원에는 온난한 기후대에서 자생하는 식물들

이 숲을 이루고 있다. 후박나무, 생달나무, 식나무, 종가시나무, 아왜나무, 동백나무, 메밀잣밤나무 등이 한겨울에도 울창하다. 이 숲은 평지에 남아 있는 보기 드문 상록수림으로, 나무의 종류는 단순하지만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375호로 지정돼있다. 예로부터 양반들이 시를 짓거나 답소를 나누던 곳으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쉬어가기에 좋다.

납읍리 포제단 금산공원 난대림 안에 있는 납읍리의 포제단이다. 납읍리는 전통적인 유림촌으로서, 포제도 전통적인 유교적 제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포제단에서는 포신지위와 토신지위 및 서신지위 등 세신위를 모신다. 포신은 인물제해, 토신은 마을의 수호신, 서신은 홍역이나 마마신을 의미하는 신위이다. 매년 음력 정월 초정일에 통제를 지낸다.

하가리 돌담과 연화못 하가리는 고내봉을 내려와 만나는 큰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오는 마을이다. 코스가 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된다면 들러보아도 좋은 아름다운 곳이다. 이 마을은 집집의 담장을 옛돌담으로 바꾸어 전통 울레를 복원해 놓았다. 마을 중앙에는 제주에서 가장 큰 연못인 연화못이 있다. 그 넓이가 3천7백여 평에 달할 정도의 거대한 연못으로 여름이면 수련이 만발한다. 고려 충렬왕(1275~1309) 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연못 한가운데 야적(세도가리는 기록도 있다.)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면서 주민들을 약탈했다고 한다. 이에 관군이 출동해 야적들을 소탕했으며, 17세기 중엽 대대적인 수리 공사를 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 연화못 가운데 있는 육각정을 만들 당시, 뿔 속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재와 기와가 발견되기도 했다.

고내봉 고내리 남동쪽에 있는 오름이다. 높지는 않지만 한라산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고내리는 제주에서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 몇 안 되는 마을 중 하나가 되었다. 정상까지는 걸어서 20여 분이 걸린다. 정상 인근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탁 트인 전망이 감탄을 자아낸다. 고내봉 때문에 마을에서는 한라산이 보이지 않지만, 고내봉이 있어 세상에서 가장 전망 좋은 헬스클럽을 가지게 된 셈이다. 고내봉은 마을 이름을 딴 것으로, 고니오름, 고노오름으로 불려왔다.

애월 환해장성 환해장성은 고려시대에 제주도 해안선 300여 리에 걸쳐 쌓은 석성이다. 고려 말까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다. 현재 형태가 양호하게 남아 있는 곳은 애월을 포함해 온평, 신산, 곤흘, 별도, 삼양, 북촌, 동복, 행원, 한동 등 10곳이다. 환해장성은 성처럼 넓은 공간을 두어 주성 역할을 하던 곳과 협축에 가깝게 축조되어 보조성 역할을 하던 성곽으로 이루어졌다. 성의 안쪽에는 말을 타고 달리거나 도보를 이용하여 군사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회곽도(回廓道)를 둔 곳들도 있으며, 수로나 안팎을 왕래하는 성문 역할을 했던 곳도 확인되었다.











● 16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고내포구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 시외버스를 탄다.
고내에서 내린 후, 고내포구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어간다.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회선 일주 시외버스를
탄다. 고내에서 내린 후, 고내포구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어간다.



고내포구(시작)
고내리

▲
고내봉

3
단애 산책로
신업포구

남두연대

1132도로

중엄리

용흥리

2
신업리

신업리

새물

4
돌업전

6
수산봉 일주
총흔묘지 전

5
구엄마을

7
수산봉
독방길

수산유원지

장전리

1136도로



식당

01. 물메골식당

064-713-5486



숙소

01. 하안동지

064-799-1600

02. SINUM.1980민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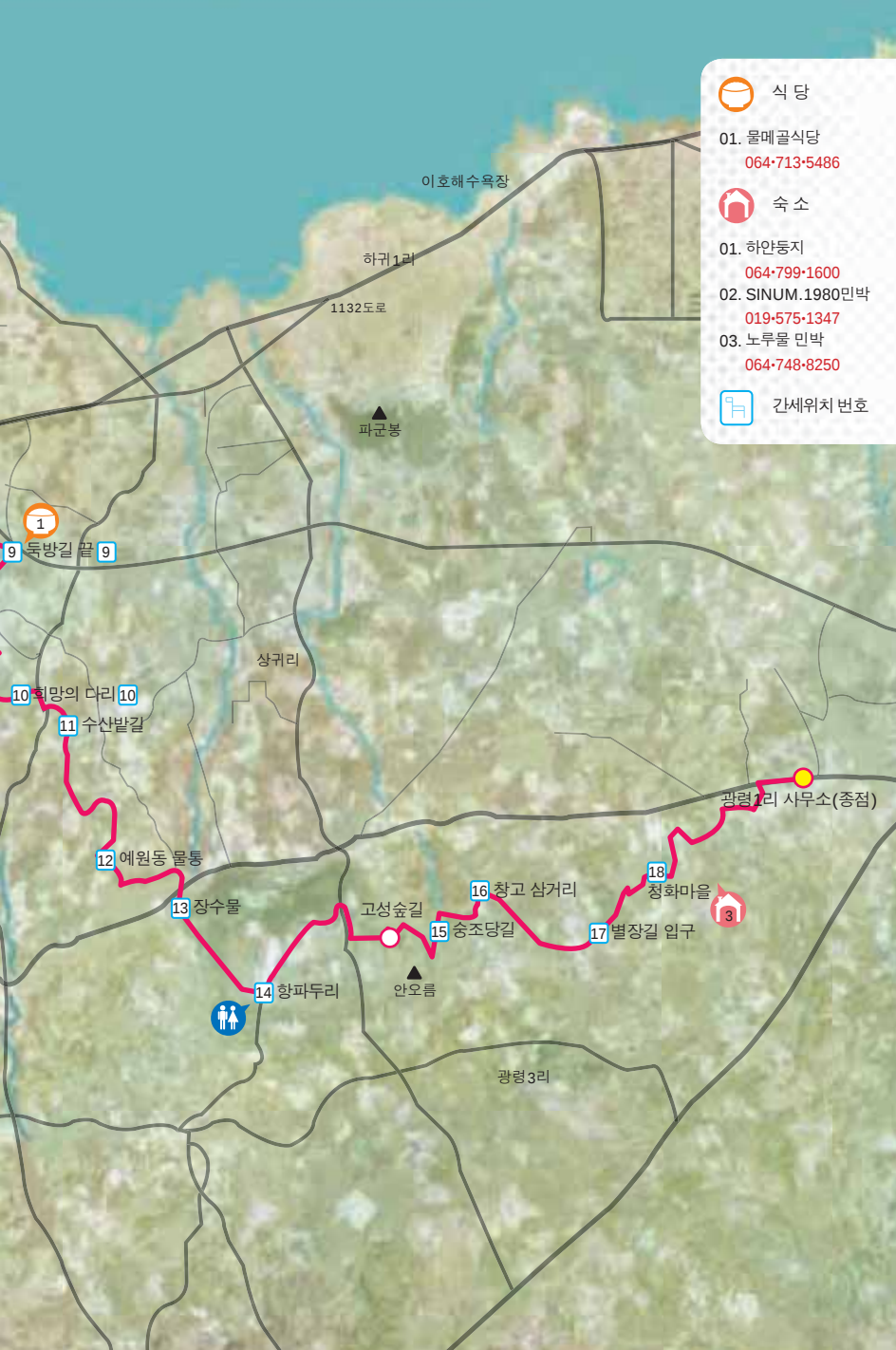
019-575-1347

03. 노루물 민박

064-748-8250



간세위치 번호



이호해수욕장

하귀1리

1132도로

▲
파군봉

상귀리

10 희망의 다리 10

11 수산발길

12 예원동 물통

13 장수물



14 항파두리

고성숲길

▲
안오름

16 창고 삼거리

15 송조당길

17 별장길 입구

18 정화마을

3

광령3리

광령1리 사무소(종점)

9 독방길 끝 9

16코스 ▶ 고내~광령 올레

고내의 작은 포구에서 출발한 길은 해안을 따라 구
업까지 이어진다. 일부 해안길은 작은 오솔길 산책
로이고, 일부는 바다와 맞닿은 길, 일부는 해안 도
로를 따라 간다. 넓은 소금빌레가 펼쳐진 구업포구
를 지나면 길은 내륙으로 방향을 튼다. 봉긋하게
솟은 수산봉을 향해 마을과 밭길을 지나 수산봉 돌
레를 돌면, 커다란 굴솔이 지키고 선 수산의 넓은
저수지에 이른다. 저수지 독방 위를 가볍게 걸어 마
을을 통과하면,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서 옛 토
성, 향파두리로 밭길을 이끈다. 성을 빠져나가면 아

름다운 숲길, 계곡길이 반긴다. 숲을 빠져 나온 길
은 이제 마을을 보여주며 종착지 광령에 다다른다.
고내에서 구업까지의 쪽빛 바다, 아직도 하얀 소금
기가 햇빛에 빛나는 소금빌레, 낚시꾼들이 한가롭
게 세월을 낚는 잔잔한 저수지, 키 큰 나무들이 그
늘을 드리우는 호젓한 숲, 삼별초가 향전을 벌였던
옛 토성, 제주의 어느 마을과 다름 없이 평화롭
고 소박한 마을들, 돌담을 두른 밭...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 보여주는 길, 제주올레의 열 여섯 번
째 길, 고내~광령 올레다.

코스 난이도 ▶ 중 010.8977.7097

특별히 난이도 높은 구간은 없지만, 전체 길이가 17.8km에 이르고, 오르막 길이 일부 포함돼 있다. 신업포
구 지나서 계단이 있고, 숲을 지나기도 해 유모차나 휠체어로 전 코스를 가기는 힘들다.

코스 경로 ▶ 총 17.8km, 5~6시간

고내포구 → 다락침터(0.5km) → 신업포구(1.5km) → 산책로 입구(2km) → 남두연대(2.8km) → 중업새물
(3.8km) → 구업포구(4.8km) → 수산봉 둘레길(6.4km) → 굴솔(7km) → 수산저수지 독방길(7.2km) → 수산
리(9.3km) → 수산밭길(9.6km) → 예원동 복지회관(10.5km) → 장수물(11.3km) → 향파두리 입구(12.2km)
→ 향파두리 향몽유적지(12.6km) → 고성숲길(13km) → 고성천길(13.7km) → 송조당(14.4km) → 청화마을
(16.1km) → 향림사(17km) → 광령초등학교(17.5km) → 광령1리사무소(17.8km)

볼거리

신업 도닷불 현무암으로 쌓아 올린 제주의 전통 등대. 해질 무렵 뱃길 나가는 어부들이 생선 기
름 등을 이용해 불을 밝히고 아침에 돌아오면 그 불을 껐다. 신업 도닷불은 1960년대 이전까지 있
었으나, 훼손되어 방치되었던 것을 고증을 거쳐 복원한 것이다.

남두연대 연대는 봉수와 같이 적의 침입이나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빠르게 연락을 취하기 위한 통
신망의 하나이다. 오름의 봉우리에 있는 봉수와는 달리 연대는 대부분 해안 구릉에 위치하고 있
다. 제주도에는 38개소의 연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서로 연락을
하였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연대를 지키던 군인이 직접 달려가 급한 소식을 전하
기도 했다고 한다. 남두연대는 애월진에 소속된 연대로, 동쪽으로는 조부연대, 서쪽으로는 애월
연대와 교신했으며, 별장 6명, 봉군 12명이 배치되어 지켰다. 경관이 수려한 해안 절벽 위에 높이
3.9m로 축조되어 있다. 제주도기념물 제23-7호

중업새물 중업리 해안에 솟은 용천수로, 중업 마을을 설촌하게 된 식수원이다. 겨울철에는 넘나

드는 파도 속에서 물을 걷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에, 1930년에 지금의 방파제를 쌓았다. 수량이 풍부하고, 방파제 안쪽으로는 해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구엄 돌염전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들었던 구엄 바닷가의 넓은 빌레(평평하고 넓은 바위), 구엄리의 소금빌레는 그 넓이가 1500여 평에 달한다. 이 곳에서 생산된 돌소금은 넓적하고 굵을 뿐만 아니라, 맛과 색깔이 뛰어나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수산봉 물메오름. 높이가 122m의 높지 않은 오름으로, 오름이 아름답고 어질다고 해서 영봉이라고도 불렸다. 제주도에 가뭄이 들면 목사가 이곳에 와서 기우제를 지냈다. 수산봉 서쪽에는 전돌 군경을 안장한 국군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 묘에 잠들어 있는 영혼을 안치 명령하는 사찰이 있다.

수산리 저수지 수산봉 남동쪽에 조성한 인공 저수지이다. 식량 생산을 목적으로 속칭 담단 이내를 막아 1960년에 조성했다. 낚시꾼들이 즐겨 찾으며, 수산유원지로 불리며 제주도민들이 자주 찾던 곳이다.

곰솔 수산리 저수지 옆에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있다. 높이가 10m, 둘레 4m의 거목으로, 4개의 큰 가지가 뻗어 있는데, 최대 수관폭은 26m에 달한다. 이 나무는 400여 년 전, 수산리 설촌 당시 심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목으로 보호돼 왔는데, 눈이 내려 수관 윗부분에 덮이면 마치 백곰이 저수지 물을 마시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곰솔이라고 불렸다. 제주도 천연기념물 제441호.

제주향파두리 항몽유적지 13세기 말엽(1271~1273), 고려시대 삼별초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향파두성이다. 진도를 근거지로 항전하던 삼별초군은 원종 12년(1271) 진도가 함락되고 배중손 장군이 전사하자, 김통정 장군이 잔여 부대를 이끌고 제주로 건너왔다. 이 곳에 토성을 구축하고 항전하던 삼별초군은 원종 14년(1273) 여몽 연합군의 총공격을 받아 향파두성이 함락되면서 전멸했다. 향파두성은 제주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토성이며, 언덕과 하천을 따라 주위 15리에 걸쳐 쌓은 것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1978년부터 복원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관람료 성인 500원. 청소년 300원.









JEJUOLLE
ROUTE 18-1



● 18-1코스 시작점 찾아가기 | 추자항

■ 제주시에서 온다면 : 제주공항 또는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 택시 이용 - 제주항여객선터미널
- 추자도행 여객선 승선 - 상추자항 하선

■ 서귀포시에서 온다면 : 서귀포 (구)시외버스터미널(중앙로터리 옆) - 5.16도로 버스 탑승 -
제주시청 하차 - 광양로터리 방향 도보 5분 사거리 지나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92번 시내버스 탑승
- 제주항여객선터미널 하차 - 추자도행 여객선 승선 - 상추자항 하선

■ 추자도행 여객선 정보

핑크돌핀호 제주↔추자/진도/목포 (064) 758-4234

제주→추자 9:30, 추자→제주 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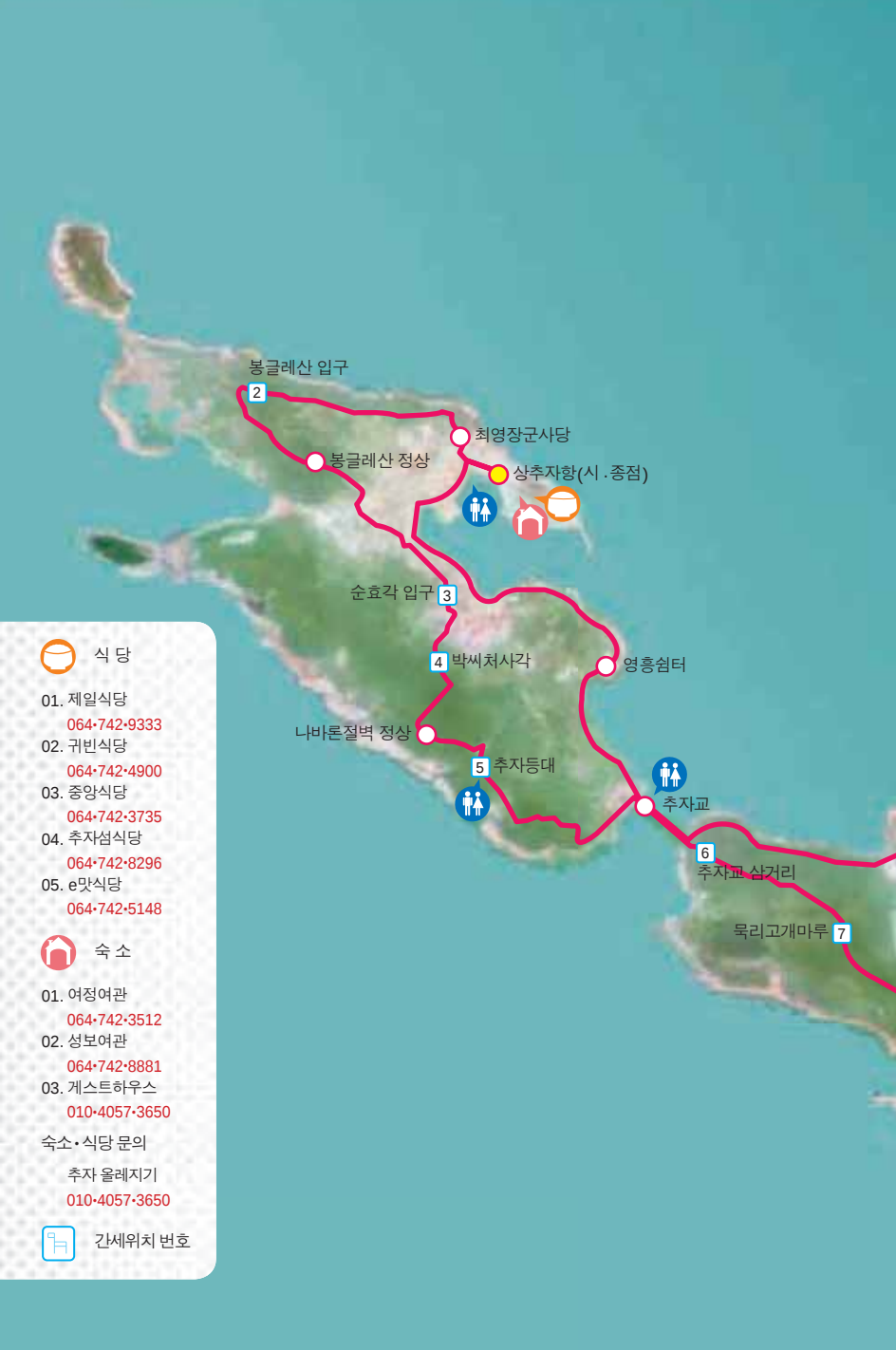
한일카페리3호 제주↔추자/완도 (064) 751-5050

제주→추자 13:40, 추자→제주 10:30

■ 마을 순환 버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13회 운행. 대서리 출발 정각, 예초리 출발 30분.

대서리→영흥리→목리→신양2리→신양1리→예초리→신양1리→신양2리→목리→영흥리→대서리



봉글레산 입구

2

봉글레산 정상

최영장군사당

상추자항(시.종점)

순효각 입구

3

4 박씨쳐사각

영흥쉼터

나바론절벽 정상

5 추자등대

추자교

6 추자교 삼거리

7 묵리고개마루



식당

- 01. 제일식당
064-742-9333
- 02. 귀빈식당
064-742-4900
- 03. 중앙식당
064-742-3735
- 04. 추자섬식당
064-742-8296
- 05. e맛식당
064-742-5148



숙소

- 01. 여정여관
064-742-3512
- 02. 성보여관
064-742-8881
- 03. 게스트하우스
010-4057-3650

숙소·식당 문의
추자 올레지기
010-4057-3650



간세위치 번호



18-1코스 ▶ 추자도올레

추자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네 개의 섬과 아무도 살지 않는 서른 여덟 개의 섬이 추자도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 바다에 떠 있는 첩첩산중. 겹겹이 보이는 섬의 봉우리들은 섬이 아니라 깊은 산중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끼게 한다. 산봉우리들 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추자도는 발길을 이어갈 때마다,

눈길을 달리할 때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새로운 풍광을 쏟아낸다. 추자도의 두 섬, 삼추자와 한추자의 봉우리들을 넘고 또 넘어 이어가는 제주 올레 길은 추자도의 숨은 풍광을 모두 들춰내 보여준다. 고즈넉한 숲길을 바다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쁨은 추자도의 한 봉우리를 넘은 후, 다시 새로운 봉우리에 오르는 힘을 기꺼이 내어줄 것이다.

코스 난이도 ▶ 최상 010.4057.3650

봉글레산, 묵리 고개, 신대산, 예초리 기정, 돈대산 등 봉우리를 여러 차례 오르내린다. 하루를 머물러야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봉글레산에서 보는 일몰이 아름답다.

코스 경로 ▶ 총 17.7km, 6~8시간

추자항→최영장군 사당 0.4km→봉글레산 입구 1.1km→봉글레산 정상 1.5km→천주교 추자공소→순효각 입구 2.5km→박씨 처사각 2.7km→나바론 절벽 정상 3.1km→추자등대 3.3km→추자교 4.2km→추자교 삼거리 4.4km→묵리 고갯마루 5.1km→묵리 교차로 5.8km→묵리마을 6.2km→신양2리 6.8km→신양항 7.7km→모진이 몽돌해안 8.4km→황경현의 묘 9.3km→신대산 전망대 10.2km→예초리 기정길 끝 10.7km→예초리포구 11.1km→엄바위 장승 11.6km→돈대산 입구 12.0km→돈대산 정상 12.8km→묵리 교차로 14.0km→담수장 14.6km→추자교 15.4km→영흥 쉼터 16.2km→추자항 17.7km

볼거리

추자도 추자도는 제주도로 갈 때 거센 바람을 피하던 후풍도였다. 예전에는 진라남도에 속해 있다가 제주도의 일원이 된 지는 100년이 되었다. 그래서 풍광도 문화도 제주도와는 자못 다른 느낌을 준다. 추자도와 제주도의 사이에는 유배인들이 마지막으로 관복을 벗던 관탈섬도 있다. 모든 갯바위가 낚시 포인트라고 할 정도로 바다 낚시의 천국으로 불린다.

최영장군 사당 고려 공민왕 23년(1374) 목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로 가던 최영 장군은 심한 풍랑을 만나 추자도에 머물며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게 된다. 이 때 점산곶에 머물던 최영 장군은 주민들에게 어망을 만들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다. 생활이 크게 좋아진 주민들이 장군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지었다고 한다. 사당 안에는 ‘조국도통대장최영장군’이라는 신위가 안치되어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봉향한다.

추자 처사각 처사 박인택을 추모하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한 사당. 박인택은 추자도에 사는 태인 박씨의 입도선조로 조선 중기에 추자도에 유배 와서 주민들에게 불교 교리를 가르치고 병을 치료해 주며 살았다고 한다.

나바론 절벽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 비경. 난공불락 요새로 일컬어지는 나바론 요

새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배를 타고 나가야만 그 비경을 볼 수 있다.

추자도 등대 제주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등대로 제주해협을 향해하는 선박들의 밤길을 안전하게 게 인도한다. 상추자도의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추자군도의 비경이 한눈에 보인다.

목리 고갯길 목리는 마을의 앞과 뒤가 산에 둘러싸여 있어 다른 마을에 비해 해가 늦게 뜨는 고요한 마을이다. 목리로 넘어가는 고갯길은 섬이 아니라 깊은 산 중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늑하고 아름다운 숲길이다. 제주올레에서 새롭게 길을 이었다. 모진이 몽돌해안 추자도에는 해안 곳곳에 몽돌밭이 있는데, 특히 모진이에는 작은 몽돌로 이루어진 해안이 100여 미터나 이어져 있어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황경현의 묘 황사영의 부인이자 정약용의 조카인 정난주 마리아는 신유박해 때 ‘황사영 백서’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두 살배기 아들 경현과 함께 제주도에 유배된다. 호송선이 잠시 예초리에 머물자 정난주는 아들을 저고리로 싼 후 이름과 출생일을 적어 황새바위에 숨겼고, 경현은 어부 오씨에게 발견되어 자랐다. 황경현의 후손들은 지금도 하추자도에 살고 있으며, 황씨와 오씨는 한 집안과 같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 풍습이 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추자도에 버리고 간 정난주 마리아는 대정에서 38년 동안 관노로 살았으며, 풍부한 학식과 교양으로 주민들에게 ‘서울 할머니’라고 칭송 받았다. 정난주 마리아가 묻힌 대정성지는 제주올레 11코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초리 기정길 추자도의 해안 절경을 두 눈에 가득 담고 걸을 수 있는 해안 절벽길이다. 제주올레가 새롭게 찾아 만들었다.

엄바위 장승 옛 사람들은 거대한 엄바위가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엄바위 밑에는 억발장사라고 불리는 나무로 깎은 장승이 서 있다. 엄바위 밑에서 태어난 억발장사는 인근 바다에 있는 ‘장사공돌’이라는 바윗돌로 공기놀이를 하곤 했는데, 어느날 횡간도까지 뛰어 넘어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이 때부터 예초리와 횡간도 사람이 결혼하면 청상과부가 된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

테우 체럼 테우는 가까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이용하던 제주도의 전통 뗏목. 작고 아늑한 후포 해안에서 테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성인 5,000원. 어린이 3,000원.









교통정보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가기

- 제주국제공항에서 : 시내버스 100번을 이용한다.
- 제주여객선터미널에서 : 시내버스 92번(운행간격 25분)을 타고 광양로터리에 가서 100번 버스로 갈아탄다.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 가기

- 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은 신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옆에 있다. 중앙로터리 근처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도 사방으로 가는 시외버스(단, 서회선 일주 시외버스는 제외)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콜택시 전화번호

5.16 콜택시	064.751.6516(제주 ↔ 서귀포 및 5, 6, 7, 8코스)
성산 호출개인택시	064.784.3030(1, 2코스)
성산 콜택시	064.784.8585(1, 2, 3코스)
동성 콜택시	064.787.7733(3, 4코스)
표선 개인콜택시	064.787.5252(3, 4코스)
남원 콜택시	064.764.9191(4, 5코스)
서귀포칠십리콜택시	064.763.3000(6, 7코스)
서귀포개인택시 호출	064.732.4244(6, 7코스)
서귀포OK콜택시	064.732.0082(6, 7코스)
인성 콜택시	064.733.0008(6, 7코스)
서귀 콜택시	064.767.6001(6, 7코스)
중문 콜택시	064.738.1700(8, 9코스)
안덕개인 콜택시	064.794.1400(9, 10코스)
모슬포 콜택시	064.794.5200 (10, 11코스)
한경 콜택시	064.7721818(12, 13코스)
한수풀 콜택시	064.796.9191(14, 15코스)
애월 콜택시	064.799.9007(15, 16코스)
하귀 콜택시	064.713.5003(16코스)
VIP 콜택시	064.711.6666(16코스)
추자도 택시	064-742-3595, 011-699-1232 (18-1코스)

올레길 뽕김이 010-2699-1892

배낭을 숙소에서 숙소로 옮겨주는 서비스.

이용료 3,000원~8,000원. 배낭 1개 추가시 3,000원 추가.

코스과 역방향인 경우 다음날 배송.



제주올레 패스포트

1, 2, 3 코스

운행	해비치 호텔	우물안 개구리 앞	온평포구 3코스 시작점	광치기해변 2코스 시작점	시흥초등학교 1코스 시작점	광치기해변 2코스 시작점	온평포구 3코스 시작점	우물안 개구리 앞	해비치 호텔
1	10:20	10:30	10:40	10:50	11:05	11:25	11:35	11:45	11:55
2	17:00	17:10	17:20	17:30	17:45	18:05	18:15	18:25	18:35

4, 5, 6, 7 코스

운행	해비치 호텔	산여리통 입구 버스정류장	남원포구 5코스 시작점	쇠소깍 6코스 시작점	외돌개 7코스 시작점	쇠소깍 6코스 시작점	남원포구 5코스 시작점	산여리통 입구 버스정류장	해비치 호텔
1	08:00	08:15	08:25	08:45	09:05	09:30	09:50	10:00	10:15
2	14:30	14:45	14:55	15:15	15:35	16:00	16:20	16:30	16:45

셔틀버스 문의

 해비치 호텔&리조트 064.780.8000

* 동절기에는 운행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패스포트 할인업체

*아래 업체를 이용하실 때 제주도에 패스포트를 제시하시면 특별 할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공 할인

이스타항공 www.eastarjet.com

이스타항공 홈페이지 탄력운임에 추가 할인 적용(운행 구간 및 시간에 따라 할인액 별도 책정).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센터(1544-0080)를 통해 예매.

여정변경 수수료 면제. (단, 초특가 티켓은 제외)

성수기 제외

할인은 13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료 할인

제주 민속촌 박물관	성인7,000원, 청소년4,500원, 어린이3,500원 ▼ 20%할인	064.787.450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
제주 조각 공원	성인4,500원, 청소년2,500원, 어린이1,500원 성인2,500원, 청소년1,500원, 어린이1,000원	064.794.9680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27
제주화석박물관	성인6,000원, 청소년(18세이상)4,500원 ▼ 성인4,000원, 청소년3,000원	064.787.7831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357-1
그린크루즈 (산방산 사랑의 유람선)	승선료 성인13,000원, 청소년8,900원, 어린이6,900원 해양공원 입장료 및 터미널 이용료 성인2,000원, 청소년 및 소인1,100원 승선료 30%할인(해양공원 입장료 및 터미널 이용료 별도)	1599.1567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825-11

■숙박 할인

1 코스	강태어 할망집	패스포트 소지자 1인 15,000원. 올레곶전용	010.7755.2948	서귀포시 성산을 사흘리 1056
	오기옥 할망집	패스포트 소지자 1인 15,000원. 올레곶전용	016.689.2307	성산을 성산리 186-4
	오신생 할망집	패스포트 소지자 1인 15,000원. 올레곶전용	016.9838.4773	서귀포시 성산을 사흘리 782
	강병희 이장집	패스포트 소지자 1인 15,000원. 올레곶전용	011.691.3278	서귀포시 성산을 사흘리 71-2
	솔레민박	7평형30,000원, 12평형40,000원 (7월 20일~8월 10일 : 40,000원, 70,000원) 10%할인	011.692.1438 064.784.1668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리 347-20
	초통민박	30,000원 ▼ 25,000원, 도미토리 15,000원	011.691.4580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리 254-2
	라까사인펜션	8평형(2인)60,000원 - 성수기70,000원 10평형(2인)70,000원 - 성수기90,000원 18평형(4인)120,000원 - 성수기15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추가 ▼ 8평형(2인)40,000원 - 성수기50,000원 10평형(2인)50,000원 - 성수기70,000원 18평형(4인)80,000원 - 성수기12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추가	064.782.0399	서귀포시 성산을 사흘리 209-2
	블루써펜션	11평형60,000원 - 성수기100,000원 15평형(4인)100,000원 - 성수기150,000원 11평형40,000원, 15평형(4인)70,000원 - 성수기 일반가	064.784.5266	서귀포시 성산을 사흘리 2-11
	휘닉스아일랜드	34평형 - 주중 64%, 주말 55% 할인 54평형 - 주중 71%, 주말 62%할인 (2인 조식뷔페 포함, 성수기 및 연휴 별도)	예약센터1577.0069 프론트064.731.7000~5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 127-2

1 코스	시드게스트하우스	10평형(2인)40,000원·성수기70,000원 14평형(4인)70,000원·성수기12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추가, 도미토리 15,000원, 성수기 7월25일~8월15일 ▼ 민박률 10%할인 도미토리 이용자 간식제공	064.784.7842 010.2002.5353	서귀포시 성산을 오조리 338-1
	성산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15,000원 ▼ 도미토리 14,000원	010.2844.6434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리 264
2 코스	오조 흥무생 할망집	패스포트 소지자 1인 15,000원. 올레꾼전용	010.9077.2549 064.782.2549	서귀포시 성산을 오조리 157
	해녀 신촌자 할망집	패스포트 소지자 1인 15,000원. 올레꾼전용	010.3866.2972 010.3999.0435	서귀포시 성산을 오조리 736-1
	동지황토마을	13평형100,000원, 도미토리15,000원 ▼ 13평형60,000원, 도미토리13,000원	011.698.8805	서귀포시 성산을 은평리 2586-11
	소리의성(은평어촌계)	2인1실30,000원, 1인20,000원, 도미토리15,000원, 아침식사5,000원 ▼ 25,000원, 추가체험1인7,000원	064.784.6363	은평포구
	풍낭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10,000원 ▼ 도미토리8,000원	010.5265.8127	서귀포시 성산을 은평리 843-2 제주해오름학교
	통오름 고정화 할망집	패스포트 소지자 1인 15,000원. 올레꾼전용	010.7474.3888	서귀포시 성산을 난산리 1334
3 코스	세화의집	2인1실30,000원, 1인20,000원 도미토리15,000원, 아침식사5,000원 여성 올레꾼 전용	064.787.7794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128-4
	탐라스포텔	2인실35,000원, 도미토리15,000원 ▼ 2인실30,000원, 도미토리12,000원	019.693.3992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1811-1 (구)화산초등학교
	바다리조트	18평형(4인)80,000원, 25평형(6인)120,000원 추가 1인당 10,000원 ▼ 18평형(4인)50,000원, 25평형(6인)90,000원 성수기요금 별도(패스포트 소지자 20%할인적용)	064.784.5158	서귀포시 성산을 신산리 1180
	가원비치 민박	최대 4인 40,000원. 추가 1인당 10,000원 (7/20~8/20 80,000원) 1인 25,000원. 2인30,000원. 3인 40,000원 (7/20~8/20 70,000원)		
4 코스	해비치리조트	올레꾼 전용 게스트하우스 1인당3,300원(올레뱅포함)	064.780.8000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40-69
	영등 현동순 할망집	1인당 15,000원. 올레꾼 전용	010.5696.3666 010.6698.0539	서귀포시 남원을 신례리 85-6
5 코스	티파니에서 아침을	8평형70,000원, 14평형110,000원(성수기요금 별도) ▼ 8평형60,000원(2박 이상시50,000원) 14평형90,000원(2박 이상시80,000원)	064.764.9669	서귀포시 남원을 의귀리 1318-1
	금호리조트	18평형(주중)55,000원(주말)95,000원 27평형(주중)90,000원(주말)155,000원 스위트디럭스 27평(주중)100,000원(주말)185,000원 로얄스위트70평(주중)180,000원(주말)305,000원 로얄스위트디럭스54평(주중)230,000원(주말)365,000원	064.766.8000	서귀포시 남원을 남림리 2384-1
6 코스	술섬 오영자 할망집	1인당1,5000원. 올레꾼 전용	016.9606.3600 064.733.3910	서귀포시 송산동 보목동 585
	애순이네 민박	도미토리15,000원, 아침식사5,000원. 여성올레꾼 전용	011.600.3316	서귀포시 중정로 91길 23-6
	민중각	2인실25,000원, 도미토리10,000원. 올레꾼 전용	064.763.0501	서귀포시 천지동 305-6
	제주크리스탈호텔	90,000원(7월15일~8월15일100,000원)조식5,000원 ▼ 50,000원(7월15일~8월15일60,000원)조식5,000원	064.732.8311	서귀포시 서귀동 316-4
	대국아일랜드호텔	70,000원 ▼ 50,000원(조식 포함, 성수기 조식 불포함)	064.763.0002	서귀포시 서귀동 322-6

7 코스	뉴서울모델	30,000원 ▼ 25,000원, 도미토리10,000원	064.732.8814	서귀포시 서귀동 698-4
	금우장	30,000원 25,000원, 도미토리10,000원	010.6449.7141	서귀포시 서귀동 408-4
	남국호텔	개인실25,000원, 도미토리10,000원	064.762.4111	서귀포시 서귀동 316-5
	풍림리조트	주중(일~목)90,000, 주말(금~토)130,000원 2인 조식 포함. 한라산전망 기준. 성수기 및 연휴 별도. 올레꾼전용 게스트하우스 20,000원(조식포함)	064.739.9001	서귀포시 강정동 2677
	알레올레	1인25,000원(조식 포함), 올레꾼 전용	011.894.3984	서귀포시 법환동 1171
	미령언니네	1인20,000원(간단한 조식 포함, 취사가가능), 올레꾼 전용	010.2905.2291	서귀포시 법환동 법환하로 1523
	호도하우스	13평형90,000원, 23평형150,000원(성수기 별도) ▼ 13평형80,000원, 23평형130,000원, 도미토리20,000원(조식 포함)	064.739.1152	서귀포시 법환동 1523
	바닷가리조트	17평형(주중)80,000원 (주말)90,000원 20평형(주중)90,000원 (주말)100,000원, (여름 성수기 17평형 일반실130,000원 특실140,000원, 20평형 일반실170,000원 특실180,000원) ▼ 17평형(주중)60,000원 (주말)70,000원, 도미토리20,000원 (여름 성수기 17평형 일반실140,000원, 특실130,000원, 20평형 일반실170,000원 특실 180,000원)	064.739.2023	서귀포시 호근동 1623-1
8 코스	뜨레피아 펜션	2인실40,000원, 도미토리15,000원 2인실35,000원	011.691.5848	서귀포시 하원동 1496-1
	제주위터월드	1천원 할인	064.739.1930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 내
	써니데이제주	120,000원, 140,000원(성수기160,000원,180,000원) ▼ 80,000원, 100,000원(성수기120,000원, 140,000원)	064.738.1999	서귀포시 대포동 1931
	웰리조트	10평형70,000원(성수기100,000원) ▼ 10평형50,000원(성수기80,000원), 도미토리15,000원(조식포함)	064.738.4000	서귀포시 하원동 1697
	신진민박	30,000원(성수기40,000원), 도미토리15,000원 ▼ 25,000원(성수기35,000원), 도미토리12,000원	010.4161.7545	서귀포시 중문동 1489-8
	큰갯물펜션	80,000원(성수기100,000원, 120,000원) ▼ 50,000원(성수기80,000원)	064.738.4554	서귀포시 대포동 2070
	팡송에래펜션	80,000원(성수기130,000원) 60,000원(성수기110,000원)	064.738.1133	서귀포시 하예동 562
	대평민박	70,000원 ▼ 40,000원	064.738.0505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820-5
9 코스	뉴제주펜션	60,000원(7월 20일~8월 20일 130,000원) ▼ 50,000원(7월 20일~8월 20일 100,000원)	011.284.0255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1077
	대정해수민박	40,000원 30,000원(해수탕 무료)	011.691.2849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9-42
	대정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 15,000원 ▼ 도미토리 13,000원	064.792.6666	
	소리민박	30,000원 25,000원	064.794.1561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448
10 코스	사이게스트하우스	펜션60,000원(1인 추가시 10,000원 추가) ▼ 10%할인, 도미토리15,000원	064.792.0042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8-1
	황금미락민박	60,000원, 10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추가 (성수기100,000원, 150,000원) ▼ 40,000원, 8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추가 (성수기80,000원, 120,000원)	064.794.6789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847-1

11
코스

송악리조트

15평(4인)70,000원.성수기100,000원
 17평(6인)90,000원.성수기130,000원
 25평(8인)130,000원.성수기230,000원
 33평(10인)160,000원.성수기270,000원
 42평(15인)200,000원.성수기350,000원
 ▼
 15평(4인)40,000원.성수기60,000원
 17평(6인)60,000원.성수기70,000원
 25평(8인)80,000원.성수기150,000원
 33평(10인)100,000원.성수기200,000원
 42평(15인)150,000원.성수기250,000원

010.6557.8586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74

고사리 김보은 할망집

1인당15,000원. 올레꾼 전용

010.9661.8364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380-10

016.794.8364

곶자왈 현순여 할망집

1인당15,000원. 올레꾼 전용

010.6660.3446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84-2

064.792.3446

생태학교
올레게스트하우스

도미토리13,000원

010.5301.2085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581-1

▼
도미토리10,000원12
코스

신도 고인옥 할망집

1인당15,000원. 올레꾼 전용

010.7382.8890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447

010.2697.8500

■식당 할인

한스(8코스)

숯불 바비큐&LIVE뷔페

064.738.7386

서귀포시 중문동 2446

점심 성인17,500원, 어린이10,500원

저녁 성인24,500원, 어린이14,500원

▼
10% 할인



숙식업체 정보

● 표기된 곳은 레스토랑 합인업체입니다.

1코스

먹을거리

승석슈퍼

종달리 소금밭 앞에 위치한 작은 슈퍼. 물이나 간단한 간식거리를 살 수 있다.

목화휴게소 064-782-4133

시흥-종달리 해안도로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곳. 도로변에서 한치와 준치를 팔려 판매한다. 커피 500원-1,000원.

시흥해녀의집 064-782-9230

전복죽과 조개죽 등이 일대 해녀들이 수확한 해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든다. 조개죽 6,000원.

수마포 해변 해녀 노점

오후에는 해녀들이 그날 수확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판다. 전복, 해삼, 멍게, 소라, 문어 등 싱싱한 해산물을 소주 한잔에 곁들일 수 있는 곳. 수마포 해변 초입에서 만날 수 있다.

광치기 해산물촌

성게칼국수, 전복죽 등의 식사와 싱싱한 해물 모듬이 먹을 만하다. 1코스 중점이자 2코스 출발점인 광치기 해변에 위치.

백기해녀의집 064-782-0673, 016-695-4633, 010-3055-9448

성게국, 전복죽, 해산물회가 일품이다. 전복죽과 해삼물회 10,000원, 성게칼국수 6,000원. 1코스 중점에서 십자코지 방면으로 가는 길에 있다.

잘 만한 곳

● 강태여 할망집 010-7755-2948

● 오신생 할망집 016-9838-4773

● 오기옥 할망집 016-689-2307

● 감병희 이장집 011-691-3278

서귀포시에서 컬러테라피를 적용해 벽지를 바르고 장판도 새로 깔아주어 깔끔하다. 침구 역시 컬러테라피에 맞춰 새로 들였다. 내 몸에 맞는 컬러로 꾸민 방에서 자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한다.

● 라카사인펜션 064-782-0399

종달-시흥해안도로 중간에 있는 시흥해녀의 집에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숙소이다. 방은 8평(4명 수용, 4만

원), 10평(4~5명 수용, 6만원), 18평(10명 수용, 10만원)의 세 가지 타입이고 모두 침대가 놓여 있다. 올레꾼 합인적용가격.

● 블루씨펜션 064-784-5266

시흥해안도로 해녀의집 남쪽에 위치. 방에는 모두 침대가 놓여 있고 11평짜리 2인실은 40,000원, 15평짜리 4인실은 70,000원이다(비수기 기준). 올레꾼 합인적용가격.

● 쉼터민박 064-784-1668, 011-692-1438

성산항에 자리한 민박집. 2명이 잘 수 있는 7평은 30,000원, 4명까지 이용 가능한 12평은 40,000원이다. 모두 침대가 놓여 있다. 올레꾼 10% 할인.

웅궁민박 064-782-2379

성산일출봉 주차장 인근에 있다. 1코스 중점에 가까운 숙소이다. 5명에서 8명을 수용하는 온돌방과 4명을 수용하는 침대방이 마련돼 있다. 가격은 기본 2인 에 25,000원이고 1인 추가시 5,000원을 더 받는다(비수기 기준).

성산 한방 찜질방 064-782-5552

24평짜리 작은 한방 찜질방이지만 샤워장 타일만 빼놓고는 모두 황토로 지은 건강 찜질방이다. 성산읍 고성리 성산중학교 앞에 있다. 2코스 홍마트에서 200m 거리. 7,000원.

● 초롱민박 011-691-4580, 064-782-4589

우도 출신 해녀 아내와 남편이 운영하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민박집. 성산초등학교 앞에서 3분 거리에 있다. 1인 20,000원, 2인은 25,000원이며 1인 추가시 5,000원을 더 받는다. 한 방에 5명까지 잘 수 있다. 아침식사 5,000원.

성산포빌리지 064-784-8940

1코스 중점인 광치기에서 일출봉 방향으로 대로를 따라 5분 거리에 있다. 성산포에서는 비교적 최근 지은 펜션이다. 2인 기준으로 30,000원을 받고, 1명 추가될 때마다 5,000원을 더 받는다. 올레꾼 합인적용가격.

1-1코스

먹을거리

일해횃집 064-782-5204

홍조단괴해빈 해수욕장 근처. 뚝배기 8,000원, 생선회 80,000원(3~4인분)

해와달 그리고 섬식당 064-784-0941

비양도 입구 근처. 뚝배기 8,000원, 조림류(칼치, 우럭, 고등어) 10,000원, 우럭지리 10,000원. 우럭지리가 특히 일품이다.

동굴밥상 064-784-6678

검멀레해수욕장 근처. 성게국 6,000원, 매운탕 7,000원

우도반점 064-783-1117

중앙동 우도면사무소 근처. 해물짜장 5,000원

등머늘먹고네 064-783-1071

천진항 입구. 김치찌개 5,000원, 조림 15,000원
~20,000원(3~4인 기준)

잘만한 곳

산호풍경 064-783-3542

홍조단괴해빈 해수욕장 근처. 1인당 10,000원, 객
실당 40,000원

섬하안성 민박 064-784-4487

홍조단괴해빈 해수욕장 근처. 객실당 30,000원
~50,000원

하늘이 민박 064-783-0235

홍조단괴해빈 해수욕장 근처. 객실당 30,000원
~50,000원

동굴리조트 064-783-6678

검멀레 해수욕장 근처. 2인 1실 30,000원, 게스트하
우스 1인당 15,000원

2코스

먹을거리

아바이순대 064-784-0059

큼지막한 순대가 들어간 순대국밥을 착한 가격으
로 맛볼 수 있다. 점심시간인 11시부터 1시 30분
사이에는 정식도 가능하다. 순대국밥 5,000원, 순
대정식 6,000원. 광치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사
이에 위치.

동서네해장국 064-783-3773

선지해장국, 소머리해장국 등 각종 해장국을 다 잘
한다. 2코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나 고성마을 중간
에 자리하고 있다. 5,000원.

호떡분식 064-782-5816

2코스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먹을거리 집. 고성마
을 홈마트 사거리에 있다. 할머니가 각종 분식을 준
비해 내놓는다.

소라의 성 해녀식당 064-784-6363

온평리 해녀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전복죽과 물회
등을 한다. 온평포구에서 서쪽으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 전복죽 9,000원. 2인 이상 가능한 가정식
백반 1인당 5,000원.

용머리 회 수산물 064-782-5798

해산물이 싱싱하고, 특히 죽이 맛있다. 음식을 그 자
리에서 바로바로 만든다. 온평포구에 위치. 전복죽,
복지리 각각 10,000원, 황돔 kg에 40,000원.

온평리 생활개선회 식당 064-782-8689

성계를 넣은 해물 국수가 싸고도 맛있다. 해물국수
4,000원.

동지 황토마을 식당 064-782-9449

동지 황토마을 펜션 안에 있는 식당. 아침에먹는 갈치국과
북어국이 일품이다. 북어국 6,000원, 갈치국 7,000원.

잘 만한 곳

● 초롱민박 011-691-4580, 064-782-4589

우도 출신 해녀 아내와 남편이 운영하는 인심 좋기로
소문난 민박집, 성산초등학교 앞에서 3분 거리에 있
다. 1인 20,000원, 2인은 25,000원이며 1인 추가시
5,000원을 더 받는다. 한 방에 5명까지 잘 수 있다.
아침식사 5,000원.

용궁민박 064-782-2379

성산일출봉 주차장 인근에 있다. 1코스 종점에 가까
운 숙소이다. 5명에서 8명을 수용하는 온돌방과 4명
을 수용하는 침대방이 마련돼 있다. 가격은 기본 2인
에 25,000원, 1인 추가시 5,000원을 더 받는다(비수
기 기준). 올레군 할인 적용.

성산 한방 찜질방 064-782-5552

24평짜리 작은 한방 찜질방이지만 샤워장 타일만
빼놓고는 모두 황토로 지은 건강 찜질방이다. 성산
읍 고성리 성산중학교 앞에 있다. 2코스 홈마트에서
200m 거리. 7,000원.

● 동지황토마을 민박 011-698-8805

혼인지 근처에 자리한 넓직한 펜션. 게스트하우스는
1인당 15,000원. 한 방에 6~8명이 잘 수 있다. 취사
가능. 인터넷 사용 가능.

● 소라의 성 민박 064-784-6363

온평포구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2인 기준 30,000
원, 1명 추가당 5,000원씩을 더 받는다.

환이네민박 064-784-6789

성산을 고성리 298-10. 도미토리 10,000원. 아침식사가능

빌리켄찜질방 064-784-5579

성산을 고성리 917-1. 1인 7,000원

● 신춘자 할망집 010-3866-2972

3코스

먹을거리

소라의 성 해녀식당 064-784-6363

온평리 해녀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전복죽과 물회
등을 한다. 온평포구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곳
에 위치. 전복죽 9,000원. 2인 이상 가능한 가정식백
반 1인당 5,000원.

동지 황토마을 식당 064-782-9449

동지황토마을펜션 안에 있는 식당. 아침에 먹는 갈치국과 북어국이 일품이다. 북어국 6,000원, 갈치국 7,000원.

온평리 생활개선회 식당 064-782-8689

성계를 넣은 해물국수가 싸고도 맛있다. 해물국수 4,000원.

해비치 리조트 한식당 & 해비치 호텔 양식당

064-780-8000

제주의 싱싱한 해산물을 재료로 한 제주올레 메뉴를 내놓는다. 제주올레 회원에게는 커피와 차를 무료로 준다. www.haevichi.com

춘자국수 064-787-3124

멀치로 우려낸 국물 맛이 일품인 국수집. 표선사거리에서 동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 멀치국수 2,000원.

다미진 064-787-5050

음식 맛이 깔끔한 횡집. 각종 신선한 회와 회정식이 푸짐하고도 정갈하게 잘 나온다. 단품 식사도 일품이다. 표선 당케포구 인근에 위치. 돔 지리/매운탕 10,000원, 생선초밥 8,000원, 전복죽 13,000원.

장수 해장국 064-787-5667

선지해장국과 뼈해장국이 맛있다. 표선해수욕장 초입에 있고 멀지 않은 곳은 배달도 가능하다. 해장국 5,000원.

어촌 식당 064-787-0175

한치물회가 맛있고 무를 넣고 끓인 옥돔지리가 일품이다. 당케포구 먹거리 골목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한치물회, 옥돔지리 각각 8,000원.

잘 만한 곳

● **통오름 고정화 할망집 010-7474-3888**

011-757-0624

중산간 지역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마을에 위치.

● **동지황토마을 민박 011-698-8805**

혼인지 근처에 자리한 널찍한 펜션. 게스트하우스는 1인당 10,000원. 한 방에 6~8명이 잘 수 있다. 취사 가능. 인터넷 사용 가능.

● **소라의 성 민박 064-784-6363**

온평포구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2인 기준 30,000원, 1명 추가당 5,000원씩을 더 받는다.

● **해비치 호텔 & 리조트 064-780-8000, 064-780-8513**

표선해수욕장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6성급 호텔과 리조트이다. 호텔의 경우 제주올레 패키지를 판매하기도 하며, 리조트의 경우 제주올레 할인가를 적용해 준다. 제주올레 코스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올레꾼을 위해 특별히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한다. 게스트하우스 숙박료는 1인당 33,000원(올레랑 포함) www.haevichi.com

● **가원비치 민박 064-787-0063**

표선해수욕장 가까이에 위치한 민박집이다. 4명에서 8명까지 잘 수 있는 방을 5개 운영한다. 1인 25,000원, 2인 30,000원, 1인 추가시 5,000원이 더해진다. 아침식사 5,000원. 올레꾼 할인 적용.

● **세화의 집 민박 064-787-7794**

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정집 민박이다. 4코스 경로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있지만 주인장 내외의 인심이 워낙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맛 좋은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집의 매력. 간단한 주먹밥으로 점심 도시락도 싸준다. 1인 20,000원, 2인 이상 30,000원~40,000원. 아침식사 5,000원. 인터넷 가능.

4코스

먹을거리

해비치 리조트 한식당 & 해비치 호텔 양식당

064-780-8000

제주의 싱싱한 해산물을 재료로 한 제주올레 메뉴를 내놓는다. 제주올레 회원에게는 커피와 차를 무료로 준다. www.haevichi.com

춘자국수 064-787-3124

멀치로 우려낸 국물 맛이 일품인 국수집. 표선사거리에서 동쪽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 멀치국수 2,000원.

다미진 064-787-5050

음식 맛이 깔끔한 횡집. 각종 신선한 회와 회정식이 푸짐하고도 정갈하게 잘 나온다. 단품 식사도 일품이다. 표선 당케포구 인근에 위치. 돔 지리/매운탕 10,000원, 생선초밥 8,000원, 전복죽 13,000원.

장수 해장국 064-787-5667

선지해장국과 뼈해장국이 맛있다. 표선해수욕장 초입에 있고 멀지 않은 곳은 배달도 가능하다. 해장국 5,000원.

어촌 식당 064-787-0175

한치물회가 맛있고 무를 넣고 끓인 옥돔지리가 일품이다. 당케포구 먹거리 골목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한치물회, 옥돔지리 각각 8,000원.

남쪽나라 횡집 064-787-5556

어선에서 잡아오는 싱싱한 활어회와 해녀들이 따온 해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토산리 사인빌 리조트 인근에 위치. 해물뚝배기 7,000원.

남원 범일분식 064-764-5069

이 일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물 순대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새벽 4시부터 순대를 직접 만든다. 순대국에 들깨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 포구 윗길 패밀리마트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200m 직진하면 있다. 순대국밥 5,000원.

마당갈비 식당 064-764-5989

메밀과 무를 넣고 끓인 돼지고기국으로 유명하다. 남원사거리에 위치. 돼지고기국 5,000원.

잘 만한 곳

●가원비치 민박 064-787-0063

표선해수욕장 가까이에 위치한 민박집이다. 4명에서 8명까지 잘 수 있는 방을 5개 운영한다. 1인 25,000원, 2인 30,000원, 1인 추가시 5,000원이 더해진다. 아침식사 5,000원. 인터넷 가능. 올레꾼 할인 적용.

●해비치 호텔 & 리조트 064-780-8000

064-780-8513

표선해수욕장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6성급 호텔과 리조트이다. 호텔의 경우 제주올레 패키지를 판매하기도 하며, 리조트의 경우 제주올레 할인가를 적용해 준다. 제주올레 코스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올레꾼을 위해 특별히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한다. 게스트하우스 숙박료는 1인당 3만3천원(올레빵 포함)www.haevichi.com

와하하게스트하우스 064-787-4948

도보 여행자를 위한 전용 숙소. 도미토리 형식은 1인당 15,000원, 2인실은 1박만 할 경우 40,000원, 2박 이상 머물면 1박당 30,000원을 받는다. 4인실은 1박만 하면 60,000원, 2박 이상 머물면 1박에 50,000원이다. 취사를 할 수 있고, 인터넷도 가능하다. 표선해수욕장에서 서쪽으로 3km 떨어진 곳에 위치.

●세화의 집 민박 064-787-7794

여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가정집 민박이다. 4코스 경로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있지만 주인장 내외의 인심이 워낙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맛 좋은 아침식사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집의 매력. 간단한 주먹밥으로 점심 도시락도 싸준다. 1인 20,000원, 2인 이상 30,000~40,000원. 아침식사 5,000원. 인터넷 가능.

해안가 민박 064-764-0310

남원포구 정면에 자리한 민박집이다. 방에는 침대가 놓여 있고, 한 방에 5명에서 7명까지 잘 수 있다. 가격은 40,000~50,000원이다. 취사 가능.

5코스

먹거리

남원 범일분식 064-764-5069

이 일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물 순대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새벽 4시부터 순대를 직접 만든다. 순대국에 들깨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특징. 포구 뒷길 패밀리마트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200여m 직진하면 있다. 순대국밥 5,000원.

마당 갈비 식당 064-764-5989

메밀과 무를 넣고 끓인 돼지고기국으로 유명하다. 남원사거리에 위치. 돼지고기국 5,000원.

수악관 064-764-2267

위미마을에 있는 중국집이다. 자장면 3,500원, 짬뽕 4,000원.

황금분식 064-764-7896

위미마을 킹마트 앞에 있는 분식집이다. 봉어빵, 핫도그, 김밥, 국수 등을 판다.

공천포 식당 064-767-2425

'올레 주방장'이 추천하는 물횡집. 된장과 고춧가루를 넣은 제주도식 물회로 유명하다. 공천포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다. 한치물회 5,000원. 소라물회 6,000원.

아서원 064-767-3130

제주도 전역에 소문난 '해물짬뽕'집. 계와 오징어가 푸짐하게 들어가고, 국물이 시원하다. 탕수육도 양이 많고 맛있다. 5코스 종점 쇠소깍에서 효돈 방향으로 15분 정도 걸어가면 찾을 수 있다. 짬뽕 4,000원.

지귀도 섬마을 횡집 064-764-7177

남원을 위미리 2937-2. 횡뎡밥 5,000원. 고등어 조림 15,000원

잘 만한 곳

●영동 현동순 할망집 010-5696-3666

010-6698-0539

신례2리 사무소 지나서 올레길로 50m쯤 가면 붉은 벽돌색의 삼각형 지붕이 3개 있는 집.

●티파니에서 아침을 064-764-9669

남원포구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자리한 통나무로 지은 펜션이다. 2인실부터 8인실까지 구비되어 있으며, 2인실을 제외하고는 취사도 가능하다. 가격은 70,000원~140,000원으로 올레꾼은 30% 할인해 준다. 아침식사 제공. 인터넷 가능.

●금호리조트 064-766-8000

남원 큰영 경승지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이다. 올레꾼 할인 적용. www.kumhoresort.co.kr

쇠소깍 민박 064-767-2900

쇠소깍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1인~3인까지 3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이 추가된다. 올레꾼 할인 적용. 취사 가능.

검은돌펜션 010-9301-1072

남원을 신례리 273-5. 도미토리 13,000원 15평(4인) 비수기 50,000원. 성수기 70,000원

6코스

먹을거리

보목포구 돌하르방 횡집

보말이 푸짐하게 들어가고 청양고추를 넣어 매콤한 보말국이 일품이다. 보말국 6,000원, 자리물회 7,000원.

보목리 물횡집들

보목포구 근처에는 어진이네 식당, 해녀의 집 등 자리물회와 한치물회를 잘하는 집들이 즐비하다.

보목포구 옆 해녀식당 064-732-3177

해녀들이 직접 운영하는 보목어촌계 식당이다. 반찬이 깔끔하고 맛있다. 보목포구 옆에 위치. 생게칼국수 5,000원.

맷돌뚝배기 064-762-3368

서북전시관 바로 지나서 위치한다. 해물뚝배기 8,000원, 갈치 조림/구이 등 토속음식이 유명하다.

안거리 뽕가리 064-763-2552

고령우 화백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이중섭 미술관 아래쪽에 있다. 옥돔구이와 15가지 반찬을 곁들인 보리밥 정식이 1인분에 6,000원이다. 보리밥 정식은 2인분 이상만 가능하고, 혼자 걷는 올레꾼은 비빔밥을 먹어야 한다.

새섬갈비 064-732-4001

맛 좋고 양도 푸짐한 돼지갈비집이다. 흑돼지오겹살 맛도 일품이다. 서귀포 천지연폭포 건너편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돼지갈비 1인분 11,000원, 흑돼지 오겹살 13,000원.

덕성원 064-762-2402

서귀포에서 이름난 중식당 중 하나인 덕성원은 화교 출신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곳이다. 자장면도 맛있지만 꽃게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내놓는 게짬뽕은 서귀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이다. 본점은 제6코스 서귀포 천주교 성당 맞은 편에 있고, 중문점(064-738-0750)은 중문초등학교 사거리에 있다. 게짬뽕 6,000원.

서울감자탕 064-733-2611

감자탕과 해물탕이 절묘하게 만난 해물감자탕이 맛있는 집이다. 싱싱한 새우와 딱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 푸짐하게 들어간 해물감자탕은 육지에서 맛보기 힘든 별미. 해물감자탕 소 22,000원.

희신이네식당 064-762-0335

닭을 재료로 한 다양한 음식이 있는 식당이다. 서귀포 중앙로터리(일호광장) 메트로빌딩 동쪽에 위치. 닭곰탕 4,000원, 닭밀면 4,000원, 닭내장탕 4,000원, 닭 팔코스 25,000원.

제주할망뚝배기 064-733-9934

서귀포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맛집. 서귀포항 해군기지 맞은편 횡집이 즐비한 골목에 있다. 국물이 시원하면

서도 고소한 갈치국과 오분자기뚝배기를 잘한다. 갈치국 7,000원, 오분자기뚝배기 8,000원.

우정횡집 064-733-8522

제주 자연산 활어만 취급하는 횡집이다. 서귀포 일호광장 뒤편에 있다. 세 명이 50,000원에 식사와 매운탕까지 포함해서 회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

전원일기 064-762-5630

제주산 흑돼지를 삶아 싱싱한 야채와 내놓는 쌈밥 전문점이다. 야채를 비닐하우스 재배지에 직접 가서 따오기 때문에 싱싱하고 맛있다. 1인분 6,000원.

사방팔방횡집 064-732-6156

예약 010-8360-3388

제주에서는 놀레기를 어랭이라고 부른다. 회, 물회, 조림, 튀김까지 어랭이를 다양한 전통 방식으로 요리하는 집이다. 오후 5시에 문을 연다. 어랭이회 30,000원.

서귀포갈비 064-762-2323

돼지갈비가 맛있는 집이다. 동홍동 평생학습센터 앞, 소방서 옆에 있다. 돼지갈비 1대 3,500원, 1인분(3대) 10,500원.

고향생각 064-733-6009

서귀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고기국수집 중 하나. 동문로터리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30m쯤 가면 있다. 멸치국수도 판다. 고기국수 4,500원.

용이식당 064-732-7892

서귀포 중앙로터리(1호 광장) 터미널 남쪽에 위치한다. 돼지두루치기가 일품. 5,000원

미루나무 064-763-6248

이중섭 생가 바로 아래에 있는 갤러리 카페. 제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한다. 동화작가가 운영하는 운치 있는 문화공간이다. 올레꾼은 차값 20% 할인.

송정미향 064-763-5775

서귀동 71-9. 갈치조림 15,000원. 흑돼지구이 12,000원

이어도해물요리전문점 064-733-0645

동홍동 393-9. 전복해물탕(小) 25,000원. 해물찜(小) 25,000원

조림명가 064-767-8562

천지동 311-5. 갈치국 8,000원. 갈치조림 25,000원. 해물뚝배기 10,000원. 정식 6,000원

잘 만한 곳

● **숨쉴 오영자할망집 016-9606-3600, 064-733-3910**
보목 신협 인근에 위치.

● **제주풍림리조트 064-739-9001**

강정교 옆에 자리 잡은 운치 있는 리조트. 정원에 바닷가우체국이라고 쓰인 나무로 만든 예쁜 빨간 우체

통이 있는데, 엽서를 써 넣으면 매일 수거해 발송해준다. 로비에는 올레꾼들이 서로서로 필요한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물품 나눔터가 있다. 올레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별도로 운영한다. 간단한 아침식사를 포함한 게스트하우스 이용 가격은 1인당 20,000원. 일반 객실 올레꾼 할인 가능. 품림리조트에서 출발해 6코스 출발지인 쇠소각, 9코스 종착지인 화순항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하루 세 차례 운행한다.

● 애순이네 민박 011-600-3316

서귀포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정식 민박집이다. 서귀포에서 음식 솜씨 좋고 인심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서귀포 아케이드 상가가 가까워 재래시장을 구경하기에 좋고 어떤 코스로도 이동이 편리하다. 맛 좋고 푸짐한 아침상을 받을 수 있다. 여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15,000원. 아침식사 5,000원.

● 민중각 여관 064-763-0501

올레꾼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형 숙소로 운영하는 인기 숙소. 투숙객 상황에 따라 최대 다섯 사람까지 한 방을 쓸 수도 있다. 1인당 10,000원. 방을 따로 쓰려면 25,000원~30,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서귀포시의 중심인 1호광장(중앙로터리) 인근에 위치.

● 워터월드 찜질방 064-739-1930

서귀포 워터컵경기장 내에 있는 해수사우나 찜질방이다. 바로 옆에 신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어떤 코스로도 쉽게 갈 수 있다. 해수사우나 5,000원, 찜질방 7,000원.

● 건강나라 찜질방 064-732-5300

서귀포 시내에 있는 찜질방. 빨래가 가능하다. 7,000원.

● 호도하우스 064-739-1152

법환포구-범섬 바다 산책길 사이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8평부터 23평까지 네 가지 타입의 객실이 있고, 이용 금액은 비수기 기준으로 70,000원에서 150,000원까지다. 올레꾼은 20,000원(23평형은 30,000원)을 할인해준다.

● 유로리조트 064-763-1003

올레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간단한 아침식사를 포함해 1인당 20,000원. 서귀포 KAL호텔에서 보목동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www.epclub.co.kr

● 대국아일린호텔 064-763-0002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깔끔한 중급 호텔.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방 값은 아침밥 포함해 50,000원(2인 기준)부터 시작한다. 올레꾼 할인 적용

● 제주 크리스탈호텔 064-732-8311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깨끗한 중급 호텔.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방 값은 아침밥 포함해 60,000원(2인 기준)부터 시작한다. 올레꾼 할인 적용

● 뉴서울모텔 064-732-8814

서귀포항 가까이 있는 모텔.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한다. 25,000원, 게스트하우스 10,000원.

● 제주하늘정원 011-693-6044

보목동 1239-1. 2인 50,000원. 6인 80,000원

● 포시즌펜션 064-732-5222

도평동 636

7코스

먹을거리

● 새섬갈비 064-732-4001

맛 좋고 양도 푸짐한 돼지갈비집이다. 흑돼지오겹살 맛도 일품이다. 서귀포 천지연폭포 건너편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돼지갈비 1인분 11,000원, 흑돼지 오겹살 13,000원.

● 막숙집 064-739-1234

법환포구에 있는 맛집. 회도 좋지만 어네장탕, 성게국, 갈치조림, 물회 등이 맛있기로 소문난 집이다. 어네장탕 6,000원, 성게국 8,000원, 갈치조림 8,000원, 쥐치물회 10,000원, 자리물회 6,000원.

● 법환리 포구식당 064-739-2987-8

법환포구 바로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갈치조림, 자리물회, 한치 물회를 잘한다. 윗층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민박도 운영한다. 갈치조림 소(3인분) 24,000원, 자리물회/한치물회 7,000원.

● 동환식당 064-739-8644

법환포구 인근에 있는 저렴한 맛집. 돼지고기 김치찌개 5,000원, 목구 5,000원, 뚝배기 7,000원, 갈치구 7,000원.

● 제주 품림리조트 064-739-9001

다양한 메뉴로 차린 점심 뷔페를 7,000원에 맛볼 수 있다. 수요일~일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올레 정식을 내놓는다.

● 물집식육식당

강정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식육식당. 이 집의 인기 메뉴는 돼지고기 짬뽕이다. 4,000원.

● 강정 해녀의 집 064-739-0772

해녀들이 갓 따온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내놓는다. 강정포구 옆에 위치. 성게칼국수 6,000원, 갯이(작은 게)죽 7,000원, 성게물회 8,000원.

● 서귀포 아케이드 상가

서귀포에서 가장 큰 상설시장으로 싱싱한 해산물과 농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개폐식 지붕을 갖추고 있어 비오는 날에도 쇼핑이 가능하며, 서귀포 서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서귀포 동명백화점 사거리에 위치.

서귀포 오일장

토산물과 먹거리 등 제주와 관련된 것이라면 없는 것이 없다. 시장 한 귀퉁이에는 할머니들이 손수 가꾼 채소를 내다파는 '할망시장'도 열린다. 많은 먹물 거리가 있지만 특히 '눌부네 순대국밥'이 유명하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토평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매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잘 만한 곳

● 민중각 여관 064-763-0501

올레꾼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인기 숙소. 투숙객 상황에 따라 최대 다섯 사람까지 한 방을 쓸 수도 있다. 1인당 10,000원. 방을 따로 쓰려면 25,000원~30,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서귀포시의 중심인 일호광장(중앙로터리) 인근에 위치.

● 제주풍림리조트 064-739-9001

강정고 옆에 자리 잡은 운치 있는 리조트. 정원에 바닷가우체국이라고 쓰인 나무로 만든 예쁜 빨간 우체통이 있는데, 엽서를 써 넣으면 매일 수거해 발송해준다. 로비에는 올레꾼들이 서로서로 필요한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물품 나눔터가 있다. 올레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별도로 운영한다. 간단한 아침식사를 포함한 게스트하우스 이용 가격은 1인당 20,000원. 일반객실 올레꾼 할인 가능. 풍림리조트에서 출발해 6코스 출발지인 쇠소깍, 9코스 종착지인 화순항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하루 세 차례 운행한다.

● 애순이네 민박 011-600-3316

서귀포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정식 민박집이다. 서귀포에서 음식 솜씨 좋고 인심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서귀포 아케이드 상가가 가까워 재래시장을 구경하기에 좋고 어떤 코스로든 이동이 편리하다. 맛 좋고 푸짐한 아침상을 받을 수 있다. 여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15,000원. 아침식사 5,000원.

● 워터월드 찜질방 064-739-1930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해수사우나 찜질방이다. 바로 옆에 신서귀포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어떤 코스로도 쉽게 갈 수 있다. 해수사우나 5,000원, 찜질방 7,000원.

● 호도하우스 064-739-1152

법환포구-범섬 바다 산책길 사이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8평부터 23평까지 네 가지 타입의 객실이 있고, 이용금액은 비수기 기준으로 70,000원에서 150,000원까지다. 올레꾼은 20,000원(23평형은 30,000원)을 할인해준다.

유로리조트 064-763-1003

올레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간단한 아침식사를 포함해 1인당 20,000원. 서귀포 KAL 호텔에서 서보목동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www.epclub.co.kr

유러하우스 064-739-2522, 011-9660-5023

서귀포의 남쪽 바다와 범섬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자리한 전망이 좋은 펜션이다. 방은 크기에 따라 3가지 타입이 있으며, 가장 작은 방을 제외하고는 취사가 가능하다. 방에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법환포구 인근에 위치. 이용 요금은 제주올레 할인가로 40,000원부터 120,000원까지이다. www.eurohouse.co.kr

● 대국아일랜드 호텔 064-763-0002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깔끔한 중급 호텔.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방 값은 아침밥 포함해 50,000원(2인 기준)부터 시작한다. 올레꾼 할인 적용.

● 제주크리스탈호텔 064-732-8311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깨끗한 중급 호텔.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방 값은 아침밥 포함해 60,000원(2인 기준)부터 시작한다. 올레꾼 할인 적용.

바닷가리조트 064-739-2023

돔베낭길 끝나는 지점에 위치한 전망 좋은 펜션. 올레꾼 할인 적용. 올레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한다. 게스트하우스는 1인당 15,000원.

● 뉴서울모텔 064-732-8814

서귀포항 가까이 있는 모텔.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한다. 25,000원, 게스트하우스 10,000원.

강정씨빌리지 010-3639-3099

4인 60,000원

● 드레피아 011-691-5848

하원동 1496-1. 2인 40,000원. 도미토리 15,000원

7-1코스

먹물거리

동환식당 064-739-8644

인근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다. 양이 푸짐하고 맛도 좋은데, 특히 돼지고기를 푸짐하게 썰어 넣은 김치찌개는 정겨운 시골의 맛이다. 법환포구 근처에 있다. 고메기(보말)국 5,000원, 김치찌개 5,000원, 몸국 5,000원, 육뽕지리 7,000원.

남호식당 064-739-8375

돼지뼈를 이용해서 만든 제주 전통 보양식, 족탕을 맛볼 수 있는 집이다. 월드컵경기장 건너 큰길로 고근산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있다. 족탕 10,000원, 우럭매운탕 7,000원.

고근산 식당 064-739-6020

고기국수와 몸국을 맛있게 한다. 월드컵경기장 건너편 고근산 올라가는 길에 있다. 돔베고기 20,000원, 몸국 5,000원, 쌈밥정식 6,000원, 고기국수 4,500원.

수원해장국 064-739-7677

시원한 해장국을 전문으로 하는 집. 월드컵경기장 건너편 고근산 올라가는 길에 있다. 소머리해장국, 선지해장국, 콩나물국밥이 각각 5,000원씩.

법환리 포구식당 064-739-2987-8

법환포구 바로 앞에 있는 식당으로 갈치조림, 자리물회, 한치물회를 잘한다. 윗층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민박도 운영한다. 갈치조림 소(3인분) 24,000원, 자리물회/한치물회 7,000원,

제주풍림리조트 064-739-9001

다양한 메뉴로 차린 점심 뷔페를 7,000원에 맞출 수 있다. 수요일~일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올레 정식을 내놓는다.

서귀포 아케이드 상가

서귀포에서 가장 큰 상설시장으로 싱싱한 해산물과 농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개폐식 지붕을 갖추고 있어 비오는 날에도 쇼핑이 가능하며, 서귀포 서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서귀포 동명백화점 사거리에 위치.

서귀포 오일장

토산물과 먹을거리 등 제주와 관련된 것이라면 없는 것이 없다. 시장 한 귀퉁이에는 할머니들이 손수 가꾼 채소를 내다파는 ‘할망시장’도 열린다. 많은 먹을거리가 있지만 특히 ‘놀부네 순대국밥’이 유명하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토평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매 4일과 9일에 장이 선다.

국수나 국밥이나 064-739-3382

국수도 맛있고 따로국밥도 맛있어서 이름처럼 무얼 먹을까 고민이 되는 집이다. 신서귀포 김정 문화회관 앞에 있다. 고기국수 4,500원, 순대국밥, /고기국밥 /뭇국 각각 5,000원.

막동산 식당 064-739-9233

가정식 백반 정식 5,000원, 돼지고기 연탄구이 8,000원(1인분 기준)

신천지 식당 064-739-8282

가정식 백반정식 5,000원, 삼겹살 8,000원(1인분 기준)

솔윗동산 064-739-2026

가정식 백반정식 5,000원, 삼겹살 8,000원(1인분 기준)

토계촌 064-739-7281

삼계탕 10,000원, 뚝배기 10,000원

잘 만한 곳

● 민중각 여관 064-763-0501

올레꾼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형 숙소로 운영하는 인기 숙소. 투숙객 상황에 따라 최대 다섯 사람까지

한 방을 쓸 수도 있다. 1인당 10,000원. 방을 따로 쓰려면 25,000원~30,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서귀포시의 중심인 일호광장(중앙로터리) 인근에 위치.

● 애순이네 민박 011-600-3316

서귀포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정식 민박집이다. 서귀포에서 음식 솜씨 좋고 인심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서귀포 아케이드 상가가 가까워 재래시장을 구경하기에 좋고 어떤 코스로든 이동이 편리하다. 맛 좋고 푸짐한 아침상을 받을 수 있다. 여자들만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15,000원. 아침식사 5,000원.

유로리조트 064-763-1003

올레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 간단한 아침식사를 포함해 1인당 20,000원. 서귀포 KAL 호텔에서 보목동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www.epclub.co.kr

● 호도하우스 064-739-1152

법환포구-범섬 바다 산책길 사이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다. 8평부터 23평까지 네 가지 타입의 객실이 있고, 이용 금액은 비수기 기준으로 70,000원에서 150,000원까지다. 올레꾼은 20,000원(23평형은 30,000원)을 할인해준다.

워터월드 찜질방 064-739-1930

서귀포월드컵경기장내에 있는 해수사우나찜질방이다. 바로 옆에 신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서 어떤 코스로도 쉽게 갈 수 있다. 해수사우나 5,000원, 찜질방 7,000원.

● 제주풍림리조트 064-739-9001

강정고 옆에 자리 잡은 운치 있는 리조트. 정원에 바닷가우체국이라고 쓰인 나무로 만든 예쁜 빨간 우체통이 있는데, 엽서를 써 넣으면 매일 수거해 발송해준다. 로비에는 올레꾼들이 서로서로 필요한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물품 나눔터가 있다. 올레꾼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별도로 운영한다. 간단한 아침식사를 포함한 게스트하우스 이용 가격은 1인당 20,000원. 일반 객실 올레꾼 할인 가능. 풍림리조트에서 출발해 6코스 출발지인 쇠소깍, 9코스 종착지인 화순항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하루 세 차례 운행한다.

여행스캐치 010-4691-7815

중문관광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펜션이다. 가격은 40,000원, 혼자일 경우에는 30,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픽업서비스 가능.

8코스

먹을거리

나성빵집

도너츠, 만두, 찐빵, 보리빵, 갈국수 등을 파는 집. 중문우체국 앞에서 왼쪽을 보면 찾을 수 있다.

씨에스호텔 한식당 천제연 064-735-3000

제주의 전통 초가 모양으로 지은 씨에스호텔 내에 있는 한식당. 서귀포 은갈치조림, 제주 고등어김치조림 등의 메뉴가 있다.

덕성원 중문점 064-738-0750

서귀포에서 이름난 중식당 중 하나인 덕성원은 화교 출신 아버지에 이어 아들이 대를 이어 운영하는 곳이다. 자랑면도 맛있지만 꽃게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내놓는 게짬뽕은 서귀포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이다. 중문점은 중문초등학교 사거리 에 있고, 본점(064-762-2402)은 제6코스 서귀 포 천주교 성당 맞은편에 있다. 게짬뽕 6,000원.

사해방 064-738-2262

중문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중식당이다. 쟁 반자장 소 10,000원, 자장면 3,500원.

외갓집 정식 064-739-9358

중문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에 있는 한식집. 정식 5,000원, 황태해장국 5,000원, 황태짬 10,000원.

색달 해녀의 집

한접시 10,000원에 해녀들이 직접 잡은 갯가지 해산 물을 세트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올레지기들의 '참 새방앗간'이기도 하다. 중문해수욕장 입구에 있다.

해녀식당 064-738-8818, 010-3188-3043

대평포구 옆에 자리한 맛 좋고 저렴한 식당. 싱싱한 회와 해산물도 판매한다. 정식 5,000원.

보리솔 식당 064-738-3466

지역민들에게 인기 있는 숨은 맛집이다. 제주산 생물 재료만을 고집한다. 예래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위치. 정식 5,000원, 생갈비 김치전골 20,000원(3인 기준), 해물탕 20,000원(3인 기준).

대평리 용왕난드르 064-738-0915

대평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싱싱한 미역과 직접 잡은 보말(바다고둥)로 만든 보말복차수제비가 대표 메뉴. 강된장비빔밥도 건강 식으로 인기가. 보말복차수제비 5,000원.

레드브라운 064-738-8288

바리스타인 주인이 커피콩을 직접 볶는 카페. 커피 콩을 미리 갈아놓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 때 갈아서 핸드 드립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향이 살아 있는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꾸민 인테리어가 사랑스럽고, 박수기정과 대평포구를 향해 난 테라스에 앉아서 보는 노을이 멋지다. 대평포구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수요일은 쉼. 레드브라운 커피 5,000원, 스파게티 9,000원, 볶음밥 6,000원, 문어볶음밥 7,000원.

물고기카페 070-8147-0804

장선우감독이 운영하는 카페. 제주의 돌집을 모던한스타일의 카페로 개조했다. 대평리 바닷가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당에서 마늘밭과 바다가 보인다. 월요일엔 문을 닫는다.

ونه해치집 064-738-6000

대포동 2367-1

히집 바다목장 064-738-6699

하예동 452-2. 성게미역국 5,000원. 초밥 8,000원. 고등어 구이 10,000원

잘 만한 곳

씨니데이 제주 064-738-1999

대포포구 근처에 시원하게 자리잡은 통나무집 펜션이다. 사전 예약은 필수. 예약시 제주올레 회원이라고 미리 얘기해야 올레꾼 할인 가격이 적용된다. 모든 방에는 침대가 놓여 있고 방에서 취사와 인터넷이 가능하다. 70,000원~100,000원(올레꾼 할인 적용 가격).

하안도화지 011-693-0411

바다 속에서 맑고 시원한 용천수가 솟아나는 논짓물과 반딧불이 보호지역이 있는 예래생태마을에 위치한 민박집이다. 1층 가정집 민박은 1박에 20,000원, 2층 원룸형 방은 40,000원~70,000원이다. 취사가 가능. 인터넷 가능. www.hayandohwaji.com

큰갯물펜션 064-738-4554

대포항에 위치한 펜션이다. 모든 방에 침대가 있고 4인까지 잘 수 있다. 80,000원. 올레꾼은 할인해 준다. 취사 가능.

광송예래펜션 064-738-1133, 019-611-8002

논짓물 근처 바닷가에 자리 잡은 펜션. 2인 기준 6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을 더 받는다(올레꾼 할인 적용 가격). 취사 가능. 아침식사-목욕구이 정식/전복죽 8,000원.

대평(슈퍼)민박 064-738-0505

대평리 마을 안에 있는 민박집이다. 2인 기준 4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을 더 받는다(올레꾼 할인 적용 가격). 취사 가능. 인터넷 일부 가능.

아리랑펜션 063-738-7773

하예동 20-5. 2인 50,000원

해라의 성 064-738-9490

색달동 2468. 2인(9평) 40,000원

9코스

먹을거리

대평리 용왕난드르 064-738-0915

대평리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싱싱한 미역과 직접 잡은 보말(바다고둥)로 만든

보말녹차수제비가 대표 메뉴. 강원장비빔밥도 건강식으로 인기다. 보말녹차수제비 5,000원.

해녀식당 064-738-8818, 010-3188-3043

대평포구 옆에 자리한 맛 좋고 저렴한 식당. 싱싱한 회와 해산물도 판매한다. 정식 5,000원.

레드브라운 064-738-8288

바리스타인 주인이 커피콩을 직접 볶는 카페. 커피콩을 미리 갈아놓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갈아서 핸드 드립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향이 살아 있는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아기가기한 소품으로 꾸민 인테리어가 사랑스럽고, 박수기정과 대평포구를 향해 난데라스에 앉아서 보는 노을이 멋지다. 대평포구 옆에 자리 잡고 있다. 수요일은 쉰다. 레드브라운 커피 5,000원, 스파게티 9,000원, 볶음밥 6,000원, 문어볶음밥 7,000원.

물고기카페 070-8147-0804

장선우 감독이 운영하는 카페. 제주의 돌집을 모던한 스타일의 카페로 개조했다. 대평리 바닷가 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당에서 마늘밭과 바다가 보인다. 월요일엔 문을 닫는다.

송도식당 064-794-9408

텃밭에서 키운 야채를 넣은 보리비빔밥이 맛있다. 자리것을 비롯한 밀반찬도 깔끔하다. 가세기 마을 올레 끝나는 길 건너에 있다. 보리비빔밥 6,000원, 열무국수/고기국수 4,500원.

황금미락 064-794-6789

화순해수욕장 앞에 위치. 고등어회정식이 일품이다. 값 30,000원/50,000원, 해물정식 8,000원

바당올레횃집 064-794-8558

안덕면 화순리 776-5. 정식10,000원. 오분작뜰배기 12,000원

잘 만한 곳

대동민박 용양난드르마을 064-738-0915

사무장 011-9663-7801,

대동민박 안주인 010-4012-5461

대평리에 위치한 민박집이다. 12명까지 잘 수 있는 온돌방이다. 1인 25,000원~30,000원, 2인 40,000원에 1인 추가시 10,000원이 추가된다. 아침식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취사 가능, 인터넷 가능.

● 뉴제주펜션 011-284-0255

중문관광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군산 중턱에 자리 잡은 펜션이다. 10평형 50,000원, 20평형 80,000원, 30평형 120,000원. 올레코는 할인해 준다. 취사 가능. www.newjejupension.co.kr

● 대평(슈퍼)민박 064-738-0505

대평리 마을 안에 있는 민박집이다. 2인 기준 4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을 더 받는다(올레코 할인 적용 가격). 취사 가능, 인터넷 일부 가능.

● 소라민박 064-794-1561

화순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민박집이다. 각 방에 샤워실이 갖춰져 있고, 취사는 공동 취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2인 25,000원, 3인 30,000원(올레코 할인 적용 가격).

● 황금미락민박 064-794-6789

2인 1실 40,000 1인 추가 10,000원

10코스

먹거리

송도식당 064-794-9408

텃밭에서 키운 야채를 넣은 보리비빔밥이 맛있다. 자리것을 비롯한 밀반찬도 깔끔하다. 가세기 마을 올레 끝나는 길 건너에 있다. 보리비빔밥 6,000원, 열무국수/고기국수 4,500원.

황금미락 064-794-6789

화순해수욕장 앞에 위치. 고등어회정식이 일품이다. 값 30,000원/50,000원, 해물정식 8,000원

화순반점 064-794-1157

화순해수욕장 일대에서 단시간에 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장면 맛도 괜찮은 편이다. 밖에서 시켜먹을 경우 쓰레기를 반드시 잘 치우고 떠날 것.

상도 해녀의 집 010-5270-6116

해녀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성게보말갈국수와 전복죽, 해물모듬이 일품이다. 송악산을 지나 해안도로에 위치해 있다. 성게보말갈국수 5,000원, 전복죽 8,000원, 해물모듬 15,000원.

산방식당 064-794-2165

모슬포 시내 상설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밀면은 양 많고 가격도 저렴한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다. 밀면 4,000원, 수육 5,000원/8,000원.

잘 만한 곳

● 소라민박 064-794-1561

화순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민박집이다. 각 방에 샤워실이 갖춰져 있고, 취사는 공동 취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2인 25,000원, 3인 30,000원(올레코 할인 적용 가격).

● 황금미락민박 064-794-6789

화순해수욕장 앞에 위치. 2인 1실 40,000 1인 추가 10,000원.

멜레코그빌 064-792-3636

하모해수욕장 옆에 자리 잡은 통나무로 지은 펜션.

12평부터 35평까지 5가지 타입의 객실이 있다. 가격은 비수기 주말 기준으로 100,000원~270,000원. 올레꾼에게는 비수기에 최대 50%, 성수기에 20%를 할인해 준다. 취사 가능, 인터넷 가능.

제주산방산 탄산온천 064-792-8300

화순-모슬포간 일주도로 옆에 위치한 탄산온천 찜질방. 지하 600m에서 솟아나는 이곳 탄산온천수는 세계 3대 탄산온천수로 꼽힐 정도로 좋은 수질을 자랑한다. 찜질방 숙박도 가능하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펜션 숙박도 가능하다. 온천욕 입장료는 11,000원.

사계여행민박 064-792-4466

안덕면 사계리 262-2. 도미토리 10,000원. 객실 30,000원

산방산캐스트하우스 064-792-2533

안덕면 사계리 2019-1. 도미토리 10,000원. 객실 30,000원

풀문제주 010-3848-5263

대정읍 상모리 87-14. 8평 비수기 70,000원. 1인 추가 10,000원

10-1코스

먹을거리

하동포구 해녀의 집

해녀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파도의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가파민박식당 064-794-7083

칼국수, 전복죽, 해물탕, 생선구이 등의 식단이 있다. 정식 6,000원

바다별장민박식당 010-5755-9234

매운탕부터 소라구이와 회, 라면까지 다양한 식단이 있다. 정식 7,000원, 매운탕 10,000원, 소라구이/회 10,000원, 라면 3,000원

춘자네 집 010-3691-7170

각종 해산물을 재료로 한 식단이 있다. 소라죽/전복죽 10,000원, 해산물 모듬 10,000원, 멸치국수 4,000원

꼬마 블루 코너포차(해녀의 집) 010-2693-7332

상근 해녀가 직접 잡은 각종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가파도올레길 식당 민박 064-792-7575

식당과 민박을 겸한 집.

잘만한 곳

가파민박 064-794-7083

작은방 30,000원, 큰방 40,000원

바다별장민박 010-5755-9234

2인실 30,000원, 1인추가시 10,000원. 취사 가능, 개별 욕실.

가파도 내 민박 문의

가파도 이장 010-3699-7173

11코스

먹을거리

산방식당 064-794-2165

모슬포 시내 상설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밀면은 양 많고 가격도 저렴해 인근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밀면 4,000원, 수육 5,000원/8,000원.

항구식당 064-794-2254

자리물회, 한치물회 등 물회가 유명하고, 자리 구이도 맛있다. 모슬포항에 자리 잡고 있다. 회덮밥 7,000원, 잡어매운탕 6,000원, 돔매운탕 7,000원.

신호등식당 064-794-6111

가정식 백반이 푸짐하게 나온다. 모슬포 시내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5,000원.

선유횃집 064-794-5125

모듬회가 30,000~50,000원 정도인 저렴한 횃집이다.

우리마을식당 064-794-1121

대정읍사무소 옆에 위치한 식당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모듬구이가 맛있다. 갈비 1인분 11,000원.

옥돔식당 064-794-8833

모슬포 5일장 맞은편에 위치. 보말칼국수(5,000원 / 보말국 6,000원)가 일품이다

안당네 풀내음 064-792-4525, 011-323-4310

대정읍 무릉리(인항동)에 위치한 식당. 정식 5,000원, 순대국밥 5,000원.

잘 만한 곳

고사리 김보은 할망집 010-9661-8364 064-794-8364

꽃자왈 입구에 있는 마을에 위치.

꽃자왈 현순여 할망집 010-6660-3446

064-792-3446

꽃자왈 출구, 11코스 종점 인근에 위치.

멜레로그빌 064-792-3636

하모해수욕장 옆에 자리 잡은 통나무로 지은 펜션. 12평부터 35평까지 5가지 타입의 객실이 있다. 가격은 비수기 주말 기준으로 100,000원~270,000원. 올레꾼에게는 비수기에 최대 50%, 성수기에 20%를 할인해 준다. 취사 가능, 인터넷 가능.

다모인 건강랜드 064-794-6477

모슬포 매일시장 옆에 있는 불가마 찜질방이다. 찜질방 7,000원, 사우나 4,000원.

동성수산 민박 064-794-7034

모슬포항에 있는 민박집이다. 3명이 잘 수 있는 방이 30,000원.

생태학교 올레게스트하우스 010-5301-2085

11코스 종점에 위치한 생태학교 숙소. 교실 반정도 크기의 온돌방을 갖추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명까지 한 방에 잘 수 있다. 1인당 13,000원, 취사가 가능. 아침 식사도 가능하다. 인터넷 가능. www.ecojeju.com

제주산방산 탄산온천 064-792-8300

화순-모슬포간 일주도로 옆에 위치한 탄산온천 찜질방. 지하 600m에서 솟아나는 이곳 탄산온천수는 세계 3대 탄산온천수로 꼽힐 정도로 좋은 수질을 자랑한다. 찜질방 숙박도 가능하고, 이곳에서 운영하는 펜션 숙박도 가능하다. 온천욕 입장료는 11,000원.

12코스

먹거리

차귀도 동환식당 민박 064-772-2955

김치찌개 5,000원, 성게국 8,000원.

고산 육거리 식당 064-772-5560

육개장 5,000원, 돼지갈비 1인분 9,000원.

고산 모두아식당 064-772-5357

정식 5,000원. 배달 가능.

신도2리 도원횡집 011-639-4119

정식 밑반찬이 푸짐하게 나오고 우럭매운탕이 맛있다. 정식 5,000원, 우럭매운탕 8,000원.

우리마을식당 064-794-1121

대정읍사무소 옆에 위치한 식당. 제주산 돼지고기 모듬구이가 맛있다. 갈비 1인분 11,000원.

안당내 풀내음 064-792-4525, 011-323-4310

대정읍 무릉리(인항동)에 위치한 식당. 정식 5,000원, 순대국밥 5,000원.

잘만한 곳

신도 고인옥 할망집 064-792-1542

010-7382-8890, 010-2697-8500

12코스 중간 지점인 신도리에 위치.

차귀도 동환식당 민박 064-772-2955

1박 30,000원.

차귀도 횡집 민박 064-773-1114

1박 30,000원.

용수(절부암) 노을이 아름다운 펜션 010-3690-0444

동/하절기 40,000원, 비수기 30,000원.

생태학교 올레게스트하우스 010-5301-2085

11코스 종점에 위치한 생태학교 숙소. 교실 반 정도 크기의 온돌방을 갖추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20명까지 한 방에 잘 수 있다. 1인당 13,000원, 취사가 가능. 아침 식사도 가능하다. 인터넷 가능. www.ecojeju.com

13코스

먹거리

만나와 메추라기 064-772-3255

생각하는 정원에서 10m 저층초등학교 앞. 제주산 각종 나물과 함께 먹는 보리밥, 손칼국수 각 5,000원

새로움종식 064-772-5807

13코스 종점인 저지리 마을회관 100m 전. 시골마을 스타일의 중국식 면류가 맛있고 여름철엔 자리물회, 콩국수 메뉴 추가

닥마루가든 064-772-5556

저지리사무소 파출소 옆. 목장에서 기른 말고기 요리 전문점으로 육회, 생구이, 샤브샤브 등으로 요리한다. 말고기 생구이 1인분 13,000원 코스요리 20,000~30,000원

신도불이가든 064-772-4458

저지리사무소 동쪽 300m 저지마을 입구. 쉼 샤브샤브 40,000원(4인 식사 가능), 토종닭 삼계탕 9,000원

잘만한 곳

저지리 사무소 마을민박 070-7098-4111

마을 사람들과 생생한 제주 생활 체험이 가능한 마을 주민들의 민박집. 저지리사무소로 전화하면 민박집을 연결해주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1박에 30,000원(4명까지 가능)이고 아침 또는 저녁 식사 5,000원. 또한 저지리사무소에서는 마을 인근의 불거리 명소들(제주 현대미술관, 유리의 성, 생각하는 정원, 더파크)의 정보와 30%할인(리사무소에서 민박 결제한 경우) 입장권도 판매한다. 저지예술마을 홈페이지 jeoji.invil.org

에덴빌리지 064-772-3808

저지리 생각하는 정원과 유리의 성 중간쯤 위치. 4천평의 정원은 굴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12평짜리 원룸형 객실이 모두 4개로 객실에는 싱크대와 욕실이 있다. 주인집에서 인터넷 가능하다. 성수기(7월 20~8월 20)에는 1박 60,000원, 나머지 기간에는 40,000원 www.edenvillage.co.kr

들레농수산 011-692-1960

생각하는 정원 근처, 15평, 12평 방 각 1개씩으로 모두 욕실과 부엌시설을 갖추었다. 단채민박에 유리하다. 1박 40,000(2명 기준), 1명 추가시 10,000원씩

14코스

먹을거리

옹포별장가든 064-796-3146

김구 선생, 이승만 전 대통령 등 유명인사들이 자주 왔었던 곳. 한림을 옹포리의 울창한 숲 속에 있다. 흑돼지 오겹살 구이와 선인장 김치, 선인장 냉면, 감굴 김치.

재암식당 064-796-2858

협재해수욕장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 있다. 해물뚝배기 7,000원, 갈치조림 20,000원.

대금식당 064-796-7751

옹포포구 입구에 있다. 갈치조림 20,000원.

한림바다체험마음식당 064-796-1817

한림항에 있다. 우럭조림 등의 식사와 저렴한 활어화(㎏에 3만 원 대)를 먹을 수 있다.

도원촌 064-796-2064

한림 제주은행 뒤편에 있는 중식당. 자장면과 짬뽕이 유명하다.

영일만 식당 064-796-3875

한림항 제주은행 뒤편에 있다. 간장게장에 된장찌개, 생선구이, 생선조림까지 푸짐하게 나오는 게장정식이 유명하다. 게장정식 6,000원.

잘만한 곳

풍차와 바다 레스토랑 펜션 064-796-9967

월령포구 앞에 있는 전망 좋은 펜션. 레스토랑 내부에 있는 천연동굴로 유명하다. 14평 원룸은 80,000원(성수기 120,000원), 20평 복층은 120,000원(성수기 180,000원), 28평 가족형 원룸은 150,000원(성수기 250,000원). www.jeuwas.com

월령코지 펜션 064-796-7138-9

월령코지 앞에 있어 전망이 좋은 펜션. 10평형 80,000원(성수기 100,000원), 15평형 100,000원(성수기 140,000원), 20평형 140,000원(성수기 180,000원) 올레꾼 할인 가능. www.jeu-condo.com

코지하우스 064-796-0945

금능리에 자리하고 있는 펜션. 60,000원~120,000원(성수기 100,000원~150,000원). 취사 가능. 올레꾼 할인 가능.

협재마레게스트하우스 064-796-6116

2층 침대가 놓인 도미토리 형식의 게스트하우스. 금능해수욕장에서 금능석물원 방향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있다. 1인당 15,000원. 취사가능. 유무선 인터넷가능.

J.S B&B 070-7531-3840

한림읍 협재리 1376. 도미토리 25,000원. 6인 150,000원. 토스트제공

쉬멍민박 011-683-1432

한림읍 협재리 2512-1. 2인 30,000원

연지곤지민박 010-5126-5845

한경면 저지리 1804-1. 1인 20,000원. 2인 30,000원 (1인 추가시 10,000원)

14-1코스

먹을거리

안당네 풀네음 064-792-4525, 011-323-4310

무릉리(인항동)에 위치한 식당. 정식 5,000원, 순대국밥 5,000원.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22-10.

명리동식당 064-772-5571

연탄불에 구워먹는 돼지 자투리고기로 유명하다. 코스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 자투리고기 1인분 12,000원, 정식 5,000원. 세명이 2인분을 시켜도 충분할 정도로 양이 많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3136

오설록 티 뮤지엄 064 794 5312~3

녹차를 이용해 만든 차와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을 판다. 오전 10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운영한다.(10월~3월 오후 5시 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235-3.

잘만한 곳

고사리 김보운 할망집 010-9661-8364

064-794-8364

남는 방을 올레꾼들에게 내놓는 할망집 숙소. 제주 할머니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김보운 할망은 고사리를 채취해 파는 것이 주된 일거리. 고사리 찼엔 고기보다 맛있다는 막 따온 제주 유기농 고사리 반찬을 먹을 수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380-10. 1인당 10,000원. 올레꾼 전용. 식사비는 별도

곳자왈 훈순여 할망집 010-6660-3446

064-792-3446

남는 방을 올레꾼들에게 내놓는 할망집 숙소. 제주 할머니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훈순여 할망은 직접 농사지은 푸성귀로 맛 좋은 음식을 차려 낸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84-2. 1인당 10,000원. 올레꾼 전용. 식사비는 별도.

무릉생태학교 064-792-2333

폐교를 이용해 만든 숙소. 교실만 정도 크기의 온돌방을 갖추고 있다. 1인당 10,000원, 취사 가능. 아침 식사도 가능하다. 인터넷 가능. www.ecojeju.com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 581-1.

저지마을펜션 070-7098-4111

정보화마을 체험관광 적용 상품으로 개발된 펜션. 4인 기준 50,000원(비수기)~60,000원(성수기)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경면 저지리 1863-1

15코스

먹거리

한일식당 064 799 3191

소고기 전문 식당. 납읍리 2468-2번지에 있다. 소내장탕 5,000원, 소갈비탕 5,000원, 육회비빔밥 5,000원

금산식당 064 799 1330

향토음식 전문으로 납읍리 2274-1에 있다. 몸국 5,000원, 뼈해장국 5,000원

풍석가든 064 799 9979

말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으로 깍지리 373번지에 있다. 말내장탕 7,000원, 말육회비빔밥 7,000원, 말곰탕 5,000원

오당빌레식당 064 799 7646

향토음식점으로 하가리 799-4번지에 있다. 된장떡배기 6,000원, 보리밥 6,000원, 삼계탕 8,000원

고내햇집 064 799 6888

활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햇집으로 고내리 1113번지에 있다. 쥐치조림 20,000원(3인분), 매운탕 8,000원, 각종 활어회 35,000~130,000원

화연이네 064 799 7551

향토음식 전문으로 고내리 1166번지에 있다. 보말국 5,000원, 몸국 5,000원, 갈치국 6,000원

곤밥보리밥 064 799 0116

향토음식 전문으로 애월리 1818번지에 있다. 보리밥 정식 6,000원, 보쌈정식 7,000원

일조가든 064 799 8989

생선을 재료로 한 향토음식이 주종목으로 애월리 1819-36번지에 있다. 갈치국 7,000원, 고등어조림 14,000원(2인분), 갈치,우럭조림 18,000원(2인분)

시회랑 064-799-4933

활어 전문 음식점으로 애월리 1819-37번지에 있다. 돔지리 10,000원, 복치리 15,000원, 생선초밥 10,000원, 전복죽 12,000원

해송허센터 064-799-1662

활어 전문 햇집으로 애월리 1819-30번지에 있다. 돔지리 10,000원, 옥돔구이 10,000원, 활어회 60,000~16,000원

성안식당 064-799-0145

향토음식 전문으로 애월리 1716-4번지에 있다. 전복떡배기 10,000원, 해물떡배기 6,000원, 갈치,고

등어조림 7,000원, 우거지해장국 5,000원

잘만한곳

바다하우스 064-799-6192

고내리 1176번지에 있는 민박이다. 10평형 방을 올레꾼에게 35,000원(일반가 50,000원)에 제공한다.

화연이네 펜션 064-799-7551

고내리 1166번지에 있다. 고내포구 인근. 올레꾼에게는 9평형을 성수기 60,000원(일반가 80,000원), 비수기 50,000원(일반가 60,000원)으로 할인해 준다. 7평형은 성수기 50,000원(일반가 60,000원), 비수기 40,000원(일반가 50,000원)을 받는다.

마녀가탄빛자루호텔 064-799-7749

고내리 373번지로 고내와 신림 사이에 있다. 6인 기준 콘도형 숙소를 올레꾼에게 140,000원(일반가 190,000원)에 제공하며, 일반객실(2인기준)은 50,000원(일반가 90,000원)에 제공한다

메인리조트 064-799-2002

고내리 364번지로 고내와 신림 사이에 있다. 55평형(방 3거실) 150,000원, 45평형(방 3거실) 120,000원, 32평형(방 2거실) 80,000원, 26평형(방 2거실) 60,000원, 21평형(방 1거실) 40,000원, 올레꾼할인 적용가격

게스트하우스 064-799-5555

고내리 326-2번지에 있는 호텔형 숙소. 방과 거실이 있는 스위트룸을 올레꾼에게 84,000원(일반가 120,000원)에 제공한다 허니룸은 56,000원(일반가 70,000원)으로 할인해 준다.

비치펜션 064-799-9910

고내리 328-4번지로 고내와 신림 사이에 있다. 방 2개와 거실이 있는 가족룸을 올레꾼에게 90,000원(일반가 110,000원)에 제공한다. 15평형 원룸은 45,000원(일반가 60,000원)을 받는다.

게스트하우스 정글 070-8900-6648

간단한취사가가능하고, 일주도로에서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1인당 15,000원. 애월읍 깍지리 1622

16코스

먹거리

수산식당 064-713-5806

돼지고기 찜과 생선을 곁들인 정식이 5,000원, 김치/된장/동태찌개 5,000원, 고등어조림은 4인기준 20,000원, 물메초등학교 근처에 있다. 애월읍 수산리 462-1

순두물식당 064-747-7333

생멸치에 야채를 넣어 깨끗하게 끓인 멸국, 돼지고기를 쪄고 은 국물에 몸을 넣어 끓인 몸국 등 제주도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집이다. 정식, 오삼불고기 등의 식단도 있

다. 멜국/몹국 6,000원. 광령1리 사무소 근처에 있다.

왕자관 064-747-2633

지장면 3,500원, 찜뽕 4,000원, 볶음밥 4,000원, 고추찜뽕/삼선찜뽕 5,500원. 광령1리 사무소 옆에 있다.

광령식당 064-746-8877

두루치기 6,000원, 순두부찌개/된장찌개/육개장 5,000원. 광령1리 사무소 앞에 있다.

잘만한 곳

노루물 민박 064-748-8250

도미토리 1인 15,000원, 콘도형 일반실도 운영한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102-1.

동지촌 민박 064-748-7942

2인실 30,000원.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 2767-1.

숲속의 테마 064-748-8558

2인실을 올레꾼에게 40,000원(일반가 50,000원), 70,000원(일반가 80,000원)에 제공한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929

리조트메인 064-799-2002

55평형(방3 거실) 150,000원, 45평형(방3 거실) 120,000원, 32평형(방2 거실) 80,000원, 26평형(방2 거실) 60,000원, 21평형(방1 거실) 40,000원, 올레꾼할인 적용가격,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64.

마녀가탄빛자루 064-799-7749

2인실을 올레꾼에게 50,000원에 제공하며, 6인기 준 콘도형 숙소는 140,000원(일반가 190,000원)에 제공한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373

SINUM1980. 019-757-1347

잔디마당이 있는 독채를 100,000원(비수기), 120,000원(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다. 애월읍 신엄리 2552-1

18-1코스

먹을거리

제일식당 064-742-9333

매운탕 1인분 8,000원, 쥐치 매운탕/쥐치조림 40,000원(3~4인), 아나고탕 35,000원(3~4인) 각종 자연산 활어회.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8-4

귀빈식당 064-742-4900

활어 우럭 매운탕 40,000원, 쥐치 매운탕 40,000원, 아나고탕 35,000원. 4인 기준. 각종 자연산 활어회.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6

중앙식당 064-742-3735

굴비정식 7,000원, 조기 매운탕 7,000원, 김치찌개/된장찌개 5,000원, 육개장 6,000원,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5-10

추자섬식당 064-742-8296

정식 6,000원, 굴비정식/굴비 매운탕 7,000원, 자리물회/한치물회 7,000원.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8

e맛식당 064-742-5148

백반 5,000원, 칼국수 5,000원, 멸치국수 5,000원.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34-1

잘만한 곳

여정여관 064-742-3512

객실 7개를 운영하는 여관. 2인 1실 기준으로 30,000원을 받는다. 추자항 여객선 대합실 앞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4-4

성보여관 064-742-8881

객실 7개를 운영하는 여관이다. 침대방은 2인 1실 30,000원, 온돌방의 경우 2인 1실은 30,000원, 2명이 상일 경우는 1인당 10,000원을 받는다. 상추자의 리사무소 옆에 있다.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148-1.

게스트하우스 010-4057-3650

추자도에 머물수 있는 민박과 게스트하우스는 추라도 올레지기에게 문의하면 된다.



올레길의 추억을 가져가세요



- | | |
|----------------|---------|
| 1. 제주올레 패스포트 | 15,000원 |
| 2. 간세인형 | 15,000원 |
| 3. 제주의 오름 멀티두건 | 10,000원 |
| 4. 돌담과 굴밭 멀티두건 | 10,000원 |
| 5. 물병의 자리 | 4,000원 |
| 6. 당근발 스카프 | 6,000원 |
| 7. 어른용 우비 | 16,000원 |
| 8. 어린이용 우비 | 9,000원 |

제주올레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건 **축복**, 제주올레 길을 내는 데 힘을 보태는 건 **행복**!

2007년 설립한 (사)제주올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을 만드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제주도의 숨은 길을 찾고, 끊어진 길은 잇고, 사라진 길은 되살리고, 없는 길은 만들어서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제주올레는 별도의 입장료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길입니다. 이 길을 더 늘리고 유지 관리하려면 제주올레의 주인이 늘어나야 합니다. 제주올레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주올레 후원 회원이 되어 이 길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주올레에 연 10만원 이상 후원하시는 후원 회원께 드리는 혜택.

- 제주올레에서 발행하는 안내 자료와 기념품을 드립니다.
- 후원회원만 가질 수 있는 날개 달린 간세 배지를 증정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 제주올레가 기획한 유료 프로그램 이용시 회원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주올레가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개 달린 간세는?

간세는 제주도의 조랑말을 모티브로 만든 제주올레의 상징입니다.

'간세'라는 이름은 제주올레 길을 걷는 정신인 간세다리(개으름뱅이를 뜻하는 제주어)에서 따온 애칭입니다.

천사의 날개가 달린 간세 배지는 제주올레의 후원회원을 상징하며,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원회원께만 드리는

제주올레의 선물입니다.

제주올레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방법.

매월 1만원 이상을 정기적으로 후원하시거나 일시납으로 10만원 이상 후원하시면 됩니다.

후원계좌 : 농협 903035-51-073914

예금주 : (사)제주올레

후원문의 : 064-762-02190

www.jejuolle.org

jejuolle@jejuolle.org

모바일 제주올레 가이드(SHOW 일반판)

5555+SHOW 정보이용료 및 데이터 통화료 무료.



제주올레 가이드북

발행일 2010년 8월 4일
펴낸곳 사단법인 제주올레

편집 사단법인 제주올레

디자인 디자인루소 www.designlooso.com

인쇄 아름다운인쇄

사단법인 제주올레

전화 064.762.2190

팩스 064.733.2170

홈페이지 www.jejuolle.org

지도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